

이야기로 만나는

시비심판과 율곡

사단
법인 율곡연구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 2015년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국제적 확산 사업)

머리말

오랜 전통을 가진 집안에는 가보(家寶)로 전하는 값비싼 보석이 있고, 긴 역사를 지닌 민족은 그 조상 중에 보석보다 더 고귀한 인물들이 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 그러기 때문에 금강석보다 더 빛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다. 이 얼마나 자랑스런 일이나.

그러나 우리는 제 집에 값비싼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남의 집 보배를 부러워하고, 제 조상 중에 위대한 인물이 있는 걸 잊어버리고 남의 나라 인물을 칭송할 줄만 아는 것이 어떻게나 탄식스런 일인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제 집 보배를 지키고 빛내고, 제 집 조상을 위하고, 자랑할 줄 알아야겠다. 돌아보면 지나간 왜정시대에서도 우리 국학(國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고, 뿐만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세워 보려고 애써 왔는데, 하물며 해방된 이 시대에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식, 우리 학문에 대한 애호심과 탐구열이 박약하고 또 그것을 찾는 이가 있어도 거기에 제공할 만한 정확한 서적의 준비가 없는 것이 탄식스럽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출판계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나라 국사, 지리, 인물 등에 대한 서적들이야말로 얼마나 반갑고 귀중한 것인지 모른다.

또 그 중에서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을 발표한 서적의 귀중함이야 더 말할 것 없는 일이거니와, 우리는 그보다 오히려 국민들의 상식에 제공하는 대중적 교양본이 한 층 더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제 나라 지식과 학문은 어느 일부분 특별한 연구가의 연구 대상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상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사임당(師任堂)과 율곡(栗谷)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국민 전체가 쉽게 해득할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하는 방법을 취하여 이 책을 엮어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체재의 편찬이 기야 할망정, 어디까지나 문헌적 근거 위에서 정확한 것을 구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 국사, 지리, 인물들에 대한 상식을 주려는 본의는 좋으나, 그것을 정확하게 적지 못해서 도리어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게 하는 서적이 없지 않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상의 인물들을 알려 주는 책일수록, 어느 것보다 정확해야 하는 곳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쉽게 쓰면서도, 제일 이 점에 착안하여,
조금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보태거나 줄이거나 하는 따위의
일이 없이 어디까지나 문헌과 기록에 의해서만 정확히 소개하는 데에
애를 쓴 것인만큼 이 책이 우리들의 상식 교양에 이바지되어진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다.

一九六六년 十二月

노산 이 은 상

『사임당과 율곡』을 다시 발간하며

신사임당이나 율곡 이이 선생에 관한 연구는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가운데 노산 이은상 선생이 1966년에 기록한 『사임당과 율곡』이라는 책이 출간된 일이 있었다. 이 책은 신사임당과 율곡에 관한 기록으로는 그간 일반적으로 그리 알려지지 않던 것으로 구전, 또는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 사이에 연관이 있는 분들의 문집 등에 전하는 이야기들을 모아 세심하게 조사·기록한 책으로 전한다. 그러나 이 책이 세상에 나온지 60년이 다 되어가므로 이미 절판된지 오래되어 구해 볼 수 없는데다가 저자인 노산 이은상 선생도 고인이 된지 오래 되어 속간될 기미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노산 선생의 귀한 기록이 이 시대에 널리 알려져서 후세에 길이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보완하여 다시금 발간하기로 작정하였다. 앞서의 노산 선생의 기록과 중복되는 부분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호제현의 양해를 구하면서 원저의 표현 중 일부는 다소 평이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 책이 신사임당과 율곡 모자의 또다른 면을 이해하는데 귀한
자료가 되었으면 다행이겠다. 아울러 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강원도
지사님과 강릉시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2월

율곡평생교육원장 정 문 교

차 례

머리말

『사임당과 율곡』을 다시 발간하며

사임당편

1. 사임당약전 13

- 1504년 강릉 북평 오죽헌에서 나다 14
- 19세에 이원수(李元秀)공에게 출가하다 16
- 과주(坡州)로 봉평(蓬坪)으로 옮겨 다니다 17
- 48세에 서울 삼청동(三清洞)에서 별세하다 19

2. 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 부인 21

- 1480년에 무남독녀로 태어나다 21
- 어머니는 별세하고 부군은 병들다 23
- 부인의 지성에는 하늘도 감동하다 26
- 이씨 부인의 영향은 율곡에게까지 미치다 28

3. 효녀로서의 사임당 32

4. 현숙한 아내로서의 사임당 37

- 죽은 뒤에 재혼하지 마시오 38
- 이기(李芑)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오 40

5. 여진 어머니로서의 사임당 42

- 사임당의 자녀들 42
- 사임당(師任堂)이란 호의 뜻 49

6. 예술가로서의 사임당 51
정당한 체법의 글씨 51
남아 전하는 절묘한 작품들 54
7. 사임당의 일화 58
약속한 10년 공부 58
나도 밤나무 60
살아 있는 실물 같은 그림 66
유기 쟁반에 그린 그림 68
치마폭에 그린 포도 그림 69

울곡편

1. 울곡약전 73
1536년 강릉 북평 오죽헌에서 나다 74
과거 시험에서 아홉 번 장원하다 76
바른 말로 상소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다 78
지방관이 되어 지방행정을 쇄신하다 79
온 가족이 석담에서 모여 살다 81
높은 덕과 밝은 지혜를 갖추다 82
49세에 서울 대사동에서 별세하다 86
2. 소년 울곡의 총명과 재예 90
3. 울곡과 서모庶母 권씨權氏 101

4. 율곡의 부인과 자녀 104
 - 부인 노씨의 생애 104
 - 율곡의 소실 이씨와 김씨 106
 - 율곡의 혈통과 서자문제 109
5. 율곡과 기생 윤희지 112
6. 율곡과 누이 매창 125
7. 율곡의 입산 128
 - 율곡의 입산 동기 128
 - 율곡은 머리를 깎았던가 131
 - 율곡은 왜 돌아왔던가 134
 - 율곡의 금강산 시대의 작품 135
 - 율곡의 돌아온 뒤의 첫 결심 139
8. 율곡의 석담 생활 144
9. 율곡의 일화 154
 - 율곡과 가난 154
 - 율곡과 꿈 158
 - 율곡의 인품과 성격 161

부록

1. 사임당 연보 171
2. 율곡 연보 173



사
임
당
편



신사임당 申師任堂 1504~1551

1. 사임당 약전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사임당(師任堂)'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사임당의 행적과 예술에 대해서 자세히, 또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을 볼 때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사임당이 단지 율곡(栗谷) 선생같은 위대한 인물을 낳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율곡의 어머니가 사임당이 아니었다면 과연 율곡이 우리가 현재 알고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그 둘의 모자간의 연관 관계만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서는 진정한 사임당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임당은 '효녀'로서, '현숙한 아내'로서, 그리고 또 '어진 어머니'로서 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각도에서 보아도 분명히 훌륭한 인격자요, 학문인이요, 시인이요, 서화에 능한 천재적 예술가였음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율곡이 일찍 16세에 그 어머니를 여윈 직후에 지은 「사임당 행장(師任堂行狀)」에 근거하여 부인의 약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1504년 강릉 북평 오죽헌에서 나다

강원도 강릉(江陵) 고을은 동해안에 있는 우리나라 고대 예국(濊國)의 수도였던 역사 깊은 고장이다. 풍경도 아름다운 경포대(鏡浦臺)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북평(北坪)이란 마을(지금의 오죽헌)이 있고, 그곳에 오죽헌(烏竹軒)이라고 부르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율곡 선생이 태어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높이 일컫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율곡 선생이 거기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율곡 선생을 낳은 어머니 사임당 역시 거기서 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죽헌 전경

사임당의 아버지는 평산(平山) 신씨(申氏)로서 이름은 명화(命和), 자는 계흠(季欽), 호는 송정(松亭)이었고, 멀리 고려 태조의 충신이었던 장절공(壯節公) 송겸(崇謙)의 18대 손인 훌륭한 가문의 선비였다.

그런데 사임당의 외조부 이사온(李思溫)이란 이가 일찍이 강릉 북평에다 집을 잡았기 때문에 어머니 이씨가 거기서 자랐고, 또 마침 무남독녀였기 때문에 신명화공에게 출가하고도 친정에 그대로 눌러 있었던 관계로 사임당이 그의 외가인 이 곳에서 탄생하니, 때는 조선 연산(燕山) 10년 갑자년(甲子年, 1504) 10월 29일(음력)이었다.

아버지 신명화공과 어머니 이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으로는 아들은 없었고 딸만 다섯인데, 사임당은 그 중에서도 둘째로 태어났다.

나면서부터 인물이 잘나고 바탕이 뛰어나 부모의 특별한 총애를 입었고, 천부의 재주가 남달리 비상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배워야 하는 자수나 바느질에는 물론이고 글과 글씨와 그림에까지 그의 천재적 소질을 발휘했던 것이다.

19세에 이원수李元秀공에게 출가하다

사임당은 진작 7세 때부터 세종(世宗) 때의 유명한 화가 안견(安堅)이란 이의 산수그림을 앞에 놓고 늘 그것을 모방해서 그림을 연습하는 한편, 부모에게서 유교의 경전과 한문학을 배워 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근본 교양과 자품(資稟)¹을 길러서 장차 어진 부인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던 것이다.

19세 때에 덕수(德水)를 본관으로 한 이씨 문중에 출가하였는데 그 부군의 이름은 원수(元秀)로서 멀리 고려시대의 중랑장(中郎將) 돈수(敦守)로부터 헤아려서 12대손이 되는 이름 있는 집안이었다. 이원수공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홍씨(洪氏) 밑에서 자랐으며, 처음 이름은 난수(蘭秀)요, 자는 덕형(德亨)으로, 당시 나이는 사임당보다 3년 위인 22세의 청년이었다. 그런데 사임당은 뛰어난 재질로 친정 부모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출가시켜 놓고도 얼른 서울 시댁으로 보내지는 않았었다.

1 사람의 타고난 바탕과 성품 [편집자]

혼인한 직후에 어느날 부친 신진사(進士)가 사위되는 이원수공을 불러 놓고, “내가 여러 딸을 두었지만 네 처만은 내 곁에서 떠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까지 했던 것을 보면, 친정 부모가 특히 사임당을 얼마나 사랑했단가를 짐작하기에 족하다. 그래서 사임당은 출가한 그대로 친정에 머물러 있더니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몇 달도 안되어 그해 11월 7일에 친정 부친 신진사가 47세로 서울 본가에서 세상을 떠나 버리고 말았다.

파주坡州로 봉평蓬坪으로 옮겨 다니다

사임당은 이 같이 시댁에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만 계시는 터이지만 친정에도 역시 아버지 안계시는 홀어머니 이씨 부인 홀로라서 그대로 친정을 떠나 서울 시집으로는 올라올 수 없어 그냥 그대로 친정에 눌러 있어, 3년 상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시어머님께 신혼례를 드렸던 것이다.

사임당은 19세에 출가하여 21세 때에 서울 시댁으로 올라온 셈인데, 그마저 서울에서만 눌러 산 것은 아니었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50킬로쯤 되는 파주 율곡리(栗谷里)는 시댁의 선조 때로부터 내려오는 오랜 터전이다. 그래서 뒷날 율곡도 매양 거기에서 기거했기 때문에 별호조차 ‘율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고 사임당도 그 곳으로 내왕했던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또 사임당은 친정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 있기도 했으며, 또 한때는 부군과 함께 대관령(大關嶺) 서쪽에 있는 강원도 봉평(현재의 평창군 봉평면 백옥포리, 속칭으로는 판관대(判官臺))라 부르는 곳에서 여러 해를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사임당이 33세 때,



율곡리 전경 | 화석정에서 내려다 본 율곡리

셋째 아들 율곡 선생을 잉태할 때에 꿈에 동해가에 이르렀더니 어떤 선녀가 있어 바다 속으로부터 살빛이 백옥같이 흰 옥동자 하나를 안고 나와 부인의 품에 안겨주고 가는 꿈을 꾸었고, 또 강릉 친정에서 율곡을 낳던 날 밤 꿈에도 검은 용이 동해로부터 날아와 그의 침실 문 머리에 서려 있었다고 해서 그 방을 ‘몽룡실(夢龍室)’이라고 부르며, 또 율곡의 아이적 이름도 ‘현룡(見龍)’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율곡 후손들의 집안에서나 또 봉평 민간에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율곡을 잉태한 곳이 봉평이었다는 것인데, 그 사실 여부는 확실히 알길이 없으나 다만 봉평에서 여러 해를 살았던 것만은 율곡의 기록으로도 확실하다.



48세에 서울 삼청동三淸洞에서 별세하다

이같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며 10여 년을 보내다가 마침내 38세 때에 강릉 계신 홀어머니 이씨 부인을 완전히 작별하고 서울로 올라오니, 때에 율곡의 나이는 6세였다.

서울로 올라와 수진방(壽進坊, 현재의 수송동과 청진동)에서 산 것이 10년 동안이었고 마지막 48세 되던 해 봄에 수진방으로부터 삼청동으로 이사를 했다. 그해 여름에 부군 이공이 수운판관(水運判官)이 되었는데, 이 수운판관이란 것은 각지방으로부터 중앙에 조세로 바치는 곡식을 실어 올리는 선박운수 사무를 맡은 종5품 벼슬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공은 그 당시 세곡(稅穀)을 실어 올리는 일로 평안도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사무를 끝마치고 배를 타고 서울로 향하여 올라오는 도중이었는데

사임당은 자리에 누운지 불과 2·3일 만에 문득 집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모으고, “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하는 말을 한 마디 남기고서 홀연히 눈을 감으니, 때는 명종(明宗) 6년 신해년(辛亥年, 1551) 5월 17일(음력) 새벽이었다. 그때 부군 이공은 맏아들 선(璦)과 셋째 아들 을곡(을)당시 16세)을 데리고 같이 갔다 오는 길인데 일행은 사임당이 운명하는 바로 그날 아침, 서울 서강(西江)에 도착하여 사임당의 별세한 소식을 듣고 길에서 통곡하기를 그치지 못했었다.

율곡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평안도에서 가지고 오던 행장 가운데 낫그릇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꺼내어 보니 모두 새빨갳게 빛이 변했더라.”라 하여 율곡도 그것을 자못 이상히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 낫그릇뿐이었겠는가. 산천도 응당 빛이 변했을 것이다. 덕행으로, 인격으로, 학문으로, 예술로 우리 역사상 부녀계의 으뜸가는 인물 한 분이 48세의 애석한 나이로 마치 혜성(彗星)과도 같이 빛을 놓고 사라져 버린 것이니, 어찌 산천인들 슬퍼하지 않았겠는가.

몸은 비록 파주 두문리(斗文里) 자운산(紫雲山) 기슭에 묻혔어도 그 정신과 이름은 부인의 예술작품과 함께 후세에 길이 전해지고 있다. 또 그의 영원한 생명을 전함에 부족할까봐 율곡과 같은 위인을 낳아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서로 밀고 이끌며 세월이 갈수록 더욱 더 그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본다.

2. 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 부인

율곡을 아는 이는 누구나 그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사임당을 아는 이로서도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을 아는 이는 무척 드물다.

율곡이 사임당에게서 났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씨 부인의 행적을 알고 보면 ‘과연 그런 어머니이기에 사임당같은 부인이 났구나’하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또 사임당의 자녀들 중에 ‘매창(梅窓)’이라는 맏딸 역시 어머니의 천재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훌륭한 예술가였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 집안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역사상에서 손꼽을 만한 집안은 그리 흔치는 않다. 우선 여기서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어떠한 여성이었는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1480년에 무남독녀로 태어나다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부인의 아버지는 용인(龍仁) 이씨로서 이름은 사온(思溫)이고 어머니는 강릉 사람으로서 참판(參判) 벼슬을 지낸 최응현

(崔應賢)의 자녀 11남매 중의 둘째 딸 최씨였다.

조선 성종(成宗) 11년(1480) 1월 24일에 강릉 외가에서 나서 외가에서 자랐다. 그래서 어려서는 외조부 최참판의 그늘 아래서 글을 배웠고, 「삼강행실(三綱行實)」같은 것도 외우기까지 했다. 그 뒤에 아버지 이사온이 강릉 북평에다 자리를 잡으니 당시 이씨 부인의 처녀시절이었는데, 거기 가 바로 지금 오죽헌(烏竹軒)이 있는 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헌 자리는 실상 율곡의 외조모 이씨 부인이 자라난 옛 집터이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자라다가 서울 사는 평산(平山) 신씨(申氏) 명화(命和)공에게 출가하니, 신공(사임당)의 아버지는 뒷날에 어진 학자란 이름을 들은 분이 었다. 혼인한 직후에는 서울 시택으로 올라왔었으나 친정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곧 다시 강릉으로 내려가서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다. 더 구나 그는 무남독녀였다. 그래서 남편과 시택의 승낙을 받아 그대로 북 평 친정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이어서 율곡도 그의 기록에, “외조 부모가 16년 동안이나 서울과 강릉에서 서로 떨어져 살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이야 못 낳았을망정 딸을 다섯이나 낳으면서도 부 부가 한 집에서 오래 같이 거하지를 못했던 것이라 행복스런 부부생활이 었다고는 하기가 어려웠고, 다만 부군되는 신진사가 강릉 처가로 내왕했 던 모양이다.

율곡이 16세 때에 그의 외조모 이씨 부인을 위하여 「이씨가 하늘을 감 동시킨 이야기[李氏感天記]」라는 재미있는 실기를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씨 부인의 성격을, “말에는 서툴러도 행동은 민활했고, 모든 것에 신중 히 하되 옳은 일에는 과감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비록 간단한 설명이 지만 부인의 성격과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는 듯하다.

그리고 사임당은 다섯 딸들 중 둘째였는데 역시 어머니 이씨 부인의

친정에서 태어났던만큼 서울에서 내왕하는 아버지 신진사의 교훈보다는 오히려 어머니 이씨 부인의 교훈 아래서 자랐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어머니는 별세하고 부군은 병들다

부군되는 신공사임당의 아버지는 이씨 부인보다 네 살이 위인데, 41세 되던 해에 진사(進仕)시험에 오르자 당시의 재상이던 윤은보(尹殷輔), 남효의(南孝義) 같은 이들이 조정에 높이 천거하고자도 했으나 공은 그것을 굳이 사양하고 오히려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써 만족했다. 더구나 그로부터 3년 뒤인 중종(中宗) 14년 기묘년(1519)에는 공의 나이 44세였는데, 이른바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던 해이다.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선생을 필두로 많은 어진 학자들이 억울한 피를 흘릴 적에 공은 그들과 같이 불행한 화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때문에 시국에 상심되는 바가 더욱 커서 집에서 울분한 날을 보내며 다만 학문을 연구함에만 전념했던 것이다.

신공이 46세 되던 해 봄에 부인의 친정 어머니 최씨가 세상을 떠나 효녀인 부인의 슬픔은 형언할 길이 없었다. 이 때에 있었던 사실 이야기를 쓴 것이 율곡의 16세 때에 지은 「이씨감천기(李氏感天記)」란 것인데, 그 기록 그대로를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공이 여주(驪州)에 이르러서 장모 최씨가 별세했다는 부음을 듣고 갑자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여행 도중에 음식도 잘 못먹고 잠도 잘 못자

고 하다가 마침내 두뇌 후부에 찬 기운이 덧쳐서 횡성(橫城)을 거쳐 운교역(雲交驛)에 이르러서는 아주 병이 짙어지면서 귀가 먹고 열조차 높아졌다. 진부역(珍富驛)을 지나 창두(蒼頭)의 내은산(內隱山)에 이르러서는 모두들 머무르기를 권했으나, 신공은 그럴수록 ‘급히 가는 것만 못하다’ 하고 병을 억지로 이겨가며 횡계역(橫溪驛)까지 갔으나 병은 점점 더 심해져서 목으로 피까지 토하는 것이었다.

이때 강릉 사람 김순효(金舜孝)란 이가 그것을 보고 급히 북평택[오죽현]에 있는 부인 이씨에게 기별해주자, 이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씨 부인은 어머니 초상을 치르고 난 직후에 남편이 또 이같이 급한 병에 걸려 도중에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에 놀라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씨 부인은 사임당 등 여러 딸들과 외사촌 동생 최수몽(崔壽蒙)을 데리고 도중으로 마중을 나갔다.

신공은 구산역(丘山驛)에 이르러서는 누운 채 일어나지 못했는데 억지로 떠메어 강릉 경내 조산(助山)에 있는 최씨의 재실(齋室)로 들어갔다. 이때 신공은 가족들을 만났지만 얼굴은 시커매지고 피를 계속 토하며 말조차 못하는 것이었다. 병이 이미 때를 놓쳐서 온갖 약을 다 써도 효력이 없었다. 그래서 신공의 병은 완전히 절망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씨 부인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도 아직 채 가시기 전에 부군마저 이렇게 되고 보니 천지가 째째할 따름이었다.



사임당 | 파리와 잠자리

부인의 지성에는 하늘도 감동하다

이제는 신명께 기도를 드리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인은 일곱 날, 일곱 밤을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신명께 빌었다. 그래도 보람이 없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목욕하고 손발톱을 깨끗이 깎고 남몰래 조그마한 장도(掌刀) 하나를 지니고 외증조부 되는 최치운(崔致雲)의 무덤이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향불을 피우고 소리쳐 울며 하늘에 빌었다.

율곡은 그의 「이씨감천기」에 그 때 외조모 이씨 부인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적었는데, 그 기도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한다.

하느님! 하느님!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심은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쌓고 악행을 거듭하는 건 사람의 일입니다. 이제 저의 남편은 지조를 지켜왔고 사흘(詐譎)한 행동이라고는 없었사오며, 모든 행실에 흉악한 점은 한 가지도 없었사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에도 무덤 곁에다 막을 매고 3년을 거하며 나물만 먹으면서 효성을 다했사옵니다.

하늘이 만일 알음이 계시다면 응당 모든 선악을 살피실 터이온데, 이제 어찌하여 이같이 지독한 벌을 내리시옵니까. 저도 또한 남편과 더불어 각각 그 아버지를 봉양하느라고 서울과 시골에 서로 떨어져 16년 동안이나 별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홀어머니를 여의었사운데 또 이같이 남편의 병조차 위독하게 되오니 외로운 몸이 장차 어디 가서 의탁한다 하오리까. 원하옵건대 하늘과 사람이 모두 다 같은 이치 속이요, 조금도 틈이 없사온즉 하느님! 하느님이시여! 이 정성을 굽어살피시옵소서.

그리고는 지니고 갔던 손칼을 꺼내어 왼손 가운데 손가락 두 마디를
끊어 들고 하늘을 우리러 허공을 어루만지며 다시금 빌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되었사옵니다. 몸뚱이나 머리터
럭까지라도 모두 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감히 훼손(毀傷)하지 못한다 하
옵지마는², 내 하늘은 남편이온데 하늘을 삼는 그이가 이제 무너지면 어찌
저 홀로 산다 하오리까. 원컨대 제 몸으로써 남편의 목숨을 대신하고 싶사오
니 하느님, 하느님이시여! 저의 이 정성을 굽어살피옵소서.

이같이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다가 외증조부 최치운의 무덤 앞에 가 다
시 엎드려 절하고 새로 빌었다.

살아서 어진 신하였으며 죽어서도 맑은 영혼이 되었사오리다. 하느
님께 아뢰시어 저의 정곡을 통달케 해 주소서.

하고 집으로 돌아 내려와서는 조금도 다른 빛을 보이지 않았음은 혹시
신공이 알고 걱정할까 해서였다. 이때 시절이 마침 가물었는데, 한 시간
쯤 있다가 어디서 난데없이 검은 구름이 모여 들고 우레와 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둘째 딸(사임당). 당시 18세이 아버지의 병석 곁에
앉았다가 잠깐 조는 동안에 꿈을 꾸니, 하늘로부터 대추알 만한 약이 내
려오는데 어디서 신인(神人)이 한 분 내려오더니 그 약을 가져다가 아버
지 신공의 입에다 넣어 주는 것이었다.

2 『효경(孝經)』에 나오는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孝之始也’에서 인용한 것이다. [편집부]

그때 신공은 눈을 감은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내일이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하고 혼잣말을 하므로 곁에 앉았던 최수몽이, “그건 어떻게 아시오?”하고 물었더니 신공은 역시 의식도 없으면서, “이제 막 어떤 신인이 가르쳐 주고 갔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과연 신공의 병은 마치 무슨 거짓말과도 같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래서 온 고을이 ‘부인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다’고 늘 칭송했으며, 그 사실이 위에까지 알려져 마침내 이씨 부인을 표창하는 ‘열녀정각’까지 세웠는데, 때는 중종 23년(1528)이라 부인의 나이 49세, 딸 사임당이 25세 되던 해이다. 그러나 다만 슬픈 일로는, 그같이 기적적으로 소생해 일어났던 신공은 바로 그 이듬해에 사임당을 출가시켜 놓고(19세) 결국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부인의 열녀정각이 서던 이 해에는 신공이 죽은 지 이미 6년이 지났던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율곡 선생 문집』 14권에 있는 「이씨감천기」에 의한 것으로 그 기록은 율곡이 18세 때 쓴 것이다. 이 당시 외조모 이씨 부인의 74세였고 어머니 사임당이 별세한 지 2년 뒤였다.

이씨 부인의 영향은 율곡에게까지 미치다

이같이 부인은 이사온의 집 외동딸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은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기는 했으나, 그러자니 무상한 세상에서 부모와 남편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겪었고, 또 그뿐 아니라 사랑하는 딸 사임당까지 앞에 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편으로 한 가지 즐겁고 위로되는 사실은, 사임당 대신

외손자 율곡이 있어서 일국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외손자로부터 효성을 받은 그것이었다. 율곡은 어머니 사임당을 대신한다는 것보다도, 외로이 계시는 늙은 외조모님이라 특별히 봉양하기를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니, 율곡 연보(年譜)에 의하면 20세 때외조모 이씨 부인 76세에도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중이 된다고 했다가 도로 돌아나오면 서는 가장 먼저 강릉 계신 외조모님 이씨 부인에게로 문안 갔던 것이다.

그리고 33세 때[외조모 89세]에는 11월 이조좌랑(吏曹佐郎)에 임명되었으나 외조모 병환 소식을 듣고는 벼슬을 버리고 강릉으로 갔었는데, 그 때 간원(諫院)에서는 외조모의 봉양은 우리나라 법전에 없는 일이므로 직무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여 임금께 그의 파직을 청했던 사실까지 있었다.

그러나 선조(宣祖)는, “비록 외조모일망정 정이 간절하면 어찌 가 뵙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효행에 관계된 일로 파직까지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하고 듣지 않았다.

율곡은 그 다음해 34세[외조모 90세] 6월까지 외조모를 모시고 같이 있다가 서울로부터 교리(校理)에 임명되어 불러 올라왔다. 8월에 외조모님 봉양을 위해서 다시 상소했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다시 10월에 이르러서 선조의 특별한 사가(賜暇)³를 받아서 강릉으로 내려갔다가 그 해 12월 8일에 외조모 이씨 부인이 90세로 세상을 떠나니 부군 신공이 별세한 지 47년, 딸 사임당이 간 지도 18년 뒤였다.

이씨 부인의 무덤은 강릉 조산(助山)에 묻힌 부군 신공의 무덤에 합장했으며, 외조부모 두 분의 제시는 율곡이 받들어 왔었는데, 강릉 오죽헌에

3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함 [편집부]

보관되어 있는 옛 문서를 상고(相考)⁴해 보면 이씨 부인의 생전에 그 집 [오죽헌은 넷째 딸의 아들 권처균(權處均)에게 물려주어서 무덤을 돌보게 하고, 둘째 딸(사임당의 아들인 율곡에게는 서울 수진방(壽進坊)에 있는 기와집 한 채이며 신공이 본시 소유했던 집인 듯]를 물려주어 제사를 받들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그 이듬해에 율곡은 「외조모 이씨를 제사하는 글」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율곡의 진실로 슬픈 정이 전면에 넘쳐 흐른다.

풍수포애 어버이 못 모신 슬픔을 안고
 유일조모 오직 한 분 할머니를 받들었기로
 오매재회 자나 깨나 가슴 속에 계시옵더니
 금우기아 이제 마저 또 나를 버리옵니까.

이같이 율곡은 외조모님 이씨 부인을 잊어버리지 못했거니와, 이씨 부인의 지성스런 덕과 인격은 사임당같은 딸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외손자 율곡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그러므로 율곡을 말하는 이들이 그 어머니 사임당을 이야기함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실상 그의 뒤에 이같이 훌륭한 할머니의 그림자가 서려 계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서로 견주어 고찰함 [편집부]

3. 효녀로서의 사임당

하늘을 감동케 한 열녀요, 학문을 가졌던 이씨 부인에게서 태어난 사임당이라 사임당 자신이 이미 훌륭한 어머니의 교양 아래서 자라났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임당은 언제나 그 어머니를 잊지 못했고, 또 19세 때 출가한 직후에 아버지 신공을 여의었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니와 더욱 더 나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3년상을 마치도록 친정에 눌러 있었고, 또 그 뒤에도 거의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다가 마침내 38세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떠나 서울 시택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으나 부인은 언제나 어머니를 향하여 그리운 눈물을 지었던 것이니, 그것은 부인의 시를 통하여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유 대 관 령 망 친 정
踰大關嶺 望親庭 대관령(大關嶺)을 넘으며 친정을 바라보다

자 친 학 발 재 임 열
慈親鶴髮在臨瀛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신 향 장 안 독 거 정
身向長安獨去情 외로이 서울 길로 가는 이 마음
회 수 북 촌 시 일 망
回首北村時一望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백 운 비 하 모 산 청
白雲飛下暮山靑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대관령에 세워진 「신사임당 사친시비思親詩碑」

이 시는 사임당이 38세 때에 여섯 살 난 어린 율곡을 데리고 강릉 친정을 떠나 서울 시택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대관령을 넘으며 마루턱에 앉아 북평 친정을 내려다보면서 지은 것이다.

사 친
思親 어머니 그리워

천 리 가 산 만 겹 봉 산 첩첩 내 고향 천리언마는
 千里家山萬疊峰 山 첩첩 내 고향 천리언마는
 귀 심 장 재 몽 혼 중 자나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歸心長在夢魂中 自나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한 송 정 반 고 품 월 한송정 가에는 외로이 뜬 달
 寒松亭畔孤輪月 寒송정 가에는 외로이 뜬 달
 경 포 대 전 일 진 풍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鏡浦臺前一陣風 鏡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사 상 백 구 항 위 산 갈매기는 모래톱에 헤락 모이락
 沙上白鷗恒聚散 갈매기는 모래톱에 헤락 모이락
 해 문 어 정 임 서 동 고깃배들 바다 위로 오고 가려니
 海門漁艇任西東 高깃배들 바다 위로 오고 가려니
 하 시 중 담 임 열 로 언제나 강릉 길 다시 밟아 가
 何時重踏臨瀛路 언제나 강릉 길 다시 밟아 가
 겹 착 반 의 슬 하 봉 색동옷 입고 앉아 바느질할꼬.
 更着斑衣膝下縫 色동옷 입고 앉아 바느질할꼬.

이 시는 사임당이 서울에 와서 살면서도 늘 친정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서 눈물 짓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 동안의 작품으로 전해 오는
 것이다.

낙 구
落句 낙구

아 야 기 향 월 밤마다 달을 향해 비옵는 말씀
 夜夜祈向月 밤마다 달을 향해 비옵는 말씀
 원 득 전 생 전 사실 제 다시 한 번 보이압고저.
 願得見生前 事實 제 다시 한 번 보이압고저.

이 시는 이같이 낙구만 전하는데, 그 전편을 보지 못함은 참으로 유
 감스럽다.

이렇게 사임당의 시는 세 편이 모두 친정 어머니가 그리워서 지은 것임을 보거니와 그는 과연 율곡의 「어머님 행장」에 적힌 바대로,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늘 강릉 친정을 그리며 깊은 밤 사람들이 조용해지면 반드시 눈물 지으며 우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느 때는 밤을 꼬박 새우시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율곡은 이런 이야기도 기록해 두었다.

어느 때 친척되는 심(沈)공의 집 시비(侍婢)⁵가 와서 거문고를 타는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어머니는 그 곡조를 듣고 감회가 일어 눈물을 지으시므로 온 방안 사람들도 슬픈 생각에 잠겼었다.

이것은 바로 사임당이 얼마나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였던가를 알려 주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그는 이같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모하며 살던 부인이었다. 이것이 ‘효녀로서의 사임당’, 그리고 또 ‘시인으로서의 사임당’의 모습이었다.

5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편집부)



신사임당 | 화조도花鳥圖

4. 현숙한 아내로서의 사임당

사임당이 덕수(德水) 이씨 원수(元秀)공에게 출가한 것은 19세 때의 일 이었는데, 이원수공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부인 사임당을 따르지 못하는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덕망이나 인격으로나 재주와 학문으로나 무엇이든지 부인만 못했던 것 같다.

옛날에 있어서는 사회적 풍습으로 보아 여자는 남자와 같이 학문을 배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사임당의 경우만은 보통과 다른 점이 있었다.

학자인 아버지의 혈통으로서 아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과, 또 다섯명의 딸들 중에서도 둘째인 사임당이 가장 총명하고 천부의 자질이 뛰어났었다는 점 등으로, 사임당은 가정에서 남달리 남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일찍부터 유교의 경전을 읽어서 성현의 교훈에 감화된 바도 많았고, 그 밖에 시를 배우고 글씨를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하는 동안에 모든 교양과 견식이 남자 이상으로 쌓였던 것이다. 그래서 출가한 뒤에는 부군되는 이원수공을 늘 가르쳐 주는 입장에 섰던 것이기 때문에 이공은 부인 사임당을 마치 스승을 대하듯이 어렵게 경대(敬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죽은 뒤에 재혼하지 마시오

부군 이원수공은 사임당보다 3년 위로서 사임당이 불행하게도 48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이공은 51세였고 그로부터 10년을 지나 61세 되던 해에 이공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것처럼 겨우 10년쯤 더 사는 동안에 이공은 권씨(權氏)란 재취 부인을 들여 왔던 것이다.

그 부인 때문에 뒷날 율곡의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일이 있었거니와 사임당은 진작 생전에 그 부군의 모든 성격과 위인으로 보아 경고할 만한 점이 있었던 것인지, 평소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서로 문답한 일까지 있었다. 「동계만록(東溪漫錄)」에 의하면 이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사임당과 이공은 이런 문답을 주고 받았다.

사임당 : 내가 몸이 약하니 아마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요.

그런데 내가 죽은 뒤에라도 당신은 다시 장가들지 마시오. 우리가 자녀 간에 7남매나 두었으니까 더 구할 것이 없지 않소. 그러나 구하여 『예기(禮記)』의 교훈을 어기지 마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온전히 잘 기르는 것이 부모된 사람의 책임인 것이요.

이것은 사임당이 이미 이공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벌써 무엇인지 예감하는 바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공은 그 말을 받아서 되묻는 것이었다.

이 공 : 당신 죽은 뒤의 이야기를 지금 미리 이야기할 것야 뭐 있소. 나는 다만 공자(孔子)가 자기 아내를 내보낸 것은 무슨 예법인지

그것이나 알고 싶소.

사임당 : 공자가 노(魯)나라 소공(昭公) 때에 난리를 만나서 제(齊)나라
이제(尼溪)란 곳으로 피난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부인이 공자
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는 따로 송(宋)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요. 그러나 그 일이 있는 뒤로 그 부
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는 뿐이지 아주 나타나게 내쫓았다는 기록
은 없소.

이 말을 받아 이공은 다시 증자(曾子)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이 공 : 증자가 부인을 내쫓았다는데 그건 또 무슨 예법이요?

사임당 : 증자와 그 부인과의 이야기는 이렇게 된 것이요. 본시 증자의
아버지가 찢 배[蒸梨]를 대단히 좋아했는데 그 부인이 배를 언제
나 잘 찢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봉양하는 도리에 어짐이 있어
서 부득이 내보냈던 것이요. 그러나 증자가 효도에 관계된 일이
라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내어 보내기는 했지만 한 번 혼인한 예
의를 존중히 여져서 다시 새 장가를 들지는 아니했던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이공은 마지막으로 주자(朱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질문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 공 : 그럼, 주자의 집안에는 어떤 예법이 있었던가요?

사임당 : 주자가 47세에 그 부인 유씨(劉氏)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때 만
아들 숙(塾)은 미처 장가들기 전이라 집안에서 살림할 만한 사람
이 없었지만 주자는 다시 장가들지 아니했던 것이요.

이공은 공자, 증자, 주자의 사정을 물은 다음 더 할말이 없었고, 다만
부인의 지식과 점잖은 인격에 새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이다.

이기李翺의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오

이기의 자는 문중(文仲)이요, 호는 경재(敬齋)인데, 한 때 그 세력이 세
상을 흔든 일이 있었다. 본관이 덕수이기 때문에 율곡과 충무공과 다 같
은 문중(門衆)의 인물이지만 이기는 율곡이나 충무공같은 대학자·대영
웅이 나기 이전의 사람으로,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공보다도 25년이 위이
고, 또 촌수로는 원수공에게 오촌 아저씨가 되는 사람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피비린내를 풍긴 이른바 '사화(士禍)'란 것이 네 번
있었는데, 그 마지막 사화가 명종(明宗) 즉위년(1545)에 일어난 을사사화
(乙巳士禍)란 것이다.

중종(中宗)이 승하하고 인종(仁宗)이 그 뒤를 이었으나 겨우 8개월이
지나 그나마도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고, 인종의 아우 되는 명종이 왕
위에 올랐는데, 나이가 겨우 12세라 그의 어머니 윤씨 문정왕후(文定王
后)가 뒷방에서 정치를 주무르게 되었다. 그 때 문정왕후의 아우인 윤원
형(尹元衡)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반대파 되는 많은 인물들을 역모로 몰

아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을사사화이며 그 때 윤원형과 함께 그같이 악한 행동의 주모자가 된 이가 바로 이기였다. 이기는 그런 악한 일을 해놓고 도리어 공로를 세운 일이라 하여 풍성부원군(豐城府院君)으로 봉하고 영의정(領議政)에까지 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력을 추종하게 되었었는데, 이원수공도 그들 속에 같이 끼어들어 날마다 이기의 집으로 드나들었던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사임당은 부군을 경계해서 이같은 말을 했다. “사람이 잠깐 눈에 보이는 세력을 쫓아다니면서는 안됩니다. 저 영의정의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요.” 이공은 부인에게, “저 영의정은 우리와 같은 문중이요. 또 오촌 숙향이 되지 않소.”하고 말했다. 그때 사임당은, “그가 아무리 우리와 같은 문중이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면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어진 선비들을 모해해서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다만 자기 권세만 탐하는 이니까 그 권세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요.”하고 강경히 권고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공이 그 부인의 말에 감복하여 그 집에 드나드는 것을 삼갔기 때문에 뒷날 이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다만 부인의 선견력을 이야기하는 자료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의를 따르고 정의를 행하려 하던 사임당의 바른 인격의 발로이었던 것이요, 또 그와같이 부군을 오히려 선도할 수 있는 학문과 식견을 가졌던 것을 보이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어진 어머니로서의 사임당

사임당은 일찍 어머니 용인 이씨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함으로써 자기의 자식된 도리를 행했었고, 다시 출가한 뒤에는 남편을 섬기고 받들고 도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부족한 것을 권고하고 선도하기까지 하여 ‘현숙한 아내’의 구실을 다했거니와, 그 다음에는 자녀를 기르는 데 전심 전력하여 그야말로 ‘어진 어머니’로서의 할 일을 다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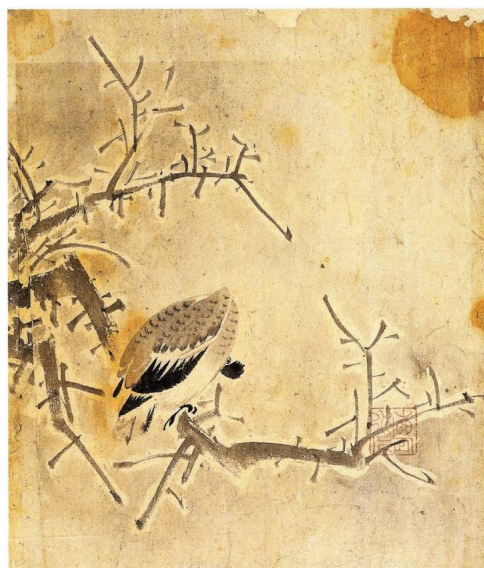
사임당의 자녀들

구분	이름	생년	출생 시 사임당나이	비고
1남	선(璿)	중종 19년(1524)	21	부인, 선산 곽씨(郭氏)
1녀	매창(梅窓)	중종 24년(1529)	26	부군, 양주 조대남(趙大男)
2남	번(璠)	미상	미상	부인, 남양 홍씨(洪氏)
2녀	미상	미상	미상	부군, 파평 윤섭(尹涉)
3남	이(珪)	중종 31년(1536)	33	부인, 곡산 노씨(盧氏)
3녀	미상	미상	미상	부군, 남양 홍천우(洪天祐)
4남	우(瑀)	중종 37년(1542)	39	부인, 덕산 황씨(黃氏)

장남 선(璿)은 호가 죽곡(竹谷)인데,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아 여러 차례 과거에 응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41세에야 진사(進士)에 올랐다. 그때 아우 율곡은 이미 호조좌랑(戶曹佐郎)이어서 오히려 형보다 앞섰던 것이다. 선은 결혼도 늦은 감이 있는 32세에 선산(善山) 곽씨에게 장가들었고, 47세에야 서울의 남부참봉(南部參奉)이 되었는데, 그나마도 몇 달 되지 않아 그해 8월에 세상을 떠난 불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율곡도 이 형의 관을 붙들고 친히 제문을 지어 눈물로 읽었으며 또 친히 형의 묘지명(墓誌銘)까지 지었던 것이다.

장녀 매창(梅窓)은 그야말로 어머니의 모든 장점을 골고루 타고난 자식이다. 학식과 지혜, 인격과 시(詩)·서(書)·화(畵)만이 아니라 바느질과 자수에까지 모조리 사임당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녀를 ‘작은 사임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녀는 대대로 명문의 자손인 한양 조씨 집에 출가했는데 매창보다 한 살 아래인 부군 조대남(趙大男)은 사람됨이 녹녹치 않아 술과 벼를 좋아하였고, 그 사이에서 3남 3녀를 두었다. 또한 지혜로써 율곡에게 영향을 미쳤다고까지 전하는 훌륭한 부인이었고, 그녀의 미술작품은 지금껏 남아 전하여 사임당의 그림과 함께 귀중한 보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부인기기도 했던 것이니, 23세에 어머니 사임당을 여의었고 10년 뒤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42세에는 오빠 선을 여의었고 56세에는 아우 율곡을 여의었는데, 바로 2년 뒤에는 남편마저 여의었던 것이다. 그리고 6년 뒤에 임진왜란을 만나 64세가 된 그녀는 세 아들(인(隣)·영(嶺)·준(峻)을 데리고 원주 영원성(鵲原城)으로 피난을 갔다가 8월 25일에 성이 무너져 맏아들인 인이 어머니를 업고 달아났으나 왜적을 피하지 못하고 왜적의 칼을 자기 몸으로 막아 어머니를 보호



매창화첩

하려다가 결국 적의 칼 끝에 모자가 함께 희생되고 말았으니, 그들의 의
기야말로 천추에 자랑할 만한 일이다.

둘째 아들 번(璠)은 호가 정재(定齋)인데, 그의 전기는 전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고 죽은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다만 그가 남긴 글 한 편이
있어 그의 학식도 또한 얼마만큼이나 높았는가를 증거해 보일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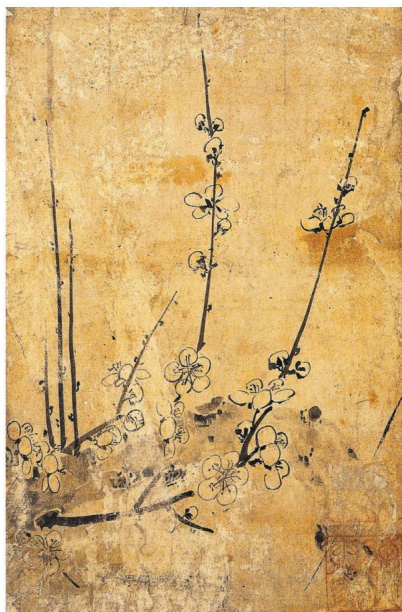
둘째 딸의 이름도 역시 알 수 없고, 그 부군 윤섭(尹涉)과 함께 황해도
황주(黃州)에서 살았기 때문에 율곡이 황해도 감사로 갔을 때와 원접사
(遠接使)로 내왕할 적에 항상 그 둘째 누이의 집에 간 일이 있었음을 율
곡문집에서 읽을 수 있다.

셋째 딸의 이름도 역시 알 수 없고, 다만 남양 홍천우(洪天祐)에게 출
가한 것만을 알 수 있는데 그나마도 27·8세 때에 일찍 부군이 세상을
떠나고 홀몸이 되었던 것이니 참으로 박명한 이였다.

넷째 아들 우(瑀)는 호가 옥산(玉山)인데 율곡보다 6년 아래로 사임당
슬하의 7남매 중에 마지막 아들로써 뒷날 광해 원년(1609)에 선산에서 별
세하니 향년은 68세였다. 우는 일찍 26세에 생원(生員) 시험에 올라 경기
전(慶基殿)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그 뒤에 여러 고을 현감
을 지나 벼슬은 군자감정(軍資監正)에 그쳤으나, 그의 특징은 실로 예술
가적인 곳에 있었다. 송우암(宋尤庵)이 지은 묘갈문(墓碣文)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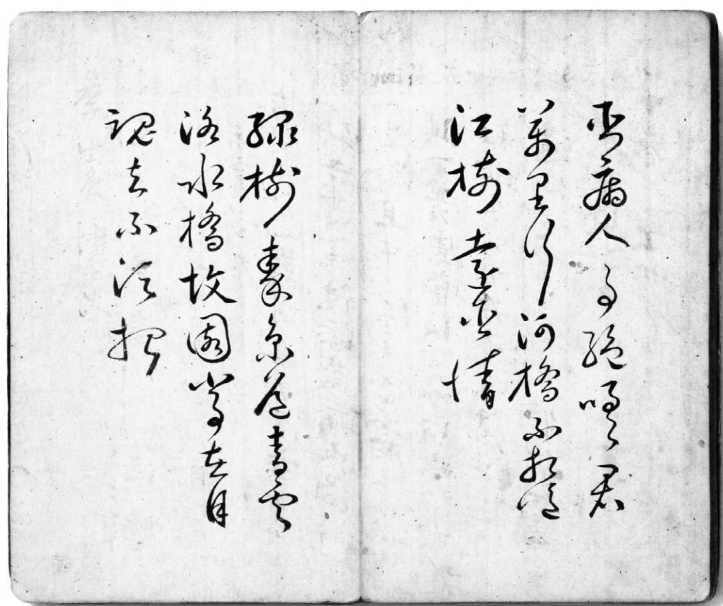
율곡이 해주 석담(石潭)에 집을 짓고 틈만 있으면 반드시 술상을 차
려 놓고서 아우를 시켜 거문고를 타게도 하고 또 시도 지으며, 서로 갈
이 즐기면서 스스로 이르되 지기(知己)라 하였다.

라고 한 것을 보면 형제 중에서도 율곡과 옥산은 참으로 우애있던 사



옥산화첩

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괴산(槐山) 군수로 있을 적에는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난 51세 때인데, 장정들을 모아 왜적에게 항전했고 또 적의 오고 가는 정형을 살펴가며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여 온 고을이 기근을 면할 수 있었기에 뒷날 조정으로부터 선무원종훈(宣武原從勳)의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옥산에게는 무엇보다도 ‘거문고·글씨·시·그림 등 네 가지 뛰어난 재주[琴書詩畫四絶]’, 그것이 옥산의 생명인 것이다. 과연 옥산은 7남매 형제 중에서도 누이인 매창과 함께 어머니 사임당의 예술적인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역사상에 초서 잘 쓰기로 1인자의 칭송을 듣던 고산(孤山) 황기(黃耆老)의 무남독녀에게 장가들어 그 장인의 지도를 받았던 것이므로 글씨에 있어서는 실로 그의 전통을 이은 것이었다.



옥산의 초서 「송지문시宋之問詩」



매창 | 목매도墨梅圖

사임당師任堂이란 호의 뜻

사임당은 무엇보다도 여자로서의 덕을 갖추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에 정성을 썼던 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자기 자신의 아호(雅號)를 ‘사임당(師任堂)’이라고 했던 것만 보아도 부인의 교양과 노력이 어떤 방향이었던가를 짐작하기에 족하다.

이 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한문 글자로도 ‘師任’을 비롯해서 ‘師姪·思任·思姪’등 여러 가지로 적혀 있기도 하나, 가장 정확한 것은 ‘師任’으로 그의 아들인 율곡의 「외조부 신공 행장」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이므로 가장 미더운 글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뜻으로 말하면 ‘師’는 스승이니, 본받는다는 뜻이고 ‘任’은 옛날 중국 고대 문왕(文王)의 어머니 ‘태임(太任)’이란 부인을 뜻한 것이니 그가 가장 현숙한 부인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는다는 뜻으로 ‘師任’이란 호를 지은 것이다. 이 호의 해석에 있어 달리 해석하는 이도 없지 않으나, 위에 말한 바대로 ‘태임을 본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다.

일찍이 1868년에 강릉부사였던 연재(淵齋) 윤종의(尹宗儀)가 사임당의 글씨를 판각에 새겨 오죽헌(烏竹軒)에 보관하면서 적은 발문에,

… 과연 그 필적에 이르러서는 정성들여 그은 획이 그윽하고 고상하고 정결하고 고요하여 더욱 더 부인께서 저 옛날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뜬 것임을 볼 수 있다. …

라고 한 구절이 있고, 또 거기 이어서 온유재(溫裕齋) 윤종섭(尹鍾燮)이란 이도 시를 지어 예찬했으되,

선생의 받은 태교 / 어머니님 마음 하나
당호조차 훌륭하사 / ‘지임’을 배우나니

라 하였으니, 그것은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 본래 ‘지(摯)’나라 임금의 둘째 딸이었기 때문에 ‘지임(摯任)’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태임이 일찍 문왕을 배었을 적에 눈으로 좋지 못한 것을 보지 않고 귀로 음탕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입으로 못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사임당도 율곡 선생을 배었을 때에 그같은 태교(胎敎)로써 몸을 조심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참고해 보면 분명히 그의 호는 ‘태임을 본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다. 그리고 사임당은 그 덕을 자녀 교육에만 베푼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하인들에게까지 입혔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상하 없이 모두 다 부인에게 진심으로 경복했던 것이다.

6. 예술가로서의 사임당

사임당은 과연 온갖 방면에 있어서 원만한 부인이었다. 그야말로 효녀로서, 현숙한 아내로서, 어진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학문과 시, 문장에 있어서도 능했었고, 그보다도 오히려 글씨와 그림에 더욱더 우월한 솜씨를 나타낸 훌륭한 예술가로서의 사임당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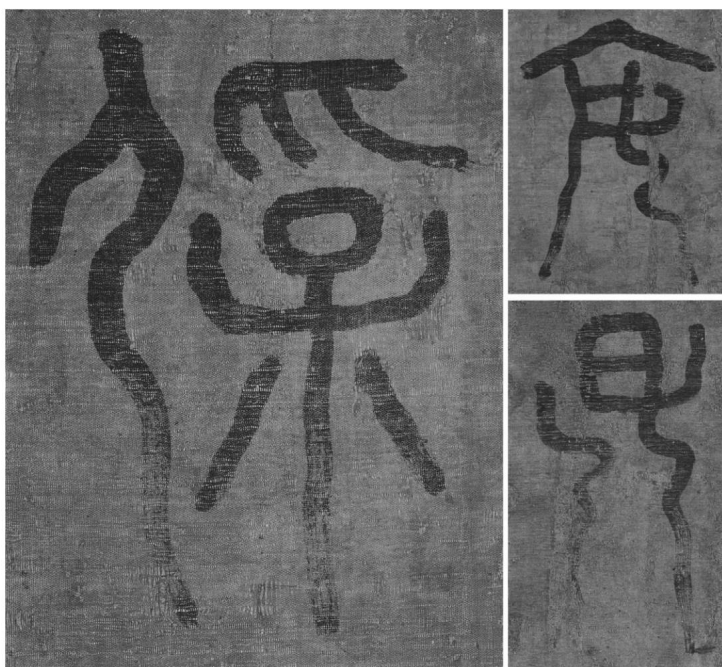
정당한 체법의 글씨

우선 글씨만 하더라도 부인의 손에서 떨어진 필적이 응당 적지 않았지만 지금 전하는 것으로 초서(草書) 여섯 폭과 해서(楷書) 한 폭이 있을 뿐임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같이 남아 끼친 몇 조각 글씨에서만도 그의 고상한 정신과 기백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그야말로 ‘말발굽 누에머리[馬蹄蠶豆]’라는 한문 글씨의 정당한 체법에 의한

6 한 일(一)자의 처음과 끝의 모양을 뜻하는 말로, 마제는 한 일자 첫부분의 모양이 말발굽처럼 생긴 것, 잠두는 끝부분 모양이 누에 머리처럼 생긴 것을 말한다.[편집부]

본격적인 글씨임에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초서 6폭은 강릉시 두산리(斗山里) 최돈길(崔墩吉)씨 댁에 보관되어 내려온 것인데, 그것은 본래 사임당의 넷째 누이동생의 아들 권처균(權處均)에게 전하고 뒤에 다시 그의 딸[사임당의 이종손네이] 최대해(崔大海)에게 출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최씨 집 가보가 된 것이다. 그 글씨의 원본은 병풍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오죽헌에 진열되어 있고, 또 혹시 그 글씨의 원본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음에 대비하는 뜻으로 일찍 1868년에 강릉부사로 갔던 윤종의(尹宗儀)가 그 글씨를 판각에 새겨 오죽헌에 보관하고 있다.



신사임당 전서篆書

江南雨初歇山晴雲
散濕未可盡晴梳
東風風正一

何人乘野艇帶月
過江村正落潮水
未隨夜到

此二詩皆多門
風京連橫嶺水城
未對世重

海客歸 離堂酒
初分酒家分大河
未分酒初者

東井道客夜月出
橫嶺 何人乘野艇
何人乘野艇

擊鼓江楓晴雨潮
擊鼓江楓晴雨潮
擊鼓江楓晴雨潮

신사임당 초서草書 병풍

남아 전하는 절묘한 작품들

사임당의 그림은 일찍부터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왔다. 율곡이 일찍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웠다고 전하는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裨官雜記)」에 사임당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공부했는데, 그녀의 포도와 산수는 절묘하여 평하는 이들이 세종 때 안견(安堅)의 다음 간다고들 한다. 어찌 부녀자의 그림이라 해서 경홀(輕忽)히 여길 것이며, 또 그림 그리는 것이 어찌 부녀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나무랄 수 있는 것이냐!



신사임당 「노화수금도 蘆花水禽圖」

7 '경홀하다'의 어근으로, 말이나 행동이 가볍고 탐탁하지 않다는 뜻으로 쓰인다. [편집부]

과연 옛날 여성으로서 덕행을 쌓는 것 위에 이같이 예술에까지 힘을 기울여 능숙한 일가를 이루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사임당이 어려서부터 안견의 그림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사숙(私淑)⁸하기에 많은 애를 썼다고 하지만 예술이란 실상 배우고 수련 해서 일가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천부를 타고나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대로였던 것이다.

부인의 그림을 종류별로 나누어 본다면 풀벌레·포도·화조(花鳥)·어죽(魚竹)·매화·난초·산수 등 일곱 가지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현재 실물로 남아 있는 것은 채색그림과 묵화를 아울러 40여 폭 정도인 바, 이 방면에 있어서는 모두 다 큰 보배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들에 붙어있는 옛 사람들의 발문은 숙종(肅宗)을 비롯해서 소세양(蘇世讓), 송시열(宋時烈), 홍양호(洪良浩), 권상하(權尙夏) 등 수십 명의 시인·학자들이 쓴 것으로서 모두 다 절찬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음을 본다.

부인의 그림은 한결같이 섬세한 필치로 된 작품들이다. 그래서 4백년이나 지난 오늘에 와서도 비록 희미해진 그림 폭일망정 보는 이들을 감탄케 하는 훌륭한 작품들임은 물론이다.

8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는 것을 말한다. [편집부]



신사임당 「초충도草蟲圖 병풍」



7. 사임당의 일화

세상에는 위대한 인물일수록 그에게 관계된 일화가 많이 전한다. 물론 그 일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로 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과는 반드시 같지 아니한, 미화된 혹은 과장된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지 이야기의 주인공을 간접적으로 알려 주는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기 사임당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한다. 거기에는 문헌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혹은 문헌에는 적혀 있지 않고 다만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오기만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차례차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약속한 10년 공부

사임당은 19세에 이원수공에게 출가했다. 일찍 아버지 신진사의 교육을 받은 사임당이라 이미 처녀 때에 학문과 예술이 상당한 위치에까지 갔던 만큼 남편 되는 이공은 모든 점에 있어서 부인만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임당은 마음 속에 불만스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번 결혼한 이상 그는 남편을 받드는 것으로써 자기 임무를 삼기에 충실했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채우기 위해 그는 남편에게 학문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보다 3년이 위인 남편 이원수공은 비록 자기 아내요, 또 나이도 3년이 아래지만 학문과 재예와 인격이 자기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언제나 그 부인의 말에 경복했었다. 부인은 어느 날, 이공과 마주앉아 서로 각각 나누어서 10년 동안 학업을 닦은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맺었던 것이다. 그것은 남편을 큰 인물 되게 하려는 사임당의 간절한 요구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었다. 이공은 마침내 사랑하는 부인을 처가에 남겨두고 서울을 향해서 길을 떠난 첫날이었다. “부디 가서 아무 생각 말고 10년 동안에 크게 성공해 오시오.”하는 한 마디 서릿발같은 권고의 말을 들은 채 길을 떠난 이공은 처가인 오죽헌에서 20리 되는 성산(城山)이라는 곳까지 왔다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서 되돌아가 부인으로 하여금 놀라게 했었다.

다시 둘째 날이었다. 이공은 대관령 밑 ‘가마골’이라는 곳까지 겨우 30리를 왔다가 되돌아갔다. “대장부가 뜻을 한 번 세우고 10년을 작정하고서 학업을 닦으러 길을 떠난 것인데, 이같이 사흘을 잇달아 되돌아오고 되돌아온다면 당신이 장차 무슨 인물 노릇을 하겠소.”하고 사임당은 간장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이공은 그 말에 대답하되, “학업도 학업이지만 나는 도저히 당신을 떠나서 10년이란 긴 세월을 따로 있을 수는 없소. 한 시각도 떨어질 수가 없는 데야 어찌하겠소.”하는 것이었다. 사임당은 남편의 나약한 성격과, 학문에 큰 취미를 못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까하고 생각한 끝에 마침내는 위협적인 전술

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느질 그릇에서 가위를 끄집어내어 이공 앞에 놓고 심각한 말소리로, “만일 당신이 이같이 나약하고 무능력한 남자로 그친다면 나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몸이라 어찌 오래 더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가위로써 머리를 자르고 여승이 되어 산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불칙한 태도이지만 자결이라도 해서 내 일생을 마치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공의 눈은 번쩍 떠졌다.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서는 다시 한 번 결심하고 부인과 작별하여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에 열심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겨우 3년이 지나서는 더 견딜 수 없어 도로 부인을 찾아 강릉으로 내려갔었다고 전한다.⁹

나도 밤나무

율곡의 부모 이원수공과 신사임당이 결혼한 뒤에 서로 10년을 약속하고 각각 나뉘어 있어 부인은 이공으로 하여금 학문을 연구하도록 했다. 그랬으나 서울에서 공부하던 이공은 10년을 채우기는 커녕 겨우 5년도 멀다 하고 강릉의 부인 사임당이 그리워서 견딜 길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문 연구에 큰 업적을 거두지 못하고 강릉으로 오르내리는 것으로써 거의 일을 삼다시피 했다. 그러는 동안에 모두 7남매 중에서 위로 아들 둘, 딸 둘을 낳은 뒤 셋째 아들 율곡을 낳기 직전의 일이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공은 부인이 불현듯이 보고 싶었다. 그 때 부인은 강원도 평창(平昌) 봉평면(蓬坪面) 백옥포리(白玉浦里)라는 곳,

9 강릉 지방의 전설로 이장희씨가 제공한 이야기이다.



판관대비判官堡碑

지금 속칭으로 ‘판관대(判官堡)’라고 부르는 곳에 살던 때였다. 길이 평창읍을 지나서 평창강을 끼고 오르다가 월두(月頭)라는 데서 길을 오른쪽으로 꺾어 대화리(大和里)라는 두메 산촌에까지 이르러 봉평 본가를 20리쯤 남겨 놓고 날이 어두워졌다.

이공은 할 수 없이 산 밑 주막을 찾아 들어가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밤이 이슬해진 뒤에 주막집 주인 색시가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조그마한 술상을 바쳐들고 이공이 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이공에게 한 잔, 또 한 잔 술을 권하며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 달라는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공은 눈앞에 부인 사임당의 얼굴이 마치 감시나 하는 듯이 너

무도 점잖은 모습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저도 몰래 몸을 엄숙히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주막집 주인 색시는 그야말로 맑은 산, 맑은 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얼굴에 티 하나 없이, 마치 불뎀 음식 안 먹는 무슨 선녀와도 같은 여인인데다가 수줍은 빛을 띠고 이공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순간이라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랐다. 그러나 이공은 이때 따라 점점 더 근엄해지며 부드러운 말로 여인의 요구를 곱게 물리치고 말았다. 주인 색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구하다가 거절을 당해도 창피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여자인 경우에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을 밝힌 채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 이공은 대화리 주막을 떠나 봉평 본가에 이르러 그림던 부인과 반가이 만났다.

몇 날이 지나 이공은 다시 부인과 작별하고 도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다. 역시 길은 대화리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공은 부인을 떠나오면서부터 마음 속에는 슬그머니 대화리 주막집 색시를 생각게 되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소청을 들어 주지 않았던 것은 내가 부인을 사모하는 생각이 간절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야 하지만 사실은 사내답지 못한 일인 듯하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청하기라도 해서 그 면목을 세워 주리라’하고 생각하는 사이 이공은 대화리에 이르러 그 주막집을 찾았다. 주인 색시도 반가이 나와 마중해 주는 것이었다. 밤이 되자 이공은 주인 색시를 불러 자리를 같이 하고 은근히 정을 주면서 지난 번에 청을 들어 주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고 오늘밤엔 서로 같이 지내자는 뜻을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리어 색시 쪽에서 듣지 아니한다. “영감께서 이같이 저를 사랑스레 보아 주시는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만 이제는 제

마음이 끌리지를 아니합니다. 지난 번에는 제가 다만 정욕을 못 이겨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때 영감님 얼굴이 유달리 빛이 났는데, 그건 분명히 천하에 이름 떨칠 귀한 아드님을 낳을 관상이라 그래서 제가 그 아드님을 받을 생각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제는 영감님의 얼굴에 그 밝은 서기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번에 댁에 가서서 부인과 동침하신 뒤로 그 귀한 아드님은 부인의 뱃속에 들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하고, 다시 말을 잇는다. “그런데, 아기는 불행하게도 인(寅)시에 낄 것이라 다섯 살을 넘지 못하고 범의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걱정이군요.” 이공은 이 말을 듣고 이 색시가 다만 주막집에서 술이나 파는 심상한 여자가 아니라 특별한 까닭이 있는 여자인 것을 알고, 우선 앞으로 낳을 아기가 큰 인물이 될 것이란 말과 또 그 아기가 다섯 살이 못되어서 범의 환난을 만나겠다는 말에 자기도 몰래 몸을 가다듬어 경의를 표하고 그 아기의 호환(虎患)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그 색시는 이와 같이 말했다.

영감께서 저를 안아 주시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몹시 원망스럽지만 그 귀하신 아기를 위해서 부득이 말씀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속담에 ‘적덕한 집안 자손은 돌담 밑에도 안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덕만 쌓으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나 초목이나 생명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천명을 살리는 셈치고 밤나무 천 그루를 심었다가 아기 나이 다섯 살 되는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금강산에 있다는 어떤 늙은 중이 하나 와서 아기를 데리고 가겠다 하거든 그 아기를 절대로 보이지 말고, 나도 적덕한 사람이니 아기를 함부로 데리고 갈 수



노추산 이성대

는 없다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적덕한 걸 보자거든 밤나무 천 그루를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호환을 면할 것입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그 해 12월 26일(음력) 인(寅)시에 과연 신씨 부인이 한 아기를 낳으니 그가 바로 율곡이었다. 이 일을 본 아버지 이공은 더욱 그 신기한 대화춘 색시의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공은 강릉에서 남쪽으로 한 백 리쯤 되는 노추산(魯鄒山)에다 밤나무 천 그루를 심었다.

이 노추산은 사달산(士達山)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강릉시 왕산면 구절리에 있는 큰 산으로 율곡이 뒷날 거기서 공부한 곳이요, 또 옛날 신

라 때 설충(薛聰) 선생도 거기서 공부한 곳이라고 해서 그 산 아래 ‘이성대(二聖臺)’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설충과 율곡의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다례(茶禮)를 드린다고 하는 곳이다.

그렇게 밤나무를 심을 뒤에 이공은 율곡이 다섯 살 나던 해를 기다려서 그 색시가 말해주던 그 달 그 날 율곡을 방안에다 깊이 감추어 두고 금강산에서 오는 중을 기다렸다. 과연 그 날, 해가 저물 무렵 어떤 늙은 중이 와서 시주를 빌면서 아기를 보겠다고 청하는 것이다. 이공은 그 색시의 말이 낱낱이 맞으므로 가슴이 두근거리기는 했으나 역시 천연한 태도로, “나도 적덕한 사람이니 아기를 데리고 가지는 못할 것이요.”라고 하면서 밤나무 천 그루 심은 이야기를 하고, 그 중을 데리고 노추산 언덕 위로 올라가 밤나무 숲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공과 중은 밤나무 천 그루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 백, 이백, ... 그러나 999까지 세고는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 마지막 한 나무는 썩어서 없어진 것이다. 이공은 손에 땀을 쥐었다. 그 대신 금강산 중은 기운이 나는 듯이 천 그루가 차지 못했으니 기어이 그 아기를 데리고 가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뒤에서, “나도 밤나무!”하는 소리가 들려와 이공과 중은 한꺼번에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것은 밤나무와 비슷하기는 하나 밤나무는 아닌데, 발 가에서 있다가 그런 소리를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 부득이 밤나무 천 그루를 인정해 주고, 그 자리에서 큰 호랑이로 변하여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¹⁰

10 강릉 지방의 전설로 이장희씨가 제공한 이야기이다.

살아 있는 실물 같은 그림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 숙종(肅宗) 때 송상기(宋相琦)라는 이가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 전한 것이 있다.

내게 일가 한 분이 있어 일찍 말하길, “집에 율곡 선생 어머니가 그린 풀벌레 그림 한 폭이 있는데, 여름철이 되어 마당 가운데로 내어다가 벌을 쫓자니 닭이 와서 그것을 쫓아 종이가 찢어졌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상히 여기면서도 정작 그림을 보지는 못한 것이 한스럽더니, 이제 정종지(鄭宗之)가 가진 이 그림첩을 보니 과연 꽃, 오이, 곤충 등 여러 가지가 정묘한데, 곤충과 나비 따위가 더욱 신묘한 숨쉴새, 그 모양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여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으므로 비로소 전일 내 일가집에 간직한 그것도 이런 것이어서, 내가 들은 말이 빈 말이 아니었던 줄을 알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임당의 그림이 과연 핏진(逼真)¹¹해서 바로 살아 있는 실물과도 같다는 것을 칭찬해서 전하는 이야기인 것이다.¹²

11 실물과 아주 비슷함을 의미한다.[편집부]

12 『옥오재집(玉吾齋集)』에서



유기 쟁반에 그린 그림

사임당이 친정 어머니를 떠나 서울 시댁으로 올라오던 날이었다. 부군 이원수공은 부인의 재예(才藝)가 남다른 것을 여러 손님들에게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부인에게 그림 한 장을 그려내어 보내 달라고 청했으나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공은 손님들에게 말은 해 놓고 민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계집종을 불러 두 번, 세 번 독촉을 했다.

사임당은 남편이 여러 손님들과 같이 앉아서 자기에게 그림을 그려내어 보내라고 독촉하는 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요, 또 남편의 위신을 위해서도 그리기는 해야겠지만 첫 번 실행해 온 색시가 무슨 화가 모양으로 종이를 펴고 먹을 갈고하여 정식으로 그림을 그릴 환경은 못되는 것이 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계집종더러 유기 쟁반을 가져오라고 하여 거기다가 간략한 작은 그림 하나를 쳐서 밖으로 내어보내자 그것을 본 많은 손님들은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이 때의 일을 뒷날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그 뜻인즉 만일 종이 에나 비단에 그린다면 반드시 남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 쟁반에다 그린 것일 것이니, 그것은 과연 점잖은 부인네의 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하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학자적인 해석이요, 다만 그 날의 사정이 종이에 정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지 않았던 것이리라 생각된다.¹³

13 송시열의 신 부인 화첩 발문에서

치마폭에 그린 포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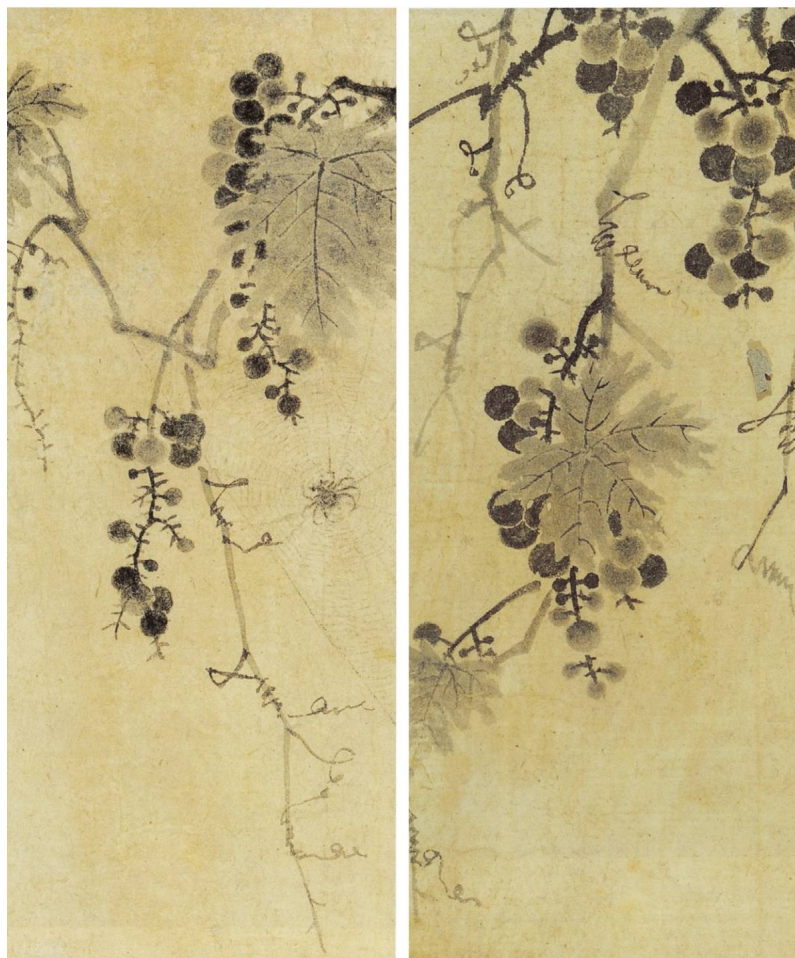
사임당이 일찍 강릉에서 살 때였다. 어느 날 어떤 집에 잔치가 있어 많은 부인네들이 모여서 즐거이 놀고 있었다. 사임당도 그들 속에 같이 들어 있었고, 또 마침 사임당이 친히 잘 아는 어떤 집 젊은 색시도 같이 있었다.

얼마쯤 지난 뒤에 그 젊은 색시가 주방으로 내왕하다가 입고 왔던 다홍 비단치마에 물이 튀어 치마를 더럽혀버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실상은 그 색시가 가난한 집 색시인데, 그 날 그 잔치에 참례(參禮)하느라고 어느 친구의 치마를 빌려 입고 왔던 것이라 더 걱정하는 것이었다. 더럽힌 치마를 그대로 돌려주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새 감을 사서 줄 만한 돈도 없어 그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애만 태우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사임당은 젊은 색시의 애 태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치마를 벗어서 앞에다 펴 놓게 한 다음, 물이 떨어져 더럽혀진 자리에 먹물을 찍어 포도 잎사귀를 그렸다. 그리고는 윤치가 푹푹 흐르는 붓 끝으로 치마폭 전면에 포도를 그려내니, 한창 무르익어 곧 그대로 먹음직한 생물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거기 앉아있던 많은 부인들이 모두 다 혀를 차며 칭송한 것은 물론이요 그 젊은 색시는 금새 얼굴에 웃음이 퍼지고 그 그림치마를 고맙게 받아 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많은 값을 받고 팔았다. 그래서 그 돈으로 다홍 비단 치맛감을 사서 치마 임자에게 새 감으로 돌려주고도 몇 감이 더 남았다는 것이다.¹⁴

14 『강원도지』 상권, 「인물편」



신사임당 「포도도葡萄圖」



이이 李珣 1536~1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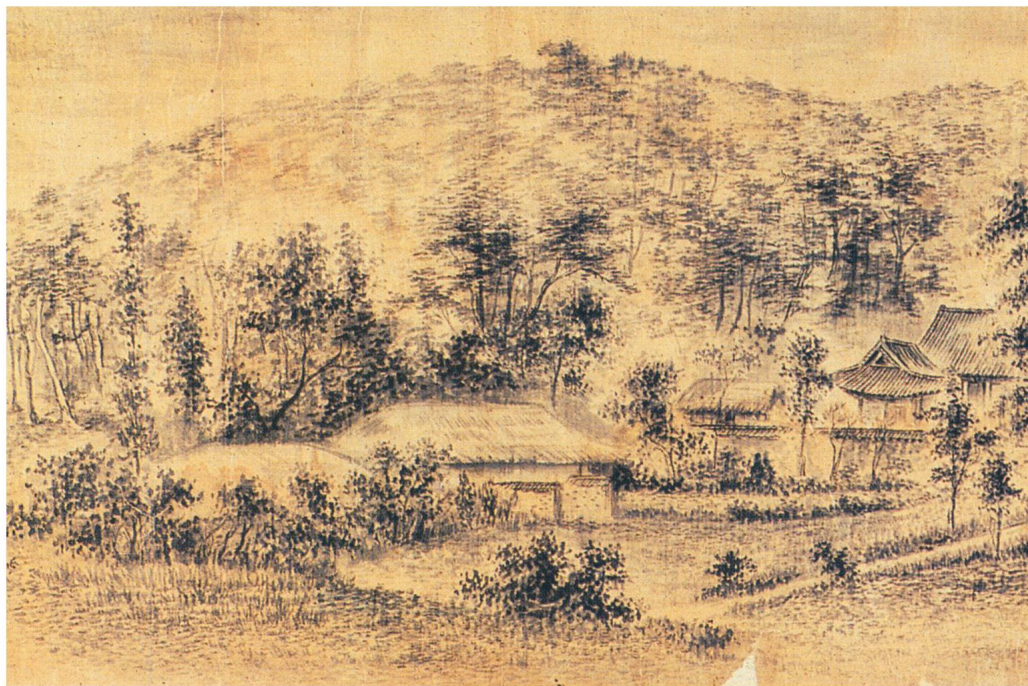
이이

1. 율곡약전

우리나라 명현들을 비교 평론하는 문구로 퇴계(退溪) 선생을 ‘봄물이 사방 못에 가득하다[春水滿四澤]’는 것에 비기고, 율곡(栗谷) 선생을 ‘여름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夏雲多奇峰]’는 것에 비기기도 한다. 과연 그럴 듯한 비교이다.

학문과 도덕이 원만한 퇴계를 ‘못에 가득히 괴인 봄물’에 비긴 것도 적당한 비교이거나와, 남달리 뛰어난 천재, 범인의 생각을 벗어난 학설과 정견으로 일세를 주름잡던 율곡을 ‘기이한 봉우리를 짓는 여름 구름’에 비긴 것도 참 흥미 있는 비교라 할 만 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에, 특히 학문과 철학사상의 전개에 있어서 만일 ‘이 어른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적막할 뻔했으며, 아니 이 어른이 계셨기에 참으로 자랑스럽다’할 만한 그런 인물들 중에서도 또 다시 빛나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할 인물이 바로 율곡 이이 선생인 것이다.



오죽헌그림 烏竹軒圖 1902년, 160×54cm

1536년 강릉 북평 오죽헌에서 나다

우리나라에서 동해안이라고 하면, 관동8경(關東八景)을 생각하게 되고, 관동8경이라고 하면 강릉을 헤아리게 되고, 또 강릉이라고 하면 경포대(鏡浦臺)와 한송정(寒松亭)을 손꼽게 되는데, 그것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또 한 군데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오죽헌(烏竹軒)이다.

이 오죽헌이라는 것은 그 집 뒤쪽에 검은 대[오죽(烏竹)]가 많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얻은 이름인데, 사실 그 이름은 율곡의 넷째 이모의 아들 권처균(權處均)의 호로서 그가 이 집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본래 이 집의 주인은 율곡의 외조모였으나 그가 다섯 딸들 중에서 넷째 딸의 아들인 권처균에게 이 집을 물려 주었기 때문에 권처균의 집이 되었고, 그래서 대대로 권씨 소유가 되어 오기는 했지만 이 집에서 사임당이 났고, 또 사임당의 아들 율곡이 났기 때문에 ‘오죽헌’이라는 이름이 권처균의 호인 것은 잊어버리고 누구나 모두 율곡 선생이 나신 집으로만 알게 된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율곡 선생이 탄생한 집이기 때문에 오죽헌이 유명해졌고, 또 오죽헌의 영광은 오직 율곡 선생이 이 집에서 났다는 그 때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덕수(德水) 이씨(李氏) 문중에서 태어났는데, 고려 중랑장(中

郎將) 돈수(敦守)로부터 헤아려 13대손이다. 아버지는 원수(元秀)이고 어머니는 그 유명한 사임당(師任堂)인데, 중종(中宗) 31년(1536) 12월 26일 [음력]에 일곱 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탄생하니, 이름은 이(珙)이고 지는 숙헌(叔獻)이며, 율곡은 그의 호였다.

그는 나면서부터 큰 천재여서 세 살, 네 살에 이미 글을 알았고, 여섯 살에 강릉을 떠나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오니, 강릉은 실로 어머니의 고향이었고, 서울은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일곱 살 때에 「진복창전(陳復昌傳)」이라는 글을 지어 사람을 놀라게 했고, 여덟 살 때에 지은 「화석정시(花石亭詩)」는 이미 능숙한 대가의 경지를 어루만지는 시였다. 열 살 때에 「경포대부(鏡浦臺賦)」를 지었고, 또 열세 살 때에 진사(進士) 초시(初試)에 장원으로 합격되어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들었던 것이니, 그 어머니 사임당의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16세에 어머니를 여윈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타격을 받았던 것이어서 눈물 속에서 3년을 지냈고, 또 그 동안에 인생문제에 깊은 회의와 고민을 거듭했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친 뒤 19세에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의 경전을 뒤져 그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 보려고까지 하다가 이듬해에 도로 속세로 돌아왔던 것이다.

과거 시험에서 아홉 번 장원하다

금강산에서 나온 그는 일단 강릉으로 돌아와 오죽헌 옛집에 거하며 「자경문(自警文)」을 써서 자기의 좌우명을 삼고 성인의 학문을 닦는 것으로써 목적을 세웠던 것이다.

강릉 외가에서 칩거하여 1년 동안 학문에 정진한 다음, 이듬해 21세 때 서울로 올라와서는 한성시(漢城試)에 수석으로 당선된 일도 있었고, 그 다음해 22세 되던 해 9월에는 성부목사(星州牧使)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결혼했다.

23세 되던 해 봄에 그는 처가가 있던 성주로부터 강릉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안동 예안(禮安)으로 퇴계(退溪) 선생을 방문하니, 퇴계는 율곡보다 35년의 대선배로서 58세 되던 때였다. 퇴계에게서 이틀을 묵는 동안 당대의 대원로였던 퇴계로서도 청년 율곡의 학문과 행동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어 ‘후배가 두렵다’는 옛 말이 빈 말이 아니라는 탄식을 발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길로 서울에 와서 겨울에 열린 별시(別試) 과거에서 「천도책(天道策)」이라는 글로 수석으로 당선되었는데, 그 글은 그 당시 시험관이었던 정사룡(鄭士龍), 양응정(楊應鼎)같은 대가들로 하여금 경탄을 거듭하게 했던 것이다.

26세 되던 해 5월에 아버지마저 별세하여 3년상의 범절을 깨끗이 마친 다음 29세 되던 해 7월과 8월 중에 여러 번 과거시험을 치루어 모두 수석으로 합격이 되었는데, 전후 합해서 아홉 번이나 장원(壯元)을 했기 때문에 율곡이 길에 나서면 시중의 아이들이 율곡이 탄 말을 둘러싸고 ‘아홉 번 장원한 양반(九度壯元公(구도장원공))’이라고 부르며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율곡은 29세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의 첫 벼슬은 호조좌랑(戶曹佐郎)이었고, 다음해 30세 되던 해 봄에는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옮겼으며, 그 해 11월에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이 되고, 31세 겨울에 이조좌랑(吏曹佐郎)이 되었다.

바른 말로 상소하고 임금의 총애를 받다

그는 이같이 해서 벼슬길로 나와 정치사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는 커다란 이상(理想)을 실현해 보려는 목적 밑에서 움직였던 것이다. 그래서 31세 되던 해에도 동료들과 함께 시국의 급선무라 할 만한 세 가지를 임금께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을 바로하여 정치의 근본을 세울 것.

둘째, 귀천을 가리지 말고 어진 이를 기용하여 조정을 맡길 것.

셋째, 백성들을 편안케 해서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할 것.

33세 되던 해 봄에는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이 되었고, 4월에는 장인 노공이 별세했으며 명(明)나라로 가는 우리나라 사신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 서울을 다녀와서 겨울에 도로 이조좌랑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강릉 외조모님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즉시 사직원을 내고 강릉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은 외조모님을 보살피드릴 만한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시강원(侍講院)에서는 우리나라 법전 제도에 외조모님 뵈러 가기 위해서 벼슬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파면함이 옳다고 임금께 아뢰기까지 했다. 그러나 위에서는 “비록 외조모라도 정이 간절하면 어찌 안 가 볼 수가 있겠는가. 효행한 일을 가지고 파직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하고 듣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음해 34세 되던 해 6월에 다시 교리(校理)에 임명되었으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은 이조(吏曹)에 명령하여 “외조모님 뵈

러 가는 것이 비록 법전에는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이 사람만은 벼슬대로 두고 외조모님께 왕래하도록 하라.”고 분부했던 것이니, 얼마나 그를 총애했던가를 짐작할 만하다.

그리고 그 해에 임금에게 써 올린 「동호문답(東湖問答)」은 전부 11조 목으로 된 글인데, 모두가 정치의 기본 원론과 현실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말한 것이었다.

35세 8월에 만형이 별세한 뒤에는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어려워 10월에 병을 구실로 하고 교리를 사직하고 해주(海州) 들마을(野頭村) 처가로 내려가 휴양했는데, 경향각처에서 청년학도들이 그를 찾아 해주에까지 몰려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퇴계 선생의 부음을 듣고, 그는 영위를 베풀고 곡하며 흰 띠를 매고 방 바깥에서 기거하며 애도의 시를 짓기까지 했었다.

지방관이 되어 지방행정을 쇄신하다

36세 되던 해에 해주에서 과주 율곡리로 돌아왔다가 이조정랑(吏曹正郞)에 임명되고 또 의정부검상사인(議政府檢詳舍人), 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 등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모두 다 사퇴하고 해주로 돌아갔었다. 그때 해주 야두촌 처가에 가 있으면서, 어느 날 학자들과 함께 북으로 계곡을 따라 올라가 이른바 고산(高山)의 석담구곡(石潭九曲)을 찾아 종일토록 놀았는데, 특히 넷째 굽이의 이름을 송애(松崖)라 하고 기문을 짓는 한편 거기에 집을 짓고 살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천해 볼 겨를도 없이 그 해 6월에 청주목사(淸州牧使)가 되어 가서 그 곳 백성들을 교화함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손수 「향약(鄕約)」을 만들어 자치의 능력을 길렀던 것은 우리나라 행정사상 기억할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청주에 가서 이같은 획기적 업적을 남겨 놓고 그곳을 떠난 것은 부임한 지 9개월 뒤인 37세 되던 해 3월이었다. 그 해 9월에는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에 임명되고 12월에는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를 겸하고, 38세 때에는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을 겸하게 했으나 번번이 상소하여 물러남을 허락받았던 것이다. 이때 어떤 이가, “물러가려고 청해서 물러감을 얻었으니 무척 유쾌할 것이요만 저마다 모두 물러날 뜻을 가지면 누가 나라를 붙들 것이오.”하였을 때 율곡은 웃으며 대답하길, “만일 위로 대신으로부터 아래로 낮은 벼슬아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물러날 뜻을 가지기만 한다면 나라의 정세는 저절로 큰 길을 가게 될 것이니, 나라를 유지 못할까 하는 것을 걱정할 것은 없을 것이오.”라 하였으니 이것으로써도 그의 맑은 뜻을 짐작하겠다.

그 해에 곧 사간원의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고 10월에는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어 지방으로 나가 그곳 백성들을 교화하고 또 지방행정을 획기적으로 쇄신했었다.

이듬해 40세 되던 해 3월에 황해도관찰사를 사직하고 율곡리로 돌아오니 이는 5개월 만이었는데, 그 해 가을에 『성학집요(聖學輯要)』를 편찬해 올리니 그것은 옛 성현의 말 가운데서 학문과 정치에 필요한 구절들을 뽑아 편찬한 것이라 위정자(爲政者)에게 참고될 좋은 서적이었던 것이다.

온 가족이 석담에서 모여 살다

41세 10월에 다시 해주로 내려가 석담에 청계당(廳溪堂)을 짓고 42세 되는 해 정월에 형제의 가족 전부를 오게 하여 모두 함께 지내며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이 살며 서로 경계하는 글[同居戒辭]」을 지어 그대로 실천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특히 그곳에 기거하는 동안 저 유명한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지은 것은 기억할 만한 일이다.



「동거계사[同居戒辭]」 『율곡전서[栗谷全書]』 권16, 「잡저[雜著]」

또 이듬해 43세 때에도 계속하여 거기서 머물며 청계당 동쪽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유명한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라는 시조 9수를 지었으며, 다시 은병정사 뒤에 주자사(朱子祠)를 짓고 자기가 숭배하는 정암(靜菴)과 퇴계(退溪) 두 분을 배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몸소 실천하지는 못했으나, 뒷날 그가 별세한 2년 뒤에 제자들의 손으로 사당도 짓고 그의 유지대로 위패도 그렇게 모셨던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43세 3월에 대사간으로 임명되어 불러 올라갔다가 사퇴하고, 또 5월에 다시 대사간으로 임명되었으나 역시 사퇴함과 동시에 「만언소(萬言疏)」를 또 올려, “상감께서 신을 쓸만한지 않은지를 아시려면 마

땅히 시국에 관한 일을 물어 주실 것이요, 쓸만한 인물이 못된다 싶으면 다시는 불러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뒤에 계속해서 6월에도 대사간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임명되어도 역시 취임하지 않았고, 또 이듬해 44세 때에는 5월에 대사간에 임명된 것을 사퇴했다가 다음해 45세 되던 해 겨울에 또 대사간에 임명되자 더 사퇴할 길이 없어 취임했던 것이다.

이같이 대사간의 직함을 몇 번이나 연거푸 받은 것을 보면 임금이 그를 얼마나 신임하고 귀중히 여겼던가를 알 수 있다. 46세 때에는 백성 전체를 통해서 세금과 군적의 책임을 균등하게 질 것 등 정치의 요령을 들어 임금께 상소하는 동시에 지방의 고을들을 병합하여 행정을 간소화하고 감사들을 오래 유임시킬 것 등을 청하기도 하였다.

높은 덕과 밝은 지혜를 갖추다

46세 되는 해 6월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특별 승진되었고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겸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관계와 민간의 풍기가 크게 변해졌다는 것이다. 10월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임명되었고, 11월에는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경연춘추관성균관사(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를 겸하였다.

그러다 이듬해 47세 되던 해 정월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에 배명(拜

命)¹⁵되었고, 그 해 여름에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김시습전(金時習傳)」, 「학교모범 및 사목(學校模範及事目)」 등을 지어 올리니 그것은 모두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한 것이었다. 8월에 형조판서(刑曹判書), 9월에는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다시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에 임명되었는데, 세 번이나 사퇴했지만 끝내 허락되지 않아 또 다시 「만언소」를 올려 시국의 폐단되는 점들을 극간(極諫)¹⁶했던 것이다. 10월에 명나라로부터 오는 사신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 황홍헌(黃洪憲)과 공과급사중(工科及事中) 왕경민(王敬民) 등을 맞이하는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거둬 경탄케 했으며, 12월에는 다시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었다.

48세 때에는 북쪽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노한다는 보고를 접수하고 낮에 못다 결재한 사무들은 밤에도 촛불을 켜고 처리해 나갔으며, 그 처리하는 솜씨가 너무도 조밀하고 신속하여 모든 늙은 관리들까지도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 해 6월에는 또 다시 시급한 정책 여섯 가지를 적어 임금께 진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능력있고 어진 이에게 맡길 것.
- ② 군민(軍民)을 기를 것.
- ③ 재정(財政)을 풍족히 할 것.
- ④ 국방(國防)을 튼튼히 할 것.
- ⑤ 전마(戰馬)를 준비할 것.
- ⑥ 교화(敎化)를 선명히 할 것.

16 임금이나 웃어른에게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고치도록 온 힘을 다하여 말함(편집부)

그리고 이어 4월에는 특히 서자(庶子)에게도 정당한 사회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자는 것과 공사노비(公私奴婢)들에게도 유능한 자에게는 속량(贖良)¹⁷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들을 재청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십만양병설(十萬養兵說)」도 바로 이때의 일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율곡은 어느날 임금 앞에서,

지금 나라의 기세가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반드시 나라가 무너지는 큰 화를 만나기가 쉬울 것이오니 10만 명의 병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도성(都城)에는 2만명을 두고, 각도(各道)에는 1만 명씩을 두어 훈련시키자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 때 유성룡(柳成龍)이 그것을 반대하여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국가를 위하여 어떻게나 탄식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그는 뒷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유성룡은 전쟁의 쓴 맛을 겪은 뒤 스스로 탄식하며 율곡의 선견지명이 있는 것을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17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편집부]



1592년 임진왜란

49세에 서울 대사동에서 별세하다

48세 되던 해 6월이었다. 삼사(三司, 홍문관·사헌부·사간원)에서 일 제히 모함하여 그는 부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

첫째는, 그가 서울에서 활 잘 쏘는 사람들을 뽑아 북방 전쟁터로 보낼 때에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바치는 노약(老弱)에게 병력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었다. 말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을 위의 명령 재가가 없이 함부로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가 임금의 부름을 입어 입궐할 때에 너무 과로한 나머지 현기증이 심해서 미처 정원(政院)¹⁸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겨우 병조로 들어가 누워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율곡이 권력을 잡아 교만해진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물러나고 말았는데 그가 물러나자마자 경향각처에서 물의가 분분해지고 시내의 아동주졸(兒童走卒)¹⁹까지도 모두 탄식하기를 그치지 못했다.

성혼(成渾)이 삼사의 잘못을 들어 상소하였고 태학생, 호남 유생, 해서²⁰ 유생들이 거의 물끓듯이 반응이 심했던 것임을 본다. 그래서 9월에는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또 이어 이조판서에 임명되어 다시 취임할 수 밖에 없었다.

18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였던 승정원을 말함[편집부]

19 철없는 아이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율곡의 하야를 안타까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편집부]

20 황해도를 이룸[편집부]

그러나 하늘이 그를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물러 두지 않음을 어찌하랴. 이듬해 1584년 49세 되던 해 정월 16일[음력]에 서울 대사동(大寺洞) 우거(寓居)²¹에서 세상을 마친 것이다.

그는 이미 10여일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이때 북방으로 순무(巡撫)하게 된 서익(徐益)에게, 가서 마땅히 해야 할 바 방략(方略)을 일러 주려고 억지로 일어나 앉아 열심히 설명한 것 때문에 갑자기 병이 더해진 때문이다.

문명하러 온 정철(鄭澈)에게, “사람 쓰는 데에 결코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고 부탁한 이튿날 새벽 목욕하고 손발톱을 깎은 다음 붙들어 일으켜 자리에 비껴 눕게하고 의관을 바로 하고, 머리를 동쪽으로 한 뒤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하여 곡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으며, 사흘 동안 조회를 보지 않았고, 또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하게 하되 그 제문에는, “정성을 다 바쳤으니 그대 무엇 슬프리오. 물 가운데서 노를 잃으니 나아말로 애통하도다[盡瘁乃已 卿則何悲 中流失楫 予甚痛之.]”라 하였다.

그리고 경향각처의 선비들은 모두 다 친척상을 당한 듯이 슬피 울지 않는 이가 없었고, 또 아래로 군민들과 시골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눈물을 짓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태학생들과 삼의(三醫, 내의원(內醫院) · 전의감(典醫監) · 혜민서(惠民署)) 생도들과 각 관청 관리들도 모

21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부처 사는 집. 또는 자신의 주거(住居)를 낮추어 이르는 말[편집부]

두 와서 조상하고 가는 것이었고, 혹은 산골에 모여서 슬피 울기도 했다.

그리고 발인하는 날에는 장송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매워지도록 모여 들어 곡성이 천지를 진동하였고, 금군(禁軍)과 시민들이 모두 와서 횃불을 들었는데, 불빛이 도성 바깥 수십 리에까지 비쳤었다.

그 뒤 3월 20일에 파주 자운산(紫雲山) 부모님들의 무덤 계신 곳에 같이 장례지냈고, 인조(仁祖) 때에 이르러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를 중직하고, 이어 문성공(文成公)이라 시호(諡號)²²를 내렸고, 숙종(肅宗) 때에 문묘(文廟) 동쪽 채 이황(李滉) 다음에 종사함을 얻었다.

22 제왕이나 재상,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편집부]



자운서원 紫雲書院

1615년(광해군 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곳

2. 소년 율곡의 총명과 재여

동서양 역사상에 이름이 드높았던 이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 천부의 총명과 지혜와 재능을 타고 난 이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 관한 일화가 남다른 것이 많거니와 특히 어려서부터 출중했던 이야기가 많이 전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율곡 선생은 이미 3세 때부터 글을 읽었고 옛 시를 알았는데, 그래서 13세에 진사 초시에까지 합격했던 그야말로 천재 소년이었던 것을 본다.

어려서의 이야기가 너무도 훌륭하면 혹시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혹은 그를 숭배하는 뒷사람들이 과장해서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이 역사상에 진중한 지위를 가진 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요즘에 있어서도 3세 아동이 수학의 미분 적분이며 여러 나라 외국어를 해독하는 것들을 보는 만큼, 예나 지금이나 천재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로 출중한 것임은 사실인 것이다.

이제 문헌을 통해서 율곡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3세 때] 석류 문답²³

선생은 3세 때부터 글을 읽을 줄을 알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옛 시를 읊는 것을 늘 주의하여 들었던 모양이다. 어느날 어떤 이가 석류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는 것이었다. 선생은 그 석류를 받아 외조모님 이씨 부인에게 가져다 바쳤었는데, 그 때 외조모님은 율곡에게, “이게 무엇과 같으냐?”하고 물으니 율곡은 평소에 들어두었던 옛 시의 구절을 할머니께 대답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은행각함단벽옥

銀杏殼含團碧玉 은행은 껍질 속에 덩어리 푸른 구슬을 머금었고

석류피리쇄홍주

石榴皮裏碎紅珠 석류는 껍질 속에 부스러기 붉은 구슬을 싣다.

[4세 때] 문장 구절 떼는 힘²⁴

선생이 4세 때에 한문을 배우는데 『사략(史略)』 첫째 권에 있는 글 중에서 ‘齊威王初不治諸侯皆來伏’을 읽는데, 스승이 구절을 떼기를, “제나라 위왕이 처음에 제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모두 와서 쳤다.”고 했다. 선생은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따라 읽지 않았다.

23 율곡 연보

24 율곡 연보

“선생님, 구절을 그렇게 떼어 읽을 것이 아니라 ‘제나라 위왕이 처음에 잘 처리하지 못하므로 제후들이 모두 와서 쳤다’하고 새겨야 할 것 아닙니까?”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5세 때] 어머님 위한 기도²⁵

선생이 5세 때의 이야기이다. 어느날 어머니 사임당이 몹시 아파 온 집안이 모두 황급하게 서두르고 있을 때다. 그러는 중에 다시 보니 다섯 살 난 어린 율곡이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래서 모두들 더 야단이 났다. 그 때 어린 율곡은 집안 사람들 몰래 강릉 집 뒤곶에 있는 외조부님 사당 앞에 엎드려 어머니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집안 사람들이 어린 율곡을 겨우 달래어 안고 돌아왔다고 한다.

[5세 때] 큰물이 지던 날²⁶

어느날 큰 비가 내려서 앞 시내에 홍수가 졌다. 그때 마침 어떤 이가 내를 건너다가 넘어져서 위태롭게 되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러나 율곡은 웃기는 커녕 도리어 기둥을 안고 서서 애를 태우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바로 일어서서 위태함을 면

25 율곡 연보

26 율곡 행장

한 뒤에야 안심하는 빛을 띠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생의 천성이 착하고 어질며,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어려서부터의 일이었다고 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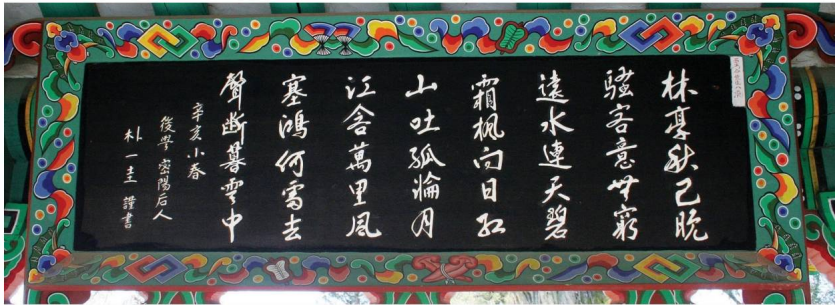
[7세 때] 진복창전을 지음²⁷

선생이 6세에 서울로 온 뒤 7세 때에 진복창(陳復昌)이라는 이의 전(傳)을 지어,

군자는 덕을 안으로 쌓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평탄하고, 소인은 악한 것을 안으로 쌓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편안치 않는 법이다. 내가 복창의 사람됨을 보니 속으로는 편안치 않은 생각을 품고 겉으로는 평탄한 체하는 것이니 저 사람으로 하여금 권세를 부리게 한다면 뒷날 걱정스런 일이 어찌 끝이 있으리오.

라고 하였다. 그때 진복창은 율곡의 이웃에 가까이 살았었고 또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은 어린 눈으로도 그의 인품을 관찰할 수 있었고, 또 그의 장래를 예언했던 것이다.

²⁷ 율곡 연보. 진복창이라는 이는 자가 수초(遂初)이고 여양(驪陽)이 본관인데, 중종(中宗) 26년(1531)에 진사(進士)에 오르고 벼슬은 대사헌(大司憲)에까지 올랐다. 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썼지만 사람됨이 간사하고 음험해서 ‘독사’라는 별명까지 들은 사람이다. 명종(明宗) 때 윤원형(尹元衡)이 세력을 잡았을 때 그 밑에 붙어서 원형이 없애려는 사람이면 모조리 큰 옥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무절러 버렸기 때문에 복창의 손 아래서 피를 흘린 사람이 얼마인지 몰랐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신도 원형의 미움을 받아 함경도 삼수(三水)로 귀양가서 비참하게 죽었다.



화석정에 걸려있는 화석정시 편액과 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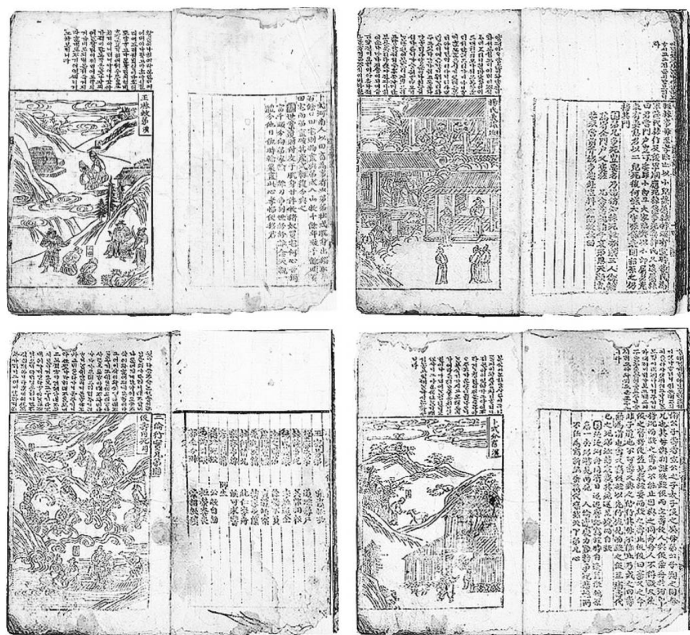
[8세 때] 화석정 시를 지음²⁸

경기도 파주군 율곡리(栗谷里)라는 곳에 화석정(花石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정자는 율곡의 5대조 되는 강평공(康平公) 명신(明晨)이라는 이의 대(代)에 와서 새로 짓는 동시에[1478년] 그 당시 문명(文名)이 높던 몽암(夢菴) 이숙함(李叔堪)에게 정자 이름을 지어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율곡 선생 때에 이르러서도 늘 그곳에서 독서하고 묵상하던 것이어서 율곡에게는 중요한 수양장소이기도 했다.

그러한 화석정에 율곡이 처음 올라본 것은 8세 때였는데, 그때 지은 시는 이러하다.

임 정 추 이 만 숲 속 정자에 가을이 저물었는데
 騷客意無窮 시인의 회포야 끝이 없구나.
 원 수 연 천 벽 물과 하늘 마주 이어 푸르렀는데
 상 풍 향 일 홍 서리 물든 단풍은 햇빛 향해 붉었네.
 산 토 고 굴 월 산은 둥근 달을 토해 내는데
 강 함 만 리 풍 강은 만리나 부는 바람 머금었구나.
 새 흥 하 처 거 변방의 저 기러기 어디로 가나
 성 단 모 을 중 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에 끊어지누나.

[9세 때] 형제들의 아버지가 만드는 그림을 그림²⁹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선생은 글과 시만이 아니라 그림에도 능했던 것을 보는데, 이것은 물론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니며 9세 때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재주를 말하는 자료인 동시에 그 내용으로는 뒷날 큰 도학자(道學者)가 될 소질을 볼 수 있었던 점에 주의할 만한 일이다.

일찍이 『이륜행실(二倫行實)』을 읽으며 장공예(張公藝)의 아홉 대(代)가 한 집안에서 같이 산 이야기에 이르러서 선생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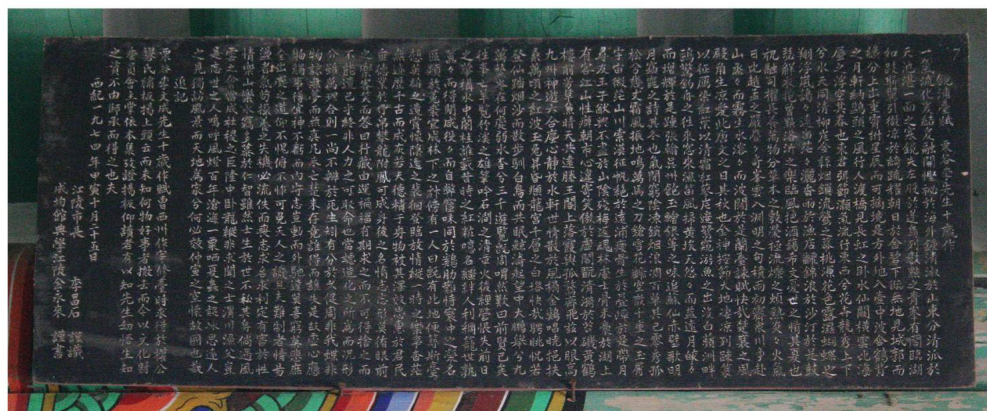
29 율곡 연보

장공예는 중국 당(唐)나라 때 사람인데, 아홉 대가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고종(高宗) 황제가 그 집에 이르러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장공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을 인(忍)자를 백 번 써서 바치니 황제도 감탄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사람이다. 선생은 이 장공예의 이야기에 감탄한 나머지, “그 사람과 같이 아홉 대가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것은 혹시 어떤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제끼리는 결코 나뉘어서 살 수는 없다.”하고 마침내 자기 손으로 형제들이 부모를 받들고 같이 사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을 감탄케 하기도 했던 것이다.

[15세 때] 「경포대부鏡浦臺賦」를 지음³⁰

강릉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7킬로쯤 되는 바닷가의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경포대는 울곡이 태어난 오죽헌에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경포호의 서쪽 언덕 위에 세운 정자는 고려 충숙왕(忠肅王) 13년 병인(1326)에 박숙(朴淑)이 창건하고 안축(安軸)이 그 내력에 대한 글을 지었으며, 뒤에 조선 중종(中宗) 3년 무진(1508)에 한급(韓汲)이 옮겨 지었고, 다시 그 뒤 숙종(肅宗)의 시(詩)도 걸었으며, 또 영조(英祖) 18년 임술(1742)에 조하망(曹夏望)이 61세에 강릉부사로 와서 경포대를 크게 보수·개축하였다.

30 울곡전서 습유



경포대와 '경포대부경포臺賦'를 새겨놓은 편액扁額

그런데 그 때 경포대 정자의 개수 공사를 끝내자 마침 근처에 있는 오죽헌 옛 문서 속에서 율곡이 10세 때 지었다는 「경포대부」가 발견되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여겨 현판에 새겨 문 머리에 걸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1961년에 와서도 다시 보수한 일이 있었는데, 이 언덕 정자 위에 올라서 경포대의 전경을 둘러보면 과연 거울같이 맑고 고요한 물과, 그 물에 그림자를 담그고 있는 송림과 다시 그 너머 흰 모래벌판과 끝없이 푸른 동해가 모두 어울려 절묘한 경치이다. 옛날 신라 때 네 분의 국선(國仙)이 여기 와 놀았다는 말이 결코 빈 말이 아닐 것이며, 또 이른바 ‘관동팔경’의 하나라는 것도 과연 헛이름이 아님을 느끼는 곳이다. 이렇게 이름난 정자에 10세 때 지었다고 전하는 천재 율곡의 글이 붙어있는 것이 더욱이 의미있는 이야기거리라 할 것이다.

그 글은 전문이 1,056자인데, 첫째는 중국 역대 이름난 문학 작품들에 나오는 온갖 글을 인용한 것, 둘째는 너무도 고상한 철학과 아울러 도덕인의 품모를 보인 큰 문장이기 때문에 혹 율곡 자신이 뒷날에 그 작품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기도 하며 또 혹은 20세 때에 금강산으로부터 돌아와 강릉에서 머무르며 이것을 지은 것인데 뒤에 문집을 편찬할 때 ‘二十’의 ‘二’자가 빠져 버리고 ‘十’세로 되지 않았나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의혹인데, 다만 『율곡전서 습유(拾遺)』 권 1에 10세 때의 작품으로 그 글이 수록되어 있는만큼 우리는 그것을 천재 율곡의 모습을 전하는 좋은 자료로 삼을 따름이다.

[11세 때] 아버지를 위한 기도³¹

선생의 11세 때, 아버지 이원수(李元秀) 공의 병이 위급하게 되었다.

그때 율곡은 팔의 살을 베어 아버지께 피를 드리고 뒤결에 모신 조상의 사당에 가서 기도를 올렸다. “저는 나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재주가 있으므로 능히 귀신을 섬길 만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는 이미 늙어서 젊은 저보다 못할 것이오니 저를 대신케 해 주소서.” 이튿날 아버지는 눈을 뜨고 소생해 일어났다. 그리고 소생해 일어난 아버지는, “꿈에 어떤 신선 영감님이 이 아이를 가리키며 ‘이 아이는 동국의 큰 유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름을 구슬 옥(玉) 변에 귀 이(耳) 자를 하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율곡의 이름은 처음에는 ‘현룡(見龍)’이라 했던 것을 이때부터 ‘이(珥)’자로 고쳐서 쓰게 된 것이다.

[13세 때] 진사 초시에 합격³²

선생은 13세 때에 진사(進士) 초시(初試)에 장원으로 합격했다. 물론 1차 시험에 합격된 것이지만 그 총명과 지식이 보통 소년보다 뛰어났던 것임은 말할 것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 승정원(承政院)의 높은 관리들이 선생을 불러 보았는데, 마침 선생과 같은 연배로 다른 천재 소년이 또 있었던 모양이어서 어른들 앞에 같이 불러 왔던 것이다.

그 소년이 누구였는지는 모르나 그는 재주있는 소년이었던만큼 다소 경박한 사람이었던지 무척 자랑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선생은 그저 점잖게 예사로이, 또 무게있게 몸을 가지는 것이어서 보는 이들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하고 훨씬 더 높이 칭송했었다.

31 율곡 연보

32 율곡 연보

3. 율곡과 서모 庶母 권씨 權氏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이 4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율곡은 16세였다. 아버지 이원수공은 부인 사임당보다 3살 위로서 51세에 부인을 여읜 것이라 자녀는 7남매를 두었지만 그대로 혼자 지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실 후취 부인으로 모셔 온 것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여자라 율곡은 그 서모에게 지위 여하를 헤아리지 않고 극진히 경대했었다. 율곡의 부친 이공이 사임당 별세 후 10년 만에 역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부인과의 오래 산 것은 아닌데, 부친이 별세한 뒤에도 율곡은 그 서모에게 끝까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그런데 서모의 성은 권씨로 성격이 자못 특이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율곡 선생 별집 잡록 중에 있는 기사들을 상고해 보면 권씨가 집안에서 하는 행동이 그야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로 패악스러웠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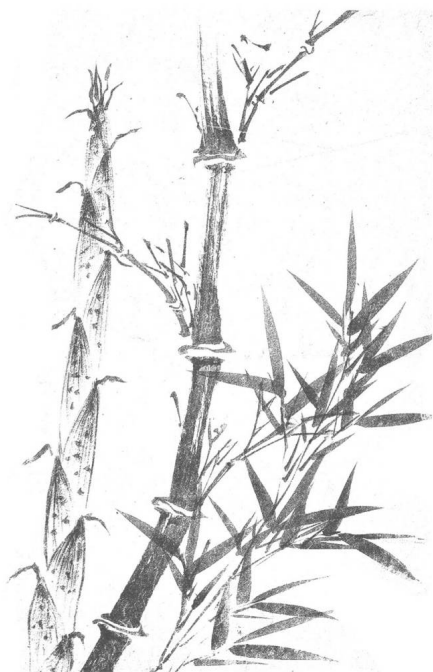
1. 평소에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뜰로 내려와서 빈 독에 머리를 박고 엉엉 울어서 그 소리가 크게 울려 이웃 사람들까지 놀라게 하였다.

2. 걸핏하면 노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시늉을 해서 집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모두들 달려와서 그것을 구원해 내도록 집짓 행동하곤 하였다.
3. 어떤 이가 홍시를 한 쟁반 가지고 와서 율곡에게 선물했는데, 마침 율곡이 손님과 같이 앉았다가 그 손님이 무척 시장해 하는 것을 보고 그 손님에게 한 개를 주고 자기가 또 한 개를 집고서는 그 감을 쟁반 채로 권씨에게 들여보냈더니, 권씨가 자기에게 말 없이 두 개를 들여냈다고 해서, “그렇게 먹고 싶은데 왜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냐.”하고 야단이 나므로 율곡은 곧 그 손님에게 주었던 것과 자기가 먹려고 집었던 것, 두 개를 곱게 바쳐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해서 겨우 그 노기를 풀어드린 일도 있었다.
4. 어느 때에는 마음에 무슨 미흡한 일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닫고 아침 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므로 율곡은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방문 밖에 정중히 앉아서 두 번, 세 번 머리를 숙여 사죄하여 겨우 달래기도 했다.
5. 매양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율곡은 새벽 일찍 일어나 몸소 술잔을 들고 몇 잔 따라 드려서 봉양하는 예를 다했다.³³

이와 같은 서모였건만 율곡은 끝까지 그를 친어머니 대하듯 하기에 힘쓰고, 또 아버지가 별세한 뒤부터는 모든 집안 일을 그의 주장 아래서 하도록 그의 권한을 인정해 드렸을 뿐만 아니라 조석으로 문안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33 율곡 별곡

더구나 율곡이 재상이 된 뒤에는 한층 더 겸손히 몸을 가지고 서모 앞에서 마치 나이 어린 소년처럼 굴었으며, 율곡이 황해도 해주 석담에 있을 때에도 서모를 모시고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서모 권씨도 마침내 감화되어 어진 부인이 되었으며, 심지어 율곡이 별세한 뒤에는 도리어 자기가 율곡의 덕을 사모하여 몸소 3년 동안 소복을 입기까지 했던 것은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4. 율곡의 부인과 자녀

부인 노씨의 생애

율곡은 22세에 결혼했는데, 부인은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지낸 노경린(盧慶麟)의 딸이었다. 율곡의 장인 노경린은 본관이 곡산(谷山)으로, 1516년에 났으니 율곡보다 23세가 많으며 1568년에 53세로 별세했다. 평소에 성질이 강직해서 남과 잘 싸우지 않았고, 그래서 초년에는 진복창(陳復昌)과도 친히 지냈으나 훗날 진복창이 득세한 뒤에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는 거의 절교하다시피 했는데, 율곡이 7세 때 「진복창전」을 써서 그의 장래가 걱정스럽다고 했던 것과도 서로 비교되는 일이기도 하다.

부인은 중종 36년(1541)에 났으므로 선생보다는 5세 아래였다. 17세에 선생과 결혼한 뒤에 강직하면서도 어질고 규모 있으면서도 너그러워 모든 일에 큰 인물의 배필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더욱이 시서모 권씨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했고, 또 만동서 곽씨를 받들어 섬기는 한편, 두 첩을 누이처럼 대우하고 첩의 몸에서 난 자녀들을 자기가 낳은 아기들처럼 사랑으로 안고 키워 그들로 하여금 감동케 했고, 또 모든 아래 사람들에

게 한 번도 성내 본 일이 없었다.

선생과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나 44세에 선생을 여의고, 그 해 봄으로 선생의 궤연(几筵)³⁴을 모시고 해주로 가서 아침 저녁 상식(上食)³⁵하되 두 첩을 데리고 손수 정결하게 차렸으며, 3년이 지난 뒤에도 초하루 보름에 반드시 곡하고 또 제사 받드는 첩의 아들을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하며 모든 집안 일을 그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선생을 여인지 8년째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부인은 그 때 서울에 있다가 왜적들이 서울을 향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과 조카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본래 병 있는 사람이라 말을 타지 못할 뿐더러 왜적들이 전국에 퍼져 올라오니 어디 가서 살 곳을 찾겠느냐. 이리저리 뒹굴어 돌아다니다가 타향에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파주 산소 곁에서 세상을 마치는 것이 옳겠다. 너희들은 날 걱정하지 말고 모두들 제 생각대로 잘 피난했다가 뒷날 평정된 뒤에 파주 산소 곁에 떠나 잘 물어다오.”하자 모든 자질들이 그 말을 따를 리가 없었다. 그러자 부인은, “너희들은 내가 죽는 걸 어렵게 여기는 거냐. 내가 이미 하늘을 잃어버린 지 8년이나 되었는데, 이만해도 내 목숨이 질기지 않느냐. 하물며 이런 큰 난리를 만나 산소 곁에서 안 죽고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살아보자고 할 것이냐. 나는 이미 뜻을 결정했으니 다시는 두 번 더 잔소리를 하지 마라.”하고 엄격한 분부를 내렸다.

34 죽은 사람의 영위를 모셔 놓은 자리인 영궤(靈几)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 [편집부]

35 상가(喪家)에서 아침저녁으로 궤연 앞에 올리는 음식 [편집부]

4월 그믐에 선조가 의주로 떠난 뒤를 따라서 부인은 자기 계획대로 신주를 모시고 파주 묘소로 갔었다. 거기서 마침내 왜적을 만났으나 부인은 자기 결심대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왜적들에게 항거하다가 놈들의 잔악한 손에 희생되니 5월 12일이었고, 향년은 52세였다. 그 이듬해 임금이 서울로 환도한 뒤에 부인을 위해 열녀의 정각을 세우라 명령하였다.

그런데 부인의 친정은 본래 황해도 곡산이었고, 아버지 노경린이 성주(星州)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집을 경북 성주로 옮겼던 때에 율곡과 결혼했던 것이다. 장인 노공은 성질이 청백하고 강직했기 때문에 권문세가에 아첨하지 아니했고, 그런 관계로 숙천(肅川) 부사로부터 파직되어 집을 해주 들마울(野頭村)로 옮겨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던 것이다. 뒷날 율곡이 해주 석담 풍경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모든 형제의 식구까지 모두 다 모여서 같이 산 일이 있었던 것도 처가로 왕래하다가 결정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은 일찍 딸 하나를 낳았었으나 불행히 어려서 꺾여 버리고는 다시 더 자녀를 낳지 못했다.

율곡의 소실 이씨와 김씨

이와 같이 율곡의 부인은 아들을 더 낳지 못했고, 율곡의 2남 1녀의 자녀는 모두 소실의 몸에서 난 서자들이었다. 그로써 보면 옛날 습속에 양반은 의례히 소실을 가지는 것이기야 하지만 율곡의 경우는 단순히 그같은 습속에 의해서 소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식을 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율곡의 종손 재능(載能)씨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 소실로 맞은 이는 김씨로서 그의 무덤은 지금 파주 자운산 율곡 산소 옆에 있고, 두 번째 맞은 소실은 용인 이씨로서 그의 무덤은 해주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첫 번째 맞은 김씨가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씨를 맞아 첫아들을 낳으니, 그가 경림(景臨)이고, 이어 딸을 낳으니 뒷날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의 소실이 된 이다. 이 신독재는 율곡의 맏아들 경림과 동갑으로서 1574년에 태어났으며, 율곡의 제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아들이자 학문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시 율곡의 학통을 이었으며, 이같이 율곡의 서녀를 소실로 맞았으므로 집안으로도 인연을 맺은 이였다.

그랬다가 맏아들 경림을 낳은 지 5년 뒤에 첫 번째 맞은 김씨 부인에게서 자식을 얻게 되니 그가 바로 둘째 아들 경정(景鼎)인데, 나이로 따지면 맏아들은 율곡이 39세 때에 낳았고, 둘째는 44세 때에 낳았으므로 율곡이 별세하던 해에는 11세, 6세의 어린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노씨 부인이 더욱 그 아들들을 귀여워하고 가엽게 여겨 자기가 낳은 아이들처럼 진심을 기울여서 사랑으로 키웠던 것이다. 그들이 자라 뒷날 경림은 아들 다섯을 낳았고, 경정은 아들 둘을 낳아 지금껏 선생의 혈통이 전하여 이씨가 낳은 맏아들 경림의 후손으로 율곡의 14대 종손 재능씨가 한국 전쟁 후 해주로부터 남으로 내려와 율곡의 독서하던 유적지 서울 홍파동(紅把洞) 1번지에 살았다.

그리고 김씨는 본관과 고향이 어디인지 분명치 않으나 지금껏 그의 둘째 아들 경정의 계통을 북촌파(北村派)라 부르는 것을 보면 혹시 김씨 부인의 고향이 강릉 북평촌이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또는 그 집안 문중에서 소개되어 온 이가 아니었던가 한다.



신사임당 | 습작목매도

율곡의 혈통과 서자문제

옛날 풍속으로 서자란 것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벼슬길이 막히고 높은 대우를 받지 못하기 마련인데, 그런 때에 있어서도 율곡 집안만큼은 나라의 특별한 총애를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율곡 시장(謚狀)에 의하면 율곡이 별세한 뒤에 율곡의 친구들과 많은 선비들이 성금을 모아 그 유족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한편, 두 아들을 위하여 나라에 곡식을 바치고 허통(許通, 벼슬길을 통하게 해주는 것)케 했던 것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만아들 경림은 동몽교관(童蒙教官)이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죽은 뒤에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증직했으며, 그의 만아들 제(穉)는 북부참봉(北部參奉)을 지냈고 죽은 뒤에는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증직했다. 또 그 뒤 역대 종손들로서 3대 후시(厚蒔)는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 4대 연(緦)은 전의현감(全義縣監)인데, 특히 영조(英祖) 8년(1732)에 임금이 율곡의 저서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읽고 그 책머리에 서문을 지어 붙이고 또 가까운 신하에게 명하여 자운서원(紫雲書院)에 제사하게 하는 한편, 이 종손에 대해서는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자(加資)³⁶하고 그 자손들을 늘 벼슬을 주어 등용하라고 명령을 내린 일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어 5대 돈오(敦五)는 서부참봉(西部參奉, 취임하지는 않았다), 6대 백(伯)은 빙고별제(氷庫別提), 7대 인림(仁林)은 특명 금산군수(金山郡守), 8대 묵(默)은 진사(進士), 9대 종효(宗孝)도 진사 특명 홍릉

³⁶ 조선 시대에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 또는 그 올린 품계[편집부]

참봉(弘陵參奉), 10대 민도(敏道)는 특명 강령현감(康翎縣監), 11대 한영(漢永)은 문과 병조참판(兵曹參判), 12대 종문(種文)은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13대 학희(鶴熺)는 29세에 일찍 별세하고 14대 재능과 15대 해용(海鏞)의 형제들이 서울에서 살았다.

이같이 율곡의 종가 계통은 적자와 다름없는 사회적 우대를 받아 왔던 것이니, 이는 원칙적으로 옳은 일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옛 습속을 가졌던 지난날에 있어서도 대현(大賢)의 후손에 대한 당연한 대우였던 것이다.

그런데 본래 율곡의 주장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서자(庶子)’문제였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제도상으로 보아서 아무도 능히 거기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출하려고도 않았고, 또 그렇게 큰 관심조차 가지지도 않던 것이었으나 율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로 생각했고 또 사회적으로 그 위치를 살려 놓아야 할 것을 주장한 끝에 율곡의 특색이 있는 일이 되기도 한 것이다. 우복룡(禹伏龍)의 『동계잡록(東溪雜錄)』에 의하면 이런 기사가 있다.

어느날 민성장(閔成章)이 우계(牛溪) 성훈(成渾)의 집에서 율곡과 같이 앉아 이야기하던 중에 율곡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자들에게 벼슬길을 터 주지 않기 때문에 요즘 김훈도(金訓導), 이훈도(李訓導)같은 이들도 아무 일을 못해 보고 죽었으니 참 아까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율곡이 먼저 나간 뒤에 민성장이, “율곡이 정실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소실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식들에게 벼슬길을 터 주자는 생각에서 하는 말인가?”라 말하자 성우계가 크게 꾸짖으며, “율곡은 결코

자기 사정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는 아니요. 그는 대국적인 큰 눈으로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하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 율곡이 자기 아들이 소실에서밖에 나지 못했다고 해서 서자 문제를 논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자기 처가인 노씨(盧氏)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율곡이 33세 되던 해 4월에 그의 장인 노경린(盧慶麟)이 세상을 떠났는데, 집안 사람들이 뒷일을 묻자 노공은, “숙헌(叔獻, 율곡)이 있으니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하는 것이었다. 그 뒤에 장모가 말하기를, “장인께서 적자가 없고, 다만 소실에서 낳은 두 아들밖에 없으나 천륜은 마찬가지로이니 우리나라의 적자 서자 분재(分財)하는 법을 쓸 필요가 없고, 꼭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하여 두 동서들도 감격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을 보면 율곡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적서 동등을 주장하는 생각을 가진 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⁷

5. 율곡과 기생 유지

율곡 선생과 여인과의 관계는 부인 노씨, 소실 이씨와 김씨를 아울러 세 명 이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다. 그 당시 황해도 황주(黃州)에 유지(柳枝)라는 기생이 있어서 그렇게도 율곡 선생을 흠모했고, 율곡 선생 또한 그의 용모가 예쁘고 행동이 민첩하기 때문에 무척 그를 귀엽게 여겼으며, 같이 놀기조차 여러 차례 했지만 남녀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을 보면 율곡 선생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무척 담담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선생과 황해도와의 인연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생의 처가인 노씨의 친정이 해주(海州)였던 것이다. 본래 장인 노경린은 황해도 곡산(谷山)이 본관으로, 청백한 관리로 이름이 있던 사람인데 일찍 경상도 성주(星州)목사를 거쳐 평안도 숙천(肅川)부사에서 모함을 입어 파직된 뒤로는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해주 들마을(野頭村)로 이사하여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율곡이 그 야두촌 처가에 내왕하게 된 것이 황해도와의 첫 인연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해주 석담(石潭)—율곡의 처가 마을에서 북쪽으로 시내를 타고 올라가는 곳—경치 좋은 곳을 골라 정사(精舍)를 지어 강학(講學)도 하고 휴양도 하고, 나중에는 온 형제의 가족 전부가 모

여 거기서 같이 생활하기까지 했으며, 특히 뒷날 우리 국문학상에 좋은 자료가 된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지어 후세에 끼치기도 한 것이다.

셋째는 율곡이 39세 때에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어 가서 비록 5·6개월밖에 안되는 동안이지만 행정상에 폐단되는 점을 개혁도 하고 백성들의 교육에 힘을 쓰는 한편, 구휼(救恤)사업에까지 애를 써서 큰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넷째는 율곡에게는 세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맏누이인 매창(梅窓)의 부군인 조대남(趙大男)이 해주 동쪽에 있는 청단역(靑丹驛) 찰방(察訪)을 지낸 것은 차치하고, 둘째 누이의 부군 윤섭(尹涉)의 집이 황주(黃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이의 덕에 여러 번 문안 간 일이 있었다. 더구나 그 윤섭의 무덤은 파주(坡州)에 있으나, 누이의 무덤은 황주에 남아 있다. 또 율곡의 손아래 누이의 부군 홍천우(洪天祐)의 무덤도 해주 석담에 있다.

다섯째는 47세 때에 명(明)나라로부터 오는 사신 황홍헌(黃洪憲), 왕경민(王敬民) 등을 영접하는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평안도로 내왕하는 길에 저절로 황해도를 거쳐 다니게 된 것들이다.

그러는 동안 선생이 황주에 머무르며 기생 유지를 알게 된 것이 여섯째 인연이라 하겠는데, 특히 이 유지와는 서로 얼굴을 알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왕하는 사이에 여러 차례 같이 놀기도 했으며, 또 너무도 친숙해져서 마지막에는 유지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선생에게 사랑해 주기를 간청함에까지 이르렀지만 율곡은 끝내 그의 청하는 바를 들어 주지 않고, 다만 한 편의 시를 써서 유지에게 기념으로 준 것이 후세에 전해져 저절로 율곡과 유지와의 사이는 아무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음을 본다. 선생이 유지에게 손수 써 준 원고가 그대로 전하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율곡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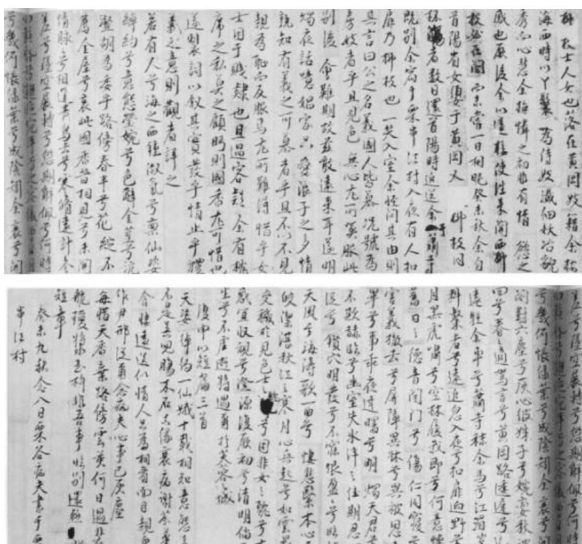
이나 다른 서적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친필 초고만이 전해 올 따름이어서 여간 귀중한 것이 아니다. 하기에 여기에 그 전문(全文)을 실어 보고자 한다.

유지에게 준 시

유지사인여야 낙재황강기적 여안해서시 미아환위시기 섬세요야
柳枝士人女也 落在黃岡妓籍 余按海西時 以丫鬟爲侍妓 纖細妖冶
모수이심혜 여무런지 초비유정욕지감아 쥔후 여이원접사 황래관서
貌秀而心慧 余撫憐之 初非有情欲之感也 厥後 余以遠接使 往來關西
유지필재함미미상일일상닐 제미추 여자수양 섬녀 수우황강
柳枝必在閤而未嘗一日相昵 癸未秋 余自首陽 省女嬖于黃岡
우여유지동배상자수일 환수양시 추송여우소사 기별
又與柳枝同杯觴者數日 環首陽時 追送余于蕭寺 旣別
여숙우환강촌 입야유인구비 내유지야 일소입실 여괴문기유
余宿于栗串江村 入夜有人扣扉 乃柳枝也 日笑入室 余怪問其由
즉기언왈 공지명의 국인개모 황호위발기자호 차견색무심 우소란복
則其言曰 公之名義 國人皆慕 況號爲房妓者乎 且見色無心 尤所歎服
차별후회난기고 자강원래이 수명촉야화 회 참가지애랄자지다절
此別後會難期故 茲敢遠來耳 遂明燭夜話 噫 娼家只愛浪子之多情
숙지유의지가모자호 차불이불견친위치 이반복언 우소난득석호너
孰知有義之可慕者乎 且不以不見親爲恥 而反服焉 尤所難得 惜乎女
사곤우천에야 차과객의여유침석지사 만지고면 즉국향우가석야
士困于賤隸也 且過客疑余有枕席之私 莫之顧眄 則國香尤可惜也
수제사이서기실 발호정 차호예의지의 즉관자상지
遂製詞以叙其實 發乎情 此乎禮義之意 則觀者詳之

유지는 선비의 딸이다. 황주 기생으로 떨어져 있더니 내가 황해도 감사로 갔을 때를 계기로 수종(隨從)³⁸ 들었는데, 날씬한 몸매에 곱게 단장하여 얼굴은 맑고 머리는 영리해서 내가 쓰다듬고 어여bbe 여기긴 했으나,

38 남을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들, 또는 그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면집부)



을곡이 유지에게 준 시

처음부터 정육의 뜻을 품지는 않았다. 그 뒤에 내가 원접사가 되어 평안도로 오고 갈 적에 유지는 매번 안방에 있었지만 하루도 서로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계미년(1583년, 을곡 48세) 가을, 내가 해주에서 황주로 누이께 문안갔을 때에도 유지를 데리고 여러날 동안 술잔을 같이 들었고 해주로 돌아올 때에는 조용한 절에까지 나를 따라와 전송해 주었다. 그리고는 서로 떠나 내가 ‘밤고지’강마에서 자는데, 밤이 들어 어떤 이가 문을 두드리기에 보니 유지였다. 방긋 웃고 방으로 들어오기에 나는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대감의 명성이야 온 국민이 모두 사모하는 바 이읍거늘, 하물며 명색이 기생된 계집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위에 여색을 보고도 무심하오니 더욱 더 감탄하는 바입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기 어렵기로 이렇게 글이 멀리까지 온 것 이읍니다.”하므로 불을 밝히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아! 기생이란 뜬 사내들의 다정한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어늘, 누가
 도의를 사모하는 자가 있는 줄이야 알 것이라. 게다가 반자하지 않는
 걸 보고도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복한다는 것은 더욱 보
 기 어려운 일이니 아까워라! 여자로서 천한 몸이 되어 고달프게 살아
 가다니...

더구나 지나는 이들이 내가 혹시 잠자리를 같이 하 지나 앓았나 의심
 하여 저를 돌아보아 주지 않는다면 극증일색이 더욱 아깝겠구나. 해서
 노래를 지어 사실을 적어 정에서 출발하여 예의에 그친 뜻을 알리는
 것이니, 보는 이들은 그리 짐작하시라.

약유인해해지서 종숙기해름선자 작약해의태 영완해색사
 若有人兮海之西 鍾淑氣兮稟仙姿 綽約兮意態 瑩婉兮色辭

금경해환해 호위위호로방 춘반해화란 광천금옥해애차극향
 金莖兮沆瀣 胡爲委乎路傍 春半兮花綻 不薦金屋兮哀此國香

석상견해미개 정맥해상통 청조기해천수 원계참차해추공
 昔相見兮未開 情脈兮相通 靑鳥去兮蹇脩 遠計參差兮墜空

전전해건기 해패해하시 왕황혼해해후 완평석지음의
 展轉兮愆期 解佩兮何時 曰黃昏兮邂逅 宛平昔之容儀

중일월해기하 창록연해성음 신여외해개합 대륙진해회심
 曾日月兮幾何 悵綠葉兮成陰 矧余衰兮開盒 對六塵兮灰心

피주자해완련 추파회해권권 적가언해황강 노위지해하원
 彼姝子兮婉孌 秋波回兮眷眷 適駕言兮黃岡 路逶遲兮遐遠

주여기해소사 말여마해강미 기료찬자해원추 홀입야해구비
 駐余車兮蕭寺 秣余馬兮江湄 豈料粲者兮遠追 忽入夜兮扣扉

형야해월흑 호스해공림 리아즉해하의 회구일지덕음
 迺野兮月黑 虎嘯兮空林 履我即兮何意 懷舊日之德音

폐문해상인 동침해해의 첩거해병장 이상해이피
 閉門兮傷仁 同寢兮害義 撤去兮屏障 異牀兮異被

사미필사과 야달서해명촉 천군해불기 혁림해유실
 思未畢事乖 夜達曙兮明燭 天君兮不欺 赫臨兮幽室

심빙반지가기 인상종해찬혈 명발해광매 한열열해림기
 失氷泮之佳期 忍相從兮鑽穴 明發兮不寐 恨盈盈兮臨歧

천풍해배도 가일곡해처비 예본심해교절 담추강지한월
 天風兮海濤 歌一曲兮悽悲 繫本心兮皎潔 湛秋江之寒月

심 병 기 혜 여 읍 최 수 예 어 견 색 사 지 략 혜 고 비 여 지 략 혜 유 혹
心兵起兮如雲 最受穢於見色 士之耽兮固非 女之耽兮尤惑

의 수 시 혜 정 원 복 원 초 혜 청 명 당 삼 생 혜 불 허 서 장 유 이 어 부 용 지 설
宜收視兮澄源 復厥初兮清明 倘三生兮不虛 逝將遇爾於芙蓉之城

어허! 황해도에 사람 하나 맑은 기운 모아 신선자질 타고 났네
뜻이랑 태도랑 곱기도 할사 얼굴이랑 말소리랑 맑기도 하이

새벽하늘 이슬같이 맑은 것이 어찌다 길가에 버려졌던고
봄도 한창 청춘의 꽃 피어날 제 황금 집에 못 옮기던가 슬프다 일색이여

처음 만났을 쯤 상기 아니 피어 정만 맥맥히 서로 통했고
증매 설 이가 가고 없어 먼 계획 어긋나 허공에 떨어졌네

이렇 저렇 좋은 기약 다 놓치고서 허리띠 풀 날은 언제런고
어허 황혼에 와서야 만나다니 모습은 그 옛날 그대로구나

그래도 지난 세월 얼마나 간지 슬프다 인생의 녹음이라니
나는 더욱 몸이 늙어 여색을 버려야겠고 세상 정욕 재갈이 식어졌다네

너 아름다운 여인이여 사랑의 눈초리를 돌리는가
내 마침 황주 땅에 수레 달릴 제 길은 굽이굽이 멀고 더딜레

절간에서 수레 머물고 강득에서 말을 먹일 제
어찌 알았으랴 어여쁜이 멀리 따라와 밤들자 내 방문 두드릴 줄을

아득한 들 가에 달은 어둡고 빈 숲에 뱀 우는 소리 들리는데
나를 뒤뉘아 온 것 무슨 뜻이뇨 옛날의 명성을 그려서라네

문을 닫는 건 인정없는 일 같이 얹는 건 옳지 않은 일
가로막힌 병풍이사 걸어치워도 자리도 달리 이불도 달리

은정을 다 못 푸니 일은 틀어져 촛불을 밝히고 밤새우는 것
하느님이야 어이 속이리 깊숙한 방에도 내려와 보시나니
혼인할 좋은 기약 잃어버리고 몰래 하는 짓이야 차마 하리오

동창이 밝도록 잠 자지 않고 나뉘자니 가슴엔 한만 가득
하늘엔 바람 불고 바다엔 물결치고 노래 한 곡조 슬프기만 하구나

어허 내 본심 깨끗도 할사 가을 물위에 찬 달이로고
마음엔 선악 싸움 구름같이 일 적에 그 중에도 더러운 것 색욕이거니
사나이 탐욕이야 본시부터 그른 것 제집이 내는 탐욕 더욱 고약해

마음을 거두어 근원을 맑히고 밝은 근본으로 돌아갈 지라
내생이 있단 말 빈말이 아니라면 가서 저 부용성에서 너를 만나리

다시 짧은 시 3수를 써 보이다 부 신 이 단 편 삼 수 復申以短篇三首

천 자 작 약 일 선 아 십 재 상 지 의 태 다
天姿綽約一仙娥 十載相知意態多

불 시 오 마 장 목 석 지 연 의 병 사 관 화
不是吾兒腸木石 只緣衰病謝芬華

함 치 원 송 사 정 인 지 위 상 간 면 목 친
含悽遠送似情人 只爲相看面目親

앵 작 윤 형 종 이 념 병 무 심 사 기 회 진
更作尹邢從爾念 病夫心事已灰塵

매석천향기로발 雲英何日遇裴航

경장유지비오사 臨別還慙贈短章

계미구추열팔일 癸未九秋念八日 栗谷病夫 書于 栗串江村

이쁘게도 태어났네 선너로구나. 십년을 서로 알아 익숙한 모습
돌같은 사내기야 하겠냐마는, 병들고 늙었기로 사절함일세.

나뉘며 정든이같이 설워하지만, 서로 만나 얼굴이나 친했을 따름
다시 나면 네 뜻대로 따라가련만, 병든 이라 세상 정욕 찬 재 같은걸

길가에 버린 꽃 아깝고말고, ‘운영이’처럼 ‘배항이’를 언제 만날꼬.
둘이 같이 신선될 수 없는 일이라, 나뉘며 시나 써주니 미안하구나.

[1583년 9월 28일, 율곡 병든 늙은이가 ‘밤고지’강마을에서 쓰다]

[주석]

- ▶ 黃岡(황강) : 황해도 황주(黃州)의 다른 이름
- ▶ 海西(해서) : 황해도를 일컫는 이름
- ▶ 丫鬟(아환) : 叉鬟(차환), 丫頭(아두), 丫髻(아계)라고도 함. Y자와 같이 두 가닥 상투를 틀어 올린 모양을 한 어린 여자아이를 이르는 말인데, 특히 천한 계집종에게 쓴다.³⁹
- ▶ 遠接使(원접사) : 중국에서 오는 사신을 멀리까지 나가 맞아 들이는 임시 벼슬의 이름
- ▶ 關西(관서) : 평안도를 일컫는 이름
- ▶ 首陽(수양) : 황해도 해주(海州)의 다른 이름

39 출처 : 『철경록(輟耕錄)』

- ▶ 女嚮(여수) : 손위 누이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율곡의 둘째 누이를 말한 것임.
- ▶ 蕭寺(소사) : 단정지를 수는 없지만 대개 정방산(正方山) 아래 있는 성불사(成佛寺)로 추측됨.
- ▶ 栗串江村(율관강촌) : '밤고지(栗串)'이라고 하는 것을 율곡의 연고깊은 곳이기도 한 파주에 있는 율곡리로 알기 쉬우나 이 시를 지은 곳은 재령(載寧) 고을에서 한 16리 북쪽에 있는 율관진(栗串津)을 가리킨다. 그 물은 해주 조화동(助化洞)에서 흘러내리는 물인데, 이 나루를 지나면서 서해의 조수가 드나드는 곳이 된다.⁴⁰
- ▶ 金璫(금경) : 한(漢) 무제(武帝)가 구리로 승로반(承露盤)을 만들어 맑은 새벽 이슬을 받아 옥루를 타서 마심으로써 오래 살기를 희망했는데, 그 승로반의 받침대를 금경이라고 한다.⁴¹
- ▶ 沆瀣(항해) : 이슬 기운을 뜻함. 혹은 북방의 밤기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모두 신선 이 먹는 것이라고 말함.⁴²
- ▶ 金屋(금옥) : 옛날 한무제가 태자로 있을 때에 그의 고모가 자기 딸과 짝을 맺어주고 싶은 생각에, “저 아교(阿嬌, 처녀아이를 말함)를 얻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묻자 태자[무제]는 기뻐하며, “내가 만일 저 아교를 얻는다면 황금집[金屋]에 모시지요.”하고 대답했는데, 그 아교가 훗날 황후가 되었다.⁴³
- ▶ 청조(靑鳥) : 한무제 때의 이야기로, 어느날 파랑새[靑鳥]들이 대궐 뜰 앞에 날아드는 것을 보고 동방삭(東方朔)이, “아마 서왕모(西王母)가 오려나 보다.”하니 과연 서왕모가 오는데 파랑새들이 모시고 있더라는 것에서 연유하여 중매 등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되었다.⁴⁴
- ▶ 蹇脩(견수) : 본래는 복희씨(伏羲氏)의 신하 이름인데 중매를 일컫는 말이 되었음.⁴⁵

40 출처 : 『여지승람(輿地勝覽)』 재령편

41 출처 : 『후한서(後漢書)』 삼보고사(三輔故事)

42 출처 : 『열선전(列仙傳)』

43 출처 : 한무고사(漢武故事)

44 출처 : 한무고사

45 출처 : 『초사(楚辭)』

- ▶ 開閤(개합) : 옛날 진(晉)나라 때 왕돈(王敦)은 진동대장군(鎮東大將軍)으로 평소에 안방에 기생들을 두고 주색을 즐겨 몸이 쇠약해지니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몸을 위해서 여색을 멀리 하라.”고 권하자, 그는 곧 안방 문을 열고 기생들을 내쫓아 내니 ‘안방 문을 열고 기생들을 쫓았다[開閤逐妓]’라는 문자가 생기게 되었다.⁴⁶
- ▶ 六塵(육진) : 색(色) · 성(聲, 소리) · 향(香) · 미(味, 맛) · 촉(觸, 감각) · 법(法)을 가리키는 데 육경(六境)이라고도 한다. 눈(眼) · 코(鼻) · 귀(耳) · 혀(舌) · 몸(身) · 뜻(意)의 육근(六根)을 통하여 사람의 몸 속에 들어와 깨닫힌 마음을 더럽히고 참된 성품을 덮어 어둡게 하는 것이므로 티끌(塵)이라고도 쓰고 도적(賊)이라고도 쓴다.⁴⁷
- ▶ 秋波(추파) : 여자의 눈초리는 가을의 물처럼 맑다고 해서 생겨난 말로, 색정을 품은 눈초리를 뜻함.⁴⁸
- ▶ 冰泮(빙반) : 泮은 얼음이 풀리는 것을 말함인데, 『시경(詩經)』에, “얼음이 미처 풀리기 전에 아내를 맞이한다.”는 구절이 있어, 결혼 시기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⁴⁹
- ▶ 鑽穴(찬혈) : 쥐 모양으로 구멍을 뚫는 것으로, 남몰래 아합하는 것을 말함.
- ▶ 心兵(심병) : 마음이란 바깥 사물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인데 마치 밖에 있는 적을 대함과 같이 싸우는 것으로,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것을 의미함.⁵⁰
- ▶ 三生(삼생) : 과거 · 현재 · 미래의 3세(世)에 전생(轉生)하는 것을 말함.⁵¹
- ▶ 芙蓉城(부용성) : 옛날 석만경(石曼卿)이란 이가 죽은 뒤에, 친구가 그를 만나보니 마치 꿈속같이 아름답한 곳에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신선이 되어서 부용성[연꽃 핀 아름다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뒷날에는 ‘저승의 신선 나라’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⁵²

46 출처 : 『왕돈전(王敦傳)』

47 출처 : 『불가류해(佛家類解)』

48 출처 : 소식(蘇軾)의 시(詩)

49 출처 : 「시경패풍(詩經北風)」

50 출처 : 황정건(黃庭堅)의 시

51 출처 : 『전등록(傳燈錄)』

52 출처 : 「육일시화(六一詩話)」



신사임당 | 수박과 석죽화

- ▶ 뭇兒(오아) : 여자의 꼬임에 움직이지 않는 이를 가리킴. 진(晉)나라 때 하통(夏統)은 영흥(永興) 사람으로 인물도 잘나고 말도 잘했다. 어느날 서울로 올라가 당시의 재상 가충(賈充)과 만났는데, 가충이 그에게 벼슬을 권했으나 듣지 않으니 아름다운 여자를 시켜 그를 유혹했지만 미동조차 없었다. 가충은, “이 오(뭇)의 젊은이는 참자가 나무로 되어있고, 마음은 돌로 되었다보다 [此兒, 木腸石心也].”라 했다.⁵³
- ▶ 尹邢(윤형) : 한무제의 사랑을 함께 받던 윤(尹)부인과 형(邢)부인이 있었다. 윤부인이 형부인을 한 번 만나고 싶다고 청하자 무제는 다른 여자를 잘 꾸며서 윤부인에게 보였으나 윤부인은, “이 사람은 형부인이 아닙니다.”하며 속지 않으니 무제는 다시 형부인에게 허름한 옷을 입혀 보였더니, “저 사람은 과연 천자의 사랑을 받을 만하니 틀림없이 형부인이군요.”하고 자기가 그만 못한 것을 슬피 여겨 눈물을 지었다.⁵⁴ 그래서 율곡은 그 옛 이야기를 인용해 ‘윤부인, 형부인처럼 제1 부인, 제2 부인이 된다면…’이라고 쓴 것이다.
- ▶ 윤영(雲英), 배항(裊航), 玉柗(옥저) : 당(唐)나라 때 배항이라는 이가 윤교(雲翹)부인을 만났는데, “한 번 구슬 물[瓊漿]을 마시고 나면 온갖 느낌이 일어날 것이오. 검은 서리[玄霜]라는 신선약을 찢어 주고야 윤영을 만날 것이오. 남교(藍橋)는 그대로 신선 사는 곳이니, 구태여 어렵게 옥경(玉京)을 올라간다고 하리오.”라는 시 한 수를 주는 것이었다. 후에 배항이 남교역을 지나다가 어떤 늙은 여인에게 마실 것[漿]을 청했더니 그가 윤영을 시켜 마실 것을 가져다 주는데 배항이 그것을 받아 마셔보니 진짜 ‘구슬 물[玉液 瓊漿]’이었다. 그리고 윤영을 보니 얼마나 예쁜지 그 자리에서 윤영과 짝을 맺어 주기를 청하자 여인이, “간밤에 신선이 영약 한 숟가락을 주었는데 이것은 옥공이[玉柗]를 가지고 절구에 찢어야만 되는 것이니, 그대가 그것을 찢어주고 나서야 윤영이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일세.”라 하니 배항은 백일 동안이나 그 신선약을 찢어주고 윤영과 짝을 맺어 그길로 같이 신선이 되어 갔다고 한다.⁵⁵

53 출처 : 『진서(晉書)』 「하통전(夏統傳)」

54 출처 : 『사기(史記)』

55 출처 : 『태평광기(太平廣記)』

최립崔笠의 시詩

이 일이 있는 뒤, 서울 시골에 있는 여러 문인 학자들 사이에 이것이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 당시 간이재(簡易齋) 최립이란 이는 율곡보다 3세 아래인 벗으로, 시로써 일세에 이름을 날린 이인데, 율곡이 유지에게 지어 준 시 중의 첫수의 운자를 따라 시 한 수를 지은 것이 있어 여기에 소개해 본다.

거 장 문 자 중 섬 아 일 소 전 두 달 소 다
詎將文字重纖娥 一笑前頭當小多

최 시 선 생 명 의 감 신 장 불 복 람 례 화
最是先生名義感 新粧不復攬菱華

어찌하다 글을 지어 미인을 추키던고. 더러 앞날에도 웃을 일 있을건데
하지만 선생의 명망 생각하고서 다시는 거울 당겨 단장 않으리.

[주석]

- ▶ 菱華(능화) : 마름꽃. 옛날 한성제(漢成帝)의 궁인(宮人) 조비연(趙飛燕)이 일곱 자 크기가 되는 마름꽃 무늬를 수놓은 거울을 썼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뜻으로 쓰임.⁵⁶ 그리고 『남계견문록(南溪見聞錄)』에 의하면, 율곡이 세상을 떠난 뒤에 유지는 서울로 달려 올라와 곡하고 그대로 3년상을 치렀다는 것이다. 비록 육체적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을 바쳐 사모하던 어른이기에 그를 위하여 상복은 입은 유지야말로 얼마나 깨끗하고 예의있는 여성인지를 알 수 있겠다.

56 출처 : 「조비연 외전(外傳)」

6. 율곡과 누이 매창

율곡의 누이 매창(梅窓)은 어머니 사임당을 그대로 본받은 어진 부인이었다. 부덕으로도 그러하고 예술로도 그러하며, 학식과 지혜로도 그러했다. 그래서 아우 율곡에게도 그 영향이 크게 미쳤던 것이다. 물론 율곡 자신의 학식과 지혜가 능히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항상 그 누이의 의견을 듣고 참고가 되었을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율곡이 48세 때 병조판서로 있었는데, 그 때 북쪽 오랑캐들이 함경도 국경지대를 침탈해 들어왔으나 당시 그 지역에는 군인도 없고 군마도 없어 거기에 대비할 만한 방책을 세우지 못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율곡은 병조판서로서 국방문제에 대한 책임자인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깊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서자들과 공천(公賤, 관공서의 노비), 사천(私賤, 개인 집안의 노비)들을 모집해서 군인을 만들어 함경도로 들여 보내기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예 방면에 재주가 없는 사람은 곡식을 바쳐 군인 면제를 받게 하자는 것과 동시에 서자에게는 벼슬길을 열어주며, 노비들에게는 선량한 평민으로 승격시켜 주자는 의견을 내어 임금께 아뢰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가 이런 것을 이해해 주지 못했고, 또 조정 안에서
도 율곡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의견이 크게 물의를 일으켜 시
끄럽게 되기까지 했거니와 그 정치적 문제는 차치하고, 율곡이 이런 의
견을 내어 놓은 데 있어서는 본래부터 그 자신의 사상이기도 한 것에 더
해 그의 누이 매창이 권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야담이겠지만 정홍명(鄭弘溟)의 『기암잡고(畸菴
雜稿)』에 의하면, 율곡이 북쪽 오랑캐의 일로 걱정하는 것을 보고 그 누
이 매창이, “오늘의 급무는 무엇보다 인심이 즐거이 따라올 수 있는 정치
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의 서자된 사람들이 좋은 재주를 가지고도 길
이 꼭 막혀 있어서 천추에 한을 품고 사는 것인즉, 만일 그들에게 곡식을
바치고 벼슬길에 통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군량미를 얻을 수 있으니 좋고,
또 그들의 즐거운 마음을 살 수 있으니 좋지 않겠나.”라고 하니, 율곡도
그 누이의 의견에 탄복하여 마침내 임금에게까지 그 방법을 상소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⁵⁷

57 『율곡별집』 권5



이매창 | 연무 속의 매화

7. 율곡의 입산

율곡이 16세에 어머니 사임당을 여의고 18세에 3년상을 마친 뒤 19세 되던 해 3월에 금강산으로 들어가 불교에 투신하려 하다가 다시 1년 뒤 20세 되던 해 봄에 다시 속계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같이 그가 잠깐 입산했던 것 때문에 순수한 유학자의 길에서 잠깐이나마 다른 길로 가려 했던 것이라 하여 뒷날 그것을 허물 삼는 이들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잠깐 그가 왜 입산하려 했던가 하는 그 동기에 있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율곡집을 통하여 이러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본다.

율곡의 입산 동기

첫째, 자연 속에서 기(氣)를 기르려 했다.

율곡이 금강산으로 들어가며 글월을 써서 여러 친구들을 작별한 글의 내용에 이러한 말이 있다.

기(氣)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같이 얻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기르면 마음에 부림이 되고, 그것을 잘못 기르면 마음이 도리어 기의 부림이 되는 것이다. 기가 마음에 부림이 되면 한 몸에 주재하는 것이 있어 성현되는 것도 기약할 수 있지만, 마음이 기에 부림이 되면 모든 정욕이 통솔이 없어 어리석은 미치광이를 면하기 어렵다. 옛날 사람으로 기를 잘 기른 이로는 맹자(孟子)가 바로 그 분인데, 사람으로서 이치를 궁구(窮究)하고 천성을 다하려는 데 뜻을 둔 이라면 이를 버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공자가 말하되,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산수를 좋아한다는 것은 결코 그 숯고 흐르고 하는 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이고 고요한 본체를 취하는 것이니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기를 기르는 것이야말로 산수를 버리고 어디 가서 그것을 구할 것이라.

이 글을 보면 율곡의 입산이 불교에 귀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산수 속에서 기(氣)를 양성하려 한 것처럼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를 여의고 슬퍼하던 끝에 생사를 알고 싶어했다.

율곡은 어머니를 16살에 여의고 그 슬픈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기록에 의하면 거의 날마다 눈물을 거두지 못했다. 더구나 율곡처럼 총민한 이로서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스스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율곡은 이같은 철학문제를 가지고 한 날도 머리를 쉬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서울 뚝섬 건너의 봉은사(奉恩寺)에서 우연히 불교의 경전을 뒤적거려 보다가 생사의 학설에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 철학이

현묘하고 맑고 높은 것에 흥미를 얻어 마침내 입산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율곡이 일찍부터 불교 서적과 노자(老子), 장자(莊子) 등 도가(道家)의 서적까지도 많이 읽었고, 특히 화엄경(華嚴經)과 능엄경(楞嚴經)을 좋아했다고 말하였다. 어쨌든 율곡은 어머니를 여윈 뒤로 그 마음의 상처를 유교의 서적 속에서는 달랠 길이 없어 불교의 경전에서라도 인생의 생사문제를 풀어 볼까 해서였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달리 한 가지 전하는 것은, 율곡의 제자 천휴(天休) 이유경(李有慶)의 기록 중에,

율곡의 집안에 본래 옛날 불경이 전해 오는 것이 있었는데, 율곡이 어려서 그것을 펴 보니 거기에는 만약 불가의 오묘한 곳을 얻기만 하면 마침내 죽은 자를 볼 수도 있다는 말이 적혀 있어 늘 그것을 의심하고 있었던 바, 어머니를 여윈 뒤로 너무 슬픈 나머지 혹시 그럴 수 있기를 믿고 싶기도 했던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물론 율곡이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것은 사실이요, 또 생사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철학적 욕구심에서 입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어떤 미신으로 죽은 자를 다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에 미혹(迷惑)한 것이 아님은 더 말할 것 없는 바이다.

셋째, 서모(庶母) 권씨와의 가정불화 때문이다.

다시 한편으로 율곡의 서모 권씨가 들어온 이후 서모와 율곡의 만형선(璿)과의 사이는 화목을 잃어버리고 밤낮 다투기 때문에 율곡은 항상

그 두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위해 온갖 애를 다 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워 애타는 마음을 견잡을 길 없는 상황에 이같이 서모와의 불화는 율곡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래서 마침내 입산을 결심하고 아버지와 서모와 형에게 드리는 편지들을 책갑 속에 넣어 두고서 집을 떠나갔는데, 그 글월의 끝에는, “언제까지고 이같이 화목해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 버릴망정 어떻게 산다 하오리까.”하고 간곡한 부탁의 말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을 종합해보면, 첫째는 단순히 산수 자연 속에서 기를 기르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둘째는 어머니 그리운 슬픈 생각 끝에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를 연구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입산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악한 서모가 들어온 이후 가정불화가 끊임 없이 끊이지 않는 데서 세상을 비판함에서라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가 모두 각각의 이유가 되어 율곡의 입산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가장 큰 동기는 어머니 사임당이 별세한 이후 상한 마음을 위로할 길 없는 터에 총명한 율곡이었던 만큼 생사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불교서적을 탐독할 것을 목적으로 입산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율곡은 머리를 깎았던가

율곡의 입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출가(出家)를 뜻하는 것이 아님은 물

론이다. 다시 말하면, 산을 찾아갔다고 해서 그대로 스님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율곡이 1년 뒤에 다시 세속으로 돌아 오긴 했지만 문제는 율곡이 금강산에 들어가 있던 1년 동안에 과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는가 하는 데에 요점이 있는 것이다.

훗날 율곡의 제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율곡에게 지난날 금강산에 들어갔을 적에 머리를 깎고 모양을 바꿨느냐고 물었다. 율곡은 웃으며 대답하기를, “이미 산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설사 외양은 변하지 않았다 할망정 그 마음이 거기에 빠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물을 필요가 없다[既已入山, 雖不變形 何益於其心之陷溺乎 此事不須問也].”라 했다. 율곡은 구태여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었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대답하지는 않았는데, 형식상으로 스님이 되지는 않았으나 그가 머리를 깎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금강산에 들어간 뒤에도 스스로 자기의 호를 ‘의암(義菴)’이라고 지었던 것을 보면 반드시 속계를 버리고 완전히 불교에 귀의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호는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교적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둘째, 율곡이 머리를 깎은 일은 없었다. 율곡이 세속으로 돌아와 이튿날 옛 스승이었던 어숙권(魚叔權)을 찾아가 뵈는 일이 있었다. 어숙권은 율곡이 스님 노릇 했다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율곡에게 관을 벗어 보라고 했다. 그러나 율곡이 벗지 않으니 어숙권이 직접 벗겨 보니 늘어진 머리채가 몇 자가 넘는 것이다. 이에 어숙권은 손뼉을 치며

크게 기뻐하며, “이제 내가 그대의 스님된 일이 없는 것을 밝혀야지.”라 했는데 그때 어숙권의 제자 이봉상(李鵬祥)이라는 친구도 그것을 목도했다는 것이다.

셋째, 율곡이 돌아오자 여기저기에서 율곡이 머리를 깎았었느니 어쨌느니 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가 일어났었는데, 그야 물론 그 당시 유교사회에서 있음직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학자 어숙권이 율곡의 머리 깎지 않았던 것을 보고 그렇게도 기뻐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때 누이 매창이 율곡을 만나, “네가 돌아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네가 머리를 깎았느니 않았느니 하고 모든 사람들의 물의가 분분하니, 네가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과거를 보느라고 많은 선비들이 모였으니 네가 그리로 가서 거기서 머리에 빗질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친히 보고 온갖 의심이 저절로 풀어질 것 아니겠느냐.”하고 빗집을 싸서 보내주니 율곡도 누이의 말씀대로 과거 장소에서 머리를 빗어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정홍명(鄭弘溟)의 『기암잡록(畸菴雜錄)』에 실려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아 율곡이 한때 금강산을 찾아 들어가 불경도 읽고 사색도 한 것은 물론이나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불교에 귀의하려 했거나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만 그의 말대로 외형은 비록 변하지 않았지만 한때 불교의 학설에 심취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만큼 속세의 모든 것을 끊어 버리고라도 생사의 진리를 찾기에 용감할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율곡은 왜 돌아왔던가

율곡이 무슨 동기였는지 간에 한 번 입산한 것이니, 거기 들어가 온갖 회의를 돌파해 가며 진리를 탐구하기에 스스로 온 정력을 기울였을 것만은 물을 것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러한 율곡이 1년 뒤에 다시 속세로 돌아온 것에는 또 다른 어떤 깨우침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율곡집의 기록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일찍이 깊은 곳에 이르러 고요히 앉아 생각에 잠겨서 자고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지 오래더니 어느날은 문득 ‘불교에서 그 신도들에게 생각을 더했다, 덜했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마침내 그는 그같이 경계하는 뜻을 깨달아 냈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불교란 것이 다른 무슨 기묘한 이치가 아니요, 다만 마음 달아나는 길을 끊어 막고 정신을 모아 고요함이 극한 허명(虛明)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짐짓 어떤 문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것도 사람들이 그 뜻을 미리 알고 나면 공부를 정성스레 하지 않아 마침내 아무런 얻음도 없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금단해 놓고 속인다는 것이다.

율곡은 불교에 대해서 그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법이 그릇된 것이라고 의심한 나머지 다시 유교 성현들의 글을 복습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학설이 참되어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닌 것을 깨달아 알고서 짐을 꾸려 다시 속세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제자 이유경(李有慶)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현의 서적이란 『논어(論語)』였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의 금강산 시대의 작품

율곡이 금강산을 향하여 집을 떠나면서부터 쓴 시들은 「동대문 밖으로 나가며[出東門]」을 비롯해서 가는 도중에서 지은 것, 보개산(寶蓋山)을 바라보며 지은 것, 산 속에서 살면서 지은 것, 만폭동(萬瀑洞)을 노래한 것, 금강산에서 본 것들을 노래한 것, 송나암(松蘿菴)에서 노래한 것, 구정봉(九井峰)에 올라 해돋이를 노래한 것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이름난 것은 어떤 작은 암자에서 늙은 중과 문답한 다음 ‘술개 날고 고기 뛰는 경지’⁵⁸에 대해서 읊은 시이다. 하기에 여기에서 율곡과 늙은 중과의 문답 및 그 시를 소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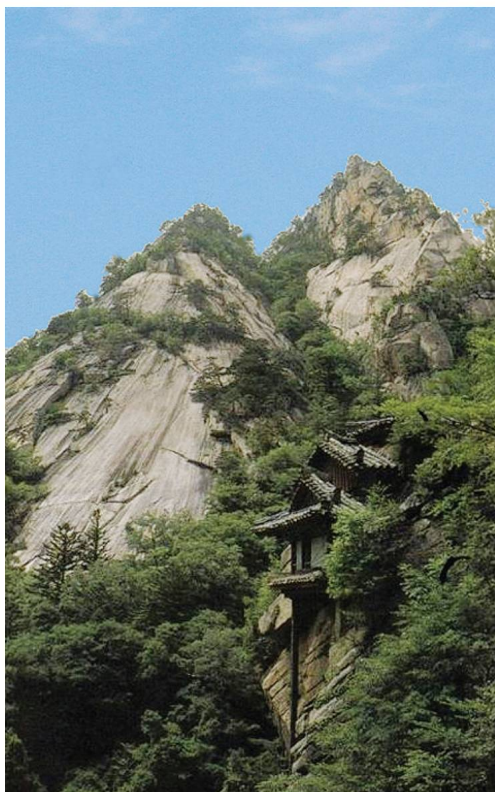
◆ 금강산에서 작은 암자에 있는 늙은 중에게 준다[서문 덧붙임]

楓岳贈小菴老僧并序

여지유풍악야 일일독보심동중 수리허 득일암유노승피가사절좌
余之遊楓岳也 一日獨步深洞中 數里許 得一菴有老僧被袈裟正坐
견아불기역무일어주시암중 료무타물 주불휘유일의 여문왈재차하위
見我不起 亦無一語 周視菴中 了無他物 厨不炊有日矣 余問曰在此何爲
승소이부답 우문식하물이표기 승지승왈차아량야 여욕시기변문왈
僧笑而不答 又問食物以療飢 僧指松曰此我糧也 余欲試其辯問曰
공자석가수위성인 승왈조대막만노승 여왈부도시이각지교 불가시
孔子釋迦孰爲聖人 僧曰措大莫瞞老僧 余曰浮屠是夷狄之教 不可施
어중국 승왈승동이지인야 문왕서이지인야 차역이각야 여왈불가묘처
於中國 僧曰舜東夷之人也 文王西夷之人也 此亦夷狄耶 余曰 佛家妙處
불출오유 하필기유구석호 승왈유가역유즉심즉불지어호 여왈맹자도
不出吾儒 何必棄儒求釋乎 僧曰 儒家亦有卽心卽佛之語乎 余曰 孟子道
性善 言必稱堯舜 何異於卽心卽佛 但吾儒見得實 僧不肯良久 乃曰非色

58 옛날 『시경(詩經)』에 있는 시로서 만물이 모두 제 천성을 얻은 경지를 이르는 말이다.

비공하등어야 여왈차역전경야승신지 여내왈 연비려천 여약우연
 非空何等語也 余曰此亦前境也僧哂之 余乃曰 鳶飛戾天 魚躍于淵
 차즉색야공야 승왈 비색비공 시진여체야 기차시지즉비 여소왈
 此則色耶空耶 僧曰 非色非空 是真如體也 豈此詩之足比 余笑曰
 기우연설 번시경계하위체야 안연즉유가묘처불가언전 이불씨지
 既有言說 便是境界何謂體也 若然則儒家妙處不可言傳 而佛氏之
 도부채문자의야 승악연집아수왈 자비속유야 위아부시이석연어지구
 道不在文字外也 僧愕然執我手曰 子非俗儒也 爲我賦詩以釋鳶魚之句
 여내서일절 승탈후수입수중 전신험벽 여역출동 황연부지기하여인야
 余乃書一絕 僧覽後收入袖中 轉身向壁 余亦出洞 恍然不知其何如人也
 후삼일재왕 즉소암의구 승이거의
 後三日再往 則小菴依舊 僧已去矣



금강산의 암자

내가 금강산에서 놀며, 어느날 혼자서 깊은 골짜기를 몇 리쯤 걸어 들어가니 한 조그마한 암자가 있고, 거기에 늙은 중이 가사(袈裟)를 걸치고 정좌한 채 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고, 또 말도 한 마디 없는 것이었다. 그 암자 속을 두루 살펴보니 아무런 물건도 없고 부엌에는 불 땀 자취 없는 지 벌써 여러 날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여기서 무얼 하시오?”하고 물었으나 중은 웃을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묻기를, “무엇을 먹고 요기를 하시오?”하고 물었으나 중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저게 내 양식이지요.”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대답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물었다.

율곡 : “공자와 석사모니 중 어느 분이 성인이요?”

노승 : “선비는 노승을 놀리지 마요.”

율곡 : “불교는 오랑캐의 교법이니까 중국에는 시행할 것이 못 되겠지요?”

노승 : “순(舜) 임금은 동방 사람이고, 문왕(文王)은 서방 사람이니 그들도 역시 오랑캐요?”

율곡 : “불교의 오묘한 곳이라는 것도 우리 유교를 벗어날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유교를 버리고 불법을 구하는 것이요?”

노승 : “유교에도 ‘마음이 곧 부처니라’는 말이 있소?”

율곡 : “맹자(孟子)가 사람의 성품이 본래 착한 것임을 말하고, 말할 때 마다 반드시 요순(堯舜)을 일컫는 것이었으니, 그에게 ‘마음이 곧 부처니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요. 다만 우리 유교는 현실에서 찾아 얻는 것이요.”

그러나 중은 수궁하지 않고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노승 : “색(色)도 아니요, 공(空)도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소?”

율곡 : “그건 또한 눈앞에 있는 경계지요.”

율곡은 중이 빙그레 웃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하기를,

율곡 : “술개가 날아 하늘에 이르고 고기가 못 속에서 뛰노는 것이 색인가요? 공인가요?”

노승 :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본체 그것이니, 어찌 그런 시 구절을 가지고 비겨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율곡 : “이미 이름지어 말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은 벌써 현상 경계이겠는데, 어떻게 본체라고 하는 것이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유교의 오묘한 대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로써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불교의 이치도 글자 밖에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요.”

그러자 중은 놀라며 나의 손을 잡고,

노승 : “그대는 속된 선비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시 한 장을 써서 저 ‘술개가 날고 고기가 뛰다’라는 구절을 풀어주소요.”

하기에, 내가 절구 한 수를 써 주자 중은 그것을 받아 읽은 뒤에 소매 속에 접어 넣고 몸을 돌이켜 벽을 향하였기에 나는 그 골짜기를 벗어나 왔으나 어리둥절하여 미처 그가 어떤 이인지를 알지 못했다.

사흘이 지난 뒤에 다시 가 보았더니 작은 암자는 그대로 있는데 중은 벌써 떠나가고 없었다.

어약연비상하동 저반비색역비공
魚躍鳶飛上下同 這般非色亦非空

등환일소간심세 독립사양만목중
等閑一笑看身世 獨立斜陽萬木中

고기 뛰고 솔개 날며 위아래가 같은 이치, 그것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것.

뜻 없이 한 번 웃소 내 몸을 살펴보니, 깊은 숲 속 저녁 별 아래 홀로 섰구나.

율곡의 돌아온 뒤의 첫 결심

율곡이 19세에 불교를 연구해 보려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가 20세 되던 해 봄에 강릉 외조모 계신 곳으로 돌아 나와 「스스로 경계하는 글 [自警文]」을 지어 자기 수양의 조문(條文)을 삼았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널리 그것을 외우게 된 유명한 글이므로 여기에 그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스로 경계하는 글[自警文]

一, 先須大其志 以聖人爲準則 一毫不及聖人 則吾事未了

二, 心定者言寡 定心者寡言始

三, 時然後言 則言不得不簡

四, 久放之心 一朝收之得力 豈可容易 心是活物 定力未成 則搖動難安

若思慮紛擾時 作意厭惡欲絕之 則愈覺紛擾 倏起忽滅 似不由我
 假使斷絕 只此斷絕之念 橫在胸中 此亦妄念也 當於紛擾時 收斂
 精神 輕輕照管 勿與之俱往 用功之久 必有凝定之時 執事專一
 此亦定心功夫

五, 상이 계구근독의사 존저를중 열념불태 즉일체사념 자연불기
 五, 常以戒懼謹獨意思 存諸胸中 念念不怠 則一切邪念 自然不起

六, 만악개종발근독생
 六, 萬惡皆從不謹獨生

七, 근독연후 가지욕기열귀지의미
 七, 謹獨然後 可知浴沂詠歸之意味

八, 호기사조지소위지사 식후사주지소위지사 취침시사명일소위지사
 八, 曉起思朝之所爲之事 食後思晝之所爲之事 就寢時思明日所爲之事
 事 無事則放下 有事則必思得處置合宜之道然後讀書 讀書者求
 辨是非 施之行事也 若不省事 兀然讀書 則爲無用之學

九, 재리열리 수득소제기념 약처사시 유일호택편의지념 즉차역리
 九, 財利榮利 雖得掃除其念 若處事時 有一毫擇便宜之念 則此亦利
 心也 尤可省察

十, 범우사 지약가위지사 즉진심위지 불가유엄권지심 불가위지사
 十, 凡遇事 至若可爲之事 則盡誠爲之 不可有厭倦之心 不可爲之事
 則一切截斷 不可使是非交戰於胸中

十一, 상이행일불의 살일불고 득천하불위지의사 존저를중
 十一, 常以行一不義 殺一不辜 得天下不爲底意思 存諸胸中

十二, 횡역지래 자반이심심 이감화위기
 十二, 橫逆之來 自反而深省 以感化爲期

十三, 일가지인불화 지시심의미진
 十三, 一家之人不化 只是誠意未盡

十四, 비야면금질병 즉불가언와 불가파의 수중야무수사 즉불와
 十四, 非夜眠及疾病 則不可偃臥 不可跛倚 雖中夜無睡思 則不臥
 但不可拘迫 晝有睡思當喚醒此心 十分猛醒 眼皮若重 起而周步
 使之惺惺

용공불완불급 사이후이 약구속기효 즉차역리심 약불여차
十五, 用功不緩不急 死而後已 若求速其效 則此亦利心 若不如此

육육유체편미인자
戮辱遺體 使非人子

自警文
先須大其志以聖人爲準則一毫不及聖人則吾事未了
心定者言寬定心自寬言始
時然後言則言不得不簡
久放之心一朝收之得力豈可容易心是活物定力未成則搖動難安若思慮紛擾時作意厭惡欲絕之則愈覺紛擾倏起忽滅似不由我假使斷絕只此斷絕之念橫在胸中此亦妄念也當於紛擾時收斂精
栗谷全書 卷十四 四十一
神體輕靈勿與之俱往用功之久必有凝定之時執事專一此亦定心功夫
常以戒懼謹獨意思存諸胸中念念不怠則一切邪念自然不起
萬惡皆從不謹獨生
謹獨然後可知浴沂詠歸之意味
曉起思朝之所爲之事食後思晝之所爲之事就寢時思明日所爲之事無事則放下有事則必思得處置合宜之遺然後讀書讀書者求辨是非施之行事也若不省事兀然讀書則爲無用之學
財利榮利雖得埽除其念若處事時有一毫擇便宜之念則此亦利心也尤可省察
凡遇事至若可爲之事則盡誠爲之不可有厭倦之心不可爲之事則一切截斷不可使是非交戰於胸中
常以行一不義殺一不辜得天下不爲底意思存諸胸中
橫逆之來自反而深省以感化爲期
一家之人不化只是誠意未盡
非夜眠及疾病則不可偃臥不可跛倚雖中夜無睡思則不臥但不可拘迫若有睡思當喚醒此心十分猛醒眠皮若重起而周旋使之惺惺
栗谷全書 卷十四 四十一
用功不緩不急死而後已若求速其效則此亦利心若不如此戮辱遺體使非人子

「자경문」, 「율곡전서」 권14, 「잡지」

1. 먼저 그 뜻을 크게 가져 '성인'으로서 표준을 삼아 털끝만큼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 동안은 내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니라.
2.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말이 적다. 그러므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은 말이 적은 데서부터 비롯하느니라.
3. 말할 만한 때가 된 다음에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간략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4. 오래도록 놓아 버렸던 마음을 하루아침에 거두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느냐. 마음이란 산 것이라 안정된 힘이 이루어 지지 못하면 흔들려서 편안키 어려우니라. 만일 생각이 어지러울 적에 그것이 귀찮아 마음먹고 끊어 버리려고 한다면 점점 더 그 어지러운 생각이 반복되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음을 느끼리라. 설혹 그것을 끊어 버린다 하더라도 다만 그 끊어 버렸다는 생각이 가슴 속에 가로놓여 있다면 그 또한 허망한 생각이니라. 그러므로 마땅이

생각이 어지러울 때에 있어서는 정신을 가다듬어 가만가만 다룰 것이고, 그 생각에 끌려 다니지는 말지니라. 이같이 애쓰기를 오랫동안 하면 반드시 차분히 안정되는 때가 있을 것이니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전력해 한다면 그 또한 마음 안정시키는 공부가 되느니라.

5. 언제나 조심스레 경계하고 혼자 있을 때에 삼가하는 뜻을 가슴 속에 품은 채 시시각각 게으르지 않으면, 모든 사사로운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지 못하느니라.
6. 만 가지 악이 모두 다 혼자 있을 때에 삼가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느니라.
7. 혼자 있을 때 삼갈 줄 안 다음에야 참으로 저 자연을 사랑하며 즐길 수 있는 고상한 뜻을 알 수 있느니라.
8. 새벽에 일어나서는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밥을 먹은 뒤에는 낮에 할 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어서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할지니, 만일 일이 없으면 그만두려니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낸 다음에 글을 읽을지니라. 글을 읽는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해서 실천에 옮기려 하는 것이니, 만일 사물을 살피지 않고 글만 읽는다면 쓸데없는 학문이 되느니라.
9. 재물, 영예와 같은 것들은 설사 그 생각을 쓸어 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만일 일을 처리할 적에 털끝만큼이라도 편의한 것을 택할 생각을 가진다면 그 또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니 더욱 살펴야 할지니라.
10. 무릇 일을 만났을 때에 해야 할 일이니 정성껏 하되 싫증 내고 게을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안 해야 될 일이라면 딱 끊어 버려 가슴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이 서로 싸우게 하지는 말지니라.
11. 언제나 저 맹자에서 이른바, ‘한 가지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이를 죽이고서 천하를 얻는다해도 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가슴 속에 간질할지니라.

12. 황액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스스로 돌이켜 깊이 반성함으로써 저쪽을 감화하도록 할지니라.
13. 제 집안 사람들이 감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다만 성의가 모자라는 때문이니라.
14. 밤에 잘 때나 아픈 때가 아니면 눕지 않아야 하고 비스듬히 기대지도 말 것이며, 또 밤중일지라도 졸리는 생각이 없으면 눕지 말되, 다만 억지로 할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낮에 졸음이 오면 마땅히 정신을 차려 바짝 깨우칠 것이요, 그래도 눈꺼풀이 무겁거든 일어나서 두루 거닐어 깨도록 할지니라.
15. 공부에 힘쓰되 늦추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며, 죽은 뒤에야 그만둘 것이니 만일 그 효과가 빨리 나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니라. 만일 이같이 아니하면 어버이에게서 물려받은 몸뚱이를 욕되게 함이니 사람의 자식된 도리가 아니니라.

8. 율곡의 석담 생활

율곡이 해주로 내왕한 것과 석담에 휴양의 처소를 마련한 내력에 대해서 율곡 연보에 의하여 그것을 조사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35세 10월에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의 벼슬을 사임하고 해주(海州) 들마을(野頭村) 처가로 돌아가 쉬었는데, 한가한 걸음으로 해주에 간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인 것 같고, 이때 많은 제자들이 경향 각지로부터 그곳으로 모여 들었다.

그랬으나 석 달이 겨우 지나 다음해 36세 때 정월에 해주를 떠나 파주(坡州) 율곡리(栗谷里)로 왔다가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임명되었는데 부임치 않고, 여름에 다시 홍문관 교리로 취임하자 의정부(議政府) 검상사인(檢祥舍人),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등으로 옮겼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다시 해주로 내려가니 반년 만이었다.

그 때 어느날, 율곡은 여러 학자들과 함께 들마을에서 북으로 석담천(石潭川)을 끼고 올라가 있는, 고산면(高山面) 석담 아홉 굽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놀고 날이 저문 뒤에 돌아왔는데, 그 아홉 굽이 가운데서 넷째 굽이를 ‘송애(松崖)’라 이름짓고 그것의 기문을 지었으며, 나머지 여덟 굽이와 거기에 있는 암자들에까지 이름을 지어 표시하고 거기에 휴양의 처소를 마련할 것을 정했으니, 이것이 석담에 대한 첫 기록이다.

그러나 율곡은 한 달도 채 못 되어 6월에 청주(淸州) 목사가 되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다음해 37세 되던 해 3월에 부임 9개월 만에 청주 목사를 사임하고 돌아와서도 서울과 파주에 있었고 해주에는 가지 않았다. 다시 2년이 지난 뒤, 39세 되던 해 10월에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 갔다가 부임 6개월 만인 이듬해, 40세 때의 3월에 사임하고 도로 파주에 와 거했다.

그리고 다시 그 해가 지나고, 41세 되는 해 10월에 해주 석담으로 돌아가 먼저 청계당(廳溪堂)을 지으니 이것이 석담에 있어서의 첫 번째 시설이었다.

42세 되던 해 정월에는 형제 가족들을 모두 석담으로 불러 모아 거기에 사당을 짓고 정침(正寢)⁵⁹을 마련하고, 만형 선(璦)의 부인 곽씨(郭氏)에게 청해서 종가 신주를 모시고 오게 하여 제사를 맡게 했다. 형제가 모두 한 집에 지내게 되자 가족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안 헌법이 필요하였으므로 율곡은 「같이 살며 경계하는 글[同居戒辭]」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발표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 보름이면 자제들을 거느리고 사당에 참배하고 제사가 끝나면 모두 정침에 모였는데, 선생은 동편에 앉고 서모 권씨와 형수 곽씨 그리고 율곡의 부인들은 서쪽에 앉아서 아들, 조카, 며느리, 딸 들의 절을 받았다. 그리고는 자제 중의 한 사람에게 명령하여 「경계하는 글」을 읽게 한 뒤에 하인들과 계집종들은 뜰 아래 갈라 서서 절하게 하고 「경계하는 글」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타일러 주는 것으로써 예규를 삼았었다.

59 제사를 지내는 몸체의 방편집부

그리고 밖으로 출입할 때에는 먼저 사당에 가서 아뢰고, 이어 서모와 형수에게 아뢰고, 그 다음에 부인은 문안에서 인사하며 작별하고 소실은 중문에서, 자제들은 대문에서, 계집종들은 중문 안에서 맞고 보내고, 남자종들은 대문 밖에서 맞고 보내도록 했었다.

그 한 해 동안은 완전히 석담에서 보냈기에 율곡의 저술로 유명한 『격몽요결(擊蒙要訣)』도 바로 그해 12월에 이 석담에서 집필했던 것이다.



이이 | 격몽요결 擊蒙要訣

그 다음해 43세 때에는 계속해서 석담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지었다. 본래 이 석담 구곡은 해주 시내로부터 서쪽 40여 리쯤 되는 곳에 있는 곳인데 수양산(首陽山) 한 가닥이 서쪽으로 달려 선적봉(仙迹峰)이 되고, 봉의 서쪽 수십 리쯤에 진암산(眞岩山)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 나와 무릇 40여 리를 아홉 번이나 꺾여 마침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굽이마다 못물이 깊은데 우연히도 중국 주자(朱子)의 유적지인 무이(武夷) 구곡과 비슷하다 하여 옛 이름이 구곡이었다.

고산면 석담은 바로 그 다섯 번째 곡의 이름인데, 제자 박여룡(朴汝龍)



중국 주자의 유적지 무이정사

등에게 명하여 거기에다 정사(精舍)를 짓게 하고 저 무이산 대은병(大隱屏)의 뜻을 가져다가 ‘은병’으로서 정사 이름을 지으니 정사는 바로 앞서 지은 ‘청계당’의 동쪽이었다. 그리고 주자의 「도가(棹歌)」를 본떠서 저 유명한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지으니, 우리나라 국문학 중에서도 시 조사에 큰 자료가 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정사 뒤쪽에 사당을 지어 주벽에는 주자를 모시고 또 양편에는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퇴계(退溪) 이황(李滉) 두 분을 모시려고 경륜(經綸)⁶⁰했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했던 바, 선생이 돌아가신지 2년 뒤인 1586년에 문하생들이 사당을 짓고 위패를 받들어 선생의 뜻을 이루어 드렸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0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편집부)

이 은병정사가 바로 소현서원(紹賢書院)인데, 주자를 모시고 동서에 정암과 퇴계를 모신 지 11년 뒤(1596년)에 율곡 선생을 동쪽 제2위에 모셨고 그 뒤 14년 뒤에(1610년)에 서원에 사액(賜額)⁶¹했으며, 다시 51년 뒤(1661년)에 우계(牛溪) 성혼(成渾)을 서쪽 제2위에, 1717년에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서쪽 제3위에 모셨다가 1776년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서쪽 제3위에 모시면서 사계는 동쪽 제3위로 옮겨 모신 것이다.

이같이 석담은 역사적으로 몇 백년 동안 내려오며 율곡의 강학하던 정사가 그대로 명현들을 모시는 서원이 되어졌는데, 다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율곡이 고요히 수양하던 곳이자 온 가족이 즐거이 생활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 석담 생활 중에서는 특히 아우인 옥산(玉山) 이우(李瑀)와 우애 깊게 지낸 것을 본다. 송시열은 「옥산 묘지명(墓誌銘)」에, “율곡이 석담에서 지낸던 동안에 틈이 나면 반드시 술상을 차리고 아우 옥산을 시켜 거문고를 타게 하며 같이 시를 짓고 즐겼으니 과연 형제 간의 지기(知己)라 할 만 하다.”라고 하였다. 또 송시열의 「옥산시고서(玉山詩稿序)」에는, “매양 선생이 서모와 형수, 조카들과 같이 앉아 놀게 되면 늘 아우 옥산에게 명령하여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게 했는데, 그 청아한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즐겁고 화평해지게 했다.”한 것이 있고, 또 율곡이 늘 옥산을 칭찬해 말한 것을 적었는데, “계헌(季獻, 옥산의 자(字))의 기질은 나와 비할 바가 아니다.”하고 적은 것이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율곡은 석담 생활 중에서 한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아우 옥산과는 예술적 기질

61 금이 사당(祠堂), 서원, 누문(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편집부]

속에서 서로 공명하는 바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때문에 자기 자신도 구곡가를 짓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은병정사만을 이룩한 뒤에 그 해[43세] 3월에 대사간(大司諫)으로 임명되어 서울로 온 이후 석담 걸음이 잡지 못했고, 다만 45세 때에 잠깐 돌아가 있었음을 시 작품에서 알 수 있고 48세 되던 해 7월에 돌아가 잠깐 두어 달 동안 머무르고 9월에 이조판서의 임명을 받고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는 다시 가지 못하고 다음해에 세상을 떠났음을 본다.

그런데 이 고산구곡은 경치도 경치려니와 율곡의 정양처(靜養處)⁶²였기 때문에 후세에까지 이름이 높이 들렸던 것이다. 때문에 영조(英祖) 임금도 경진년(庚辰年, 1760) 1월 13일에 황해도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석담서원(石潭書院)과 율곡의 옛 거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정조(正祖) 임금도 신축년(辛丑年, 1781) 여름에 역시 황해도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고산구곡도를 그려 올리게 했는데, 그 그림은 저 유명한 최북(崔北)이 그린 것이었다.

그 때 최북은 구곡도 두 장을 그려 한 장은 정조 임금께 올려 보내고, 한 장은 석담 옛집에서 병풍으로 만들어 보관했었는데 한국전쟁 직후 당시 종손이 남쪽으로 내려오며 그것을 가져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남겨 두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뒤에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글씨로 ‘正宗大王聖諭[정종대왕의 거룩한 분부]’여섯 자를 가로로 쓰고, 그 아래 ‘展也文成 左海夫子 武夷石潭 千古二人[진실로 문성공 율곡은 해동의 공자요, 중국 무이산의 주인인 주자와 우리 석담의 주인 율곡은 천고의 두 분이다]’라는 뜻

62 몸과 마음을 안정하여 휴양하는 곳[편집부]

의 열여섯 자를 두 줄로 내리 써서 큰 비를 세우고 비각을 지었는데, 그 비각의 이름을 ‘천조각(天操閣)’이라 했다. ‘展也文成 左海夫子’라는 문구는 정조 13년(1789) 2월 15일에 정조대왕이 승지(承旨) 한만유(韓晩裕)를 율곡 묘소로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며 내린 어제 제문 속에 있는 문구이고, ‘武夷石潭 千古二人’이라는 문구는 그 뒤 정조 19년(1795)에 화성성묘(華城聖廟) 서무(西廡)에 선생의 위패를 모시며 내린 어제 고유문(告由文)⁶³에 있는 문구인 것을 붙여 써 둔 것이다.

율곡의 고산구곡가 高山九曲歌

고산구곡담 세인미증지 / 주모래복거 불우개회지
高山九曲潭 世人未曾知 / 誅茅來卜居 朋友皆會之
무이임상상 소원학주자
武夷仍想像 所願學朱子

일곡하처시 관암일색조 / 평무연렵후 원산진여화
一曲何處是 冠巖日色照 / 平蕪煙斂後 遠山眞如畫
송간치녹증 연저우인래
松間置錄樽 延佇友人來

이곡하처시 화암춘경만 / 벽파범산화 야외류출거
二曲何處是 花巖春景晚 / 碧波泛山花 野外流出去
승지인부지 사인지여하
勝地人不知 使人知如何

삼곡하처시 휘병엽이부 / 녹수유산조 상하기음시
三曲何處是 翠屏葉已敷 / 綠樹有山鳥 上下其音時
반송수청풍 돈무하열열
盤松受清風 頓無夏炎熱

63 중대한 일을 치른 위에 그 내용을 적어서 사당이나 신명에게 알리는 글(편집부)

사곡하처시 송애일서침 / 담심암영도 색색개잠지
四曲何處是 松崖日西沈 / 潭心巖影倒 色色皆蘸之
임천심경호 유흥자난승
林泉深更好 遺興自難勝

오곡하처시 은병회호간 / 수변정사재 소쇄의무극
五曲何處是 隱屏最好看 / 水邊精舍在 瀟灑意無極
개중상강학 영월차음릉
箇中常講學 詠月且吟諷

육곡하처시 조계수변각 / 부지인여어 기락속위다
六曲何處是 釣溪水邊閣 / 不知人與魚 其樂孰爲多
황혼하죽간 요차대월귀
黃昏荷竹竿 聊且帶月歸

칠곡하처시 풍암추색선 / 청상박언타 절벽진금수
七曲何處是 楓巖秋色鮮 / 淸霜薄言打 絕壁眞錦繡
한암독좌시 요역차망가
寒巖獨坐時 聊亦且忘家

팔곡하처시 금란월정명 / 옥진여금휘 요주수삼곡
八曲何處是 琴灘月正明 / 玉軫與金徽 聊奏數三曲
고조무지자 하방독자락
古調無知者 何妨獨自樂

구곡하처시 문산세모시 / 기암여괴석 설리매기형
九曲何處是 文山歲暮時 / 奇巖與怪石 雪裏埋其形
유인자불래 만위무가결
遊人自不來 漫謂無佳境

고산의 아홉 굽이 못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네.
플을 베고 와 사노라니 친구들이 모두 모여드네.
이곳에 살아보니 무이산이 생각나 주자의 학문 배우고 싶네.

첫째 곡은 어디인가 관암에 햇빛 비치도다.
편편한 풀밭에 연기 걷힌 뒤 먼 산은 정말 그림 같도다.
소나무 사이에 술잔 차리고 우두커니 서서 친구를 기다린다.

둘째 곡은 어디인가 화암에 봄이 저무누나.
푸른 물결에 꽃잎 떠 들 밖으로 흘러간다.
이 좋은 곳 남들이 모르는데 이 꽃잎으로 남들이 알면 어쩌나

셋째 곡은 어디인가 취병에 벌써 나뭇잎 피었구나.
푸른 나무에 산새 놀고 위아래로 산새소리
소나무에 부는 맑은 바람 여름의 더운 열기 조금도 모르겠다.

넷째 곡은 어디인가 송애에 해 넘어 가는구나.
못 가운데 바위 그림자 거꾸로 비쳐 색색이 다 물 속에 보인다.
숲 속 샘은 깊을수록 좋아 그윽한 흥을 이기기 어렵도다.

다섯째 곡은 어디인가 은병이 가장 보기 좋구나.
물가에 정자 있어 깨끗하기 그지없다
그 속에서 항상 배우고 달을 읊고 시를 읊는다.

여섯째 곡은 어디인가 조계에 누각 있도다.
모르겠구나, 사람과 물고기 어느 것이 더 즐거운지
황혼에 뉘싯대 메고 오로지 달빛 아래 돌아온다.

일곱째 곡은 어디인가 풍암에 가을빛이 선명하구나.
맑은서리 살짝 스쳐가니 절벽이 정말 수놓은 비단이네
찬 바위에 홀로 앉으니 오로지 집으로 돌아갈 일 잊었다.

여덟 째 곡은 어디인가 금탄에 달 밝도다.
옥 거문고와 금 거문고로 두 서네 곡을 연주한다.
옛 곡조 아는 이 없으니 혼자 즐긴들 무슨 관제리오.

아홉 째 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한해가 가는구나.
 기암과 괴석이 설리 속에 묻혔으니
 구경꾼들 오지 않고 공연히 좋은 경치 없다 하네.



고산구곡병풍

9. 율곡의 일화

율곡과 가난

우리 역사상에 청빈한 관리(清白吏(청백리))의 이야기가 많이 전하며, 또 그것을 하나의 미담으로 여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율곡 선생은 워낙 도학으로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가난했었는지에 대한 것쯤은 그다지 중대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율곡의 생활이 가난했던 이야기는 일찍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의 청빈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반찬 없는 밥⁶⁴

율곡이 대제학 벼슬을 사양하고 잠깐 파주(坡州)로 물러나 있을 무렵이었다. 어느날 당시 부제학이던 최황(崔晃)이란 이가 율곡을 방문하여 점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에 최황은 젓가락을 들고 머뭇거리기만 하다 말고 마침내 한 마디 했다.

64 출처 : 최준(崔濬) 「창랑우언(滄浪寓言)」

“이렇게 곤궁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반찬도 없이 진지를 잡숫는
대서야... 소생이 참으로 민망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율곡은 웃으며,

“나중에 해가 지고 난 뒤에 먹으면 맛이 있느니.”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우리 속담에 있는 ‘시장이 반찬이
다’라는 말 그대로였던 것이다. 뒷날 최황은 이 날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
겨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청백리로 후세에 남는다.

쌀 선물을 받지 않음⁶⁵

율곡이 해주 석담에서 살 때였다. 언제나 점심에는 밥을 먹지 않았다.
양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죽도 끓이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이것을 안 재
령(載寧) 군수가 선생에게 쌀을 보내 드렸다. 더구나 그 군수는 최립(崔
笠)이라는 사람으로, 율곡의 어릴 적 친구였다.

그러나 율곡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자제들은 양식이 끊어졌던 차에
어디서 쌀 선물이 들어오므로 대단히 반가웠는데, 율곡은 두말도 없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자제들이 이상히 여기며 물으니 선생은, “국법
에 장물(贓物)을 주고 받는 죄는 아주 엄격한 것이다. 우리나라 수령들이
나라 곡식 아닌 다음에야 따로 무슨 곡식이 있을 것이냐. 수령들이라 할
지라도 제 개인의 곡식을 주는 다음에야 어찌 안 받을 것이 있겠나만, 내

65 출처 : 『율곡전서』 권38, 「잡록」 중

가 군수의 봉록을 아는데 그는 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웅당 나라 곡식을 보내주는 것일테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대로 시장한 채 견디며 사는 것이지.”하는 것이었다.

율곡과 대장간

율곡이 해주에서 살던 동안의 일이었다. 대장간을 차려 가지고 호미를 만들어 그것을 팔아서 양식을 사 먹었다. 이것에 대해서 뒷날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선생은 최유해(崔有海)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근세에 와서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선생이 여주(驪州)에 물러나 있을 적에 친히 추수를 거두러 다니며 마당에 한 알이라도 흘리지 못하게 하며, 이게 모두 하늘이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도 해주에서 대장간을 일으켜서 호미를 만들어 팔아 그것으로 양식을 바꾸었던 것이니, 이 같이 의에 해당하는 일은 큰 인물도 그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았던 것인가 생각합니다.”하고 써 보낸 것이 있다.

또 다른 기록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율곡이 해주에서 대장간을 차린 연유는 당시 농민들의 농사에 절대 필요한 농기구가 부족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다는 말도 있다. 즉 율곡 선생이 이르기를, “농자(農者)는 천하의 근본이라, 농민이 농사를 잘 지어야 백성이 배불리 먹을 것이요, 세곡도 풍족하여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질 것이거니와 변방을 지킬 병졸을 양성하는 데에도 근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장인(匠人)을 천시하니 이들이 면천(免賤)을 하고자 생거지(生居地)를 떠나고 농기구를 만들지 않으니 농민들이 무엇으로 농사에 힘을 쓰겠는가. 나라도 농기구를 만들어 힘을 보태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소고기를 먹지 않음⁶⁶

율곡 선생은 평소에 소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는 평소에, “국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소를 부려서 실컷 그 힘을 뽑아 먹고, 그 고기마저 씹는다는 것은 결코 어질다 할 수 없는 일이다.”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마침 조정에서 ‘소고기 못 먹게 금하는 법령’을 내리자 율곡은 득의한 듯이, “국법으로까지 이같이 금하는 일이니 더욱 범해서는 안 된다.”라 하고 그로부터는 비록 제사라 할지라도 소고기는 쓰지 않았다.

집을 팔아 형제와 나눔⁶⁷

율곡은 자기만이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가 다 가난했던 모양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율곡이 가장 나은 편일 것은 사실인데, 그나마도 처가 덕택을 상당히 보았던 것 같다. 장인되는 노경린(盧慶麟)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사서 율곡에게 준 것이 있었는데 율곡은 형제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아 끼니를 못 이어가는 형편임을 보고 자기가 그 집을 지니고 태연히 있을 수 없어 마침내 그 집을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베를 사서 골고루 분배한 일이 있었다. 서울에 집 한 채가 없었으며, 그러기에 오히려 모든 형제가 먹건 굶건 같이 사는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죽도 끓이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66 출처 : 『율곡별집』 권3

67 출처 : 조익(趙翼)의 『포저집(浦渚集)』

율곡의 별세와 가난⁶⁸

선생 같이 생전에 일국을 잡아 흔드는 높은 명성을 가진 큰 인물로서 가정생활이 그리 군색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나라를 위하는 생각뿐, 집안 일에는 머리를 쓰지 않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가난했던 가정 형편은 율곡이 별세하던 날 여실히 나타났다. 선생이 별세한 뒤에 당장 집안에는 모아 놓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옷도 마련해 놓은 것이 없어서 다른 이의 수의를 빌려 와서 염습을 했고, 또 그 뒤에는 처자들이 집이 없어 이리저리 이사 다녀 의지할 곳이 없었으며, 열고 주림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을 보고 친구들과 유림의 선비들이 돈을 모아서 율곡의 처자들을 위하여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해 준 일이 있었다.

율곡과 꿈

율곡에게는 처음 태어날 적부터 마지막 별세하는 때까지 꿈 이야기가 많이 전한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꿈으로써 정조를 먼저 보임이었던지도 모른다.

율곡을 잉태하던 때의 꿈

어머니 사임당이 율곡을 잉태할 때에 꿈에 동해에 이르렀더니 한 선녀가 있어 바다 속으로부터 살빛이 백옥같이 흰 옥동자 하나를 안고 나와 부인의 품에 안겨 주는 것이었다. 이런 꿈을 꾸고 율곡을 잉태하였다는

68 출처 : 이정귀(李廷龜)의 「율곡 선생 시장(謚狀)」



오죽헌 몽룡실

것인데, 그 때 율곡의 어머니가 어디에서 살았던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현재까지 그 집안에서나, 또 그 고장에서 전하기로는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봉평면(蓬坪面) 백옥포리(白玉浦里)라는 것에서 살았었고, 그 곳에서 율곡을 잉태했다는 것이다.

율곡을 낳을 때의 꿈⁶⁹

율곡은 음력 12월 26일 새벽 인시(寅時, 현재의 오전 4시 전후)에 강릉(江陵) 북평(北坪) 외가인 오죽헌(烏竹軒)에서 태어났는데, 이 날 밤에도 어머니 사임당의 꿈에 어디서 난데없는 검은 용이 동해 바다로부터 날아 오더니 사임당의 자는 방 처마밑 문머리에 서려 있는 것이었다. 그 꿈에서 깨어나자 곧 율곡을 낳았으므로 아기 이름을 ‘현룡(見龍)’이라 불렀고, 그 방을 ‘몽룡실(夢龍室, 용꿈을 꾸는 방)’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이다.

69 출처 : 「율곡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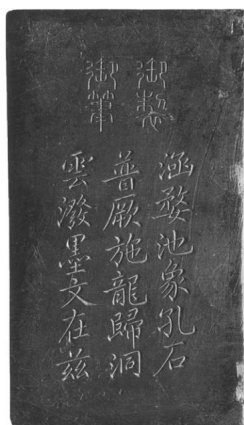
율곡의 어린 때의 꿈

율곡 자신이 어릴 적에 꾸 이상한 꿈이 있었는데, 꿈에 하느님을 뵈었더니 금 글자로 쓴 첩지 하나를 주는데, 열어보니 거기에는 이상한 시가 적혀 있었다.

용 귀 호 동 천 유 습 용은 새벽 동천(洞天)으로 돌아갔건만 구름은 오히려
 龍歸曉洞雲猶濕 젖어 있고,
 사 과 춘 산 초 자 향 사향노루가 봄 산을 지나가니 풀이 저절로 향기롭다.
 麝過春山草自香

율곡이 꿈에 얻은 이 시가 무엇을 말함인지는 알 길이 없었는데, 뒷날 율곡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야 모두들 그것이 바로 율곡을 가리킴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용이 돌아간다’와 ‘사향노루가 지나간다’는 것은 모두 율곡의 죽음을 뜻하고, ‘구름이 젖었다’와 ‘풀이 향기롭다’는 것들은 역시 율곡의 끼친 업적이나 명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율곡의 벼루와 정조 임금의 친필

율곡이 어려서 쓰던 벼루가 지금 강릉 오죽헌에 그대로 전하는데, 더구나 그 벼루 밑바닥에는 뒷날 정조(正祖) 임금이 친히 노래를 짓고, 또 친히 글씨를 써서 새겨 놓은 것이 있다. 그 글귀 속에 옛날 율곡이 꿈에 얻은 시 구절을 인용하기까지 했음을 볼 수 있다.⁷⁰

율곡이 별세할 때 부인의 꿈⁷¹

큰 인물이 날 때에 꿈이 있었으니 어찌 세상을 마지막 떠날 적에 꿈이 없을 것인가. 율곡은 음력 1월 16일 한창 추울 적에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그 전날 밤 부인 노씨의 꿈에 검은 용이 율곡의 침방에서 나와 하늘로 날아 올라가더라는 것이다.

율곡의 인품과 성격

대사헌 율곡과 어떤 모녀⁷²

율곡이 46세 때의 일이었다. 6월에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취임 첫무렵에, “도헌(都憲, 대사헌)이란 나라의 중요한 직임으로서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데 그 책임이 있다.”하고서 옛글에 자기 의견을 보태어 풍속 바로잡는 행동강령 50여 가지를 써서 길거리에 내다 붙였다.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읽고 외우게 함으로써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스스로 기강을 범하는 이가 없도록 하려 했던 것이다.

70 출처 : 『율곡별집』 권3

71 출처 : 『율곡연보』

72 출처 : 『율곡연보』

물론 그 내용은 유교의 오륜(五倫) 조항을 기조로 한 것이었는데, 처음 범한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고, 두 번째 범하는 사람에게는 명령하며, 세 번째 범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어른이 부임한 뒤로는 모든 관청에서 부정한 일이 모두 없어졌고, 또 길 갈 때에도 서로 공경하며 인사들을 정중히 한다.”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어떤 노파가 자기 딸이 불효한다고 고소한 일이 있었다. 이때 율곡은 두 모녀를 한꺼번에 불러 놓고, “나같은 사람이 도현이 되었기 때문에 풍속이 이같이 더러워졌나보다.”하고, 인륜이 어떻게나 중한 것인가 예(例)를 들어 자세히 타이르자 그들은 너무도 감격해서 같이 붙들고 울면서 서로 뉘우치고 돌아가 옛날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녀가 되었다.

율곡의 손님 접견⁷³

율곡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일국의 재상, 명사, 선비, 심지어는 취직을 청하는 이들까지 겹쳐서 어떻게나 방문객이 많은지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밤이 깊어서야 겨우 저녁밥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을 본 아우 옥산(玉山)이 형님의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사람 접견하는 것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말하자 율곡은, “만일 손님 접견하는 것을 꺼리기로 본다면 아예 저 석담(石潭)같은 곳에서 그대로 옯드려 살 일이지, 서울에 와서 벼슬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이제 이조판서로서 인물을 전형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남을 만나보고 저울질한 다음에

73 출처 : 『율곡전서』 권38 「부록」

야 쓸 것 아니냐. 이 자리는 손님 싫어하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자리니라. 또 과거 보는 사람은 결국 벼슬 구하는 사람인데, 벼슬 구하는 사람을 안 만나 보기로 한다면 본래 아무도 안 만나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괴롭더라도 그 사람을 친히 만나 보고 난 다음에 그 재주를 따라 각각 그 자리에 써야 할 것이니 백명이 와도 다 만나 봐야하는 것이다.”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낱날이 잡책에 적어 놓고 참고하는 것이었고, 혹시는 그 이름들을 창가에 써 붙여 좋고 전형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울곡은 소곤거리는 일이 없었다⁷⁴

홍귀상(洪龜祥), 홍치상(洪致祥) 형제는 울곡에게 친척도 되고 문하생이기도 했다. 그들이 평소 증언한 바에 의하면,

우리 형제가 어려서부터 울곡 선생을 모시고 그 아래에서 글을 배우고 자랐지만 평소에 한 번도 남과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언제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일에 처하고 마음 가지는 것을 마땅히 저 청천백일(靑天白日)같이 해서 누구나 환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셨던만큼 과연 표리가 같은 분이었다.

는 것이다.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⁷⁵

울곡의 서모 쪽에 딸린 나이 어린 소년 하나가 집에 와서 늘 놀고 있었

74 출처 : 『울곡별집』 권4

75 출처 : 『울곡전서』 권38 「부록」

다. 그가 어느날 율곡의 서재 안에 있는 무슨 귀중한 물건 하나를 훔쳐 간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율곡의 자제들이 그를 당장에 내쫓아 버리고 말았다.

열흘 쯤 지나서 율곡이 그 소년을 다시 불러와서 옛날대로 대접해 주는 것을 본 자제들이 어찌서 그 따위 도둑질하는 놈을 다시 불러 들인 것인지 그 연유를 물으니 율곡이 이르기를, “그 동안 제 잘못을 회개했을 것이다. 사람을 영영 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하니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진심으로 감복했다.

글을 열 줄씩 읽던 율곡

율곡과 우계(牛溪) 성혼(成渾)이 서로 대화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우계: “나는 책을 읽을 때 일곱 여덟 줄썸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소.”

율곡: “나도 한꺼번에 저우 여나무 줄밖에는 못 읽소.”

샘물 근수

율곡이 금강산으로 들어가 스님들과 같이 오가며 불교를 연구해 보려던 때의 이야기이다. 어느날 산 속 청冽(淸冽)한 샘물 가에서, “대개 맑은 물이란 근수(斤數)가 무겁게 나가고, 굵은 물은 보기에는 흐리터분해서 무거워 보이지만 실상은 맑은 물보다 근수가 덜 나가는 것이다.”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때 그와 함께 다니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일학(一學)이라는 스님이 뒷날 오대산(五臺山)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옛날 이야기 삼아 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과연 그의 말대로였다고 한다.

율곡과 풍랑⁷⁶

율곡이 어느 때 우계와 함께 화석정(花石亭) 아래에서 배를 띄우고 선유(船遊)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와서 배가 심히 요동하며 풍랑이 일어 뱃전을 치는데, 율곡은 태연히 앉아 시상에 잠겨 있는 듯 했다.

우계는 몹시 겁을 내며 율곡을 향해서, “어떻게 급한 때는 급한 대로 처변하는 방도를 써야 할 것 아니오.”하자 율곡은 웃으며, “우리 두 사람이 어찌 물에 빠져 죽기야 하겠소.”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풍랑도 잔잔해졌다.

율곡과 화석정

파주 임진강 가에 있는 화석정(花石亭)은 본래 율곡의 5대조가 세운 정자로서 율곡이 일찍 8세 때에 이 정자에 올라 시를 짓기까지 한 정자이다.

그런데 화석정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율곡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앞으로 그같은 전쟁이 있어 임금이 장차 북으로 피난갈 것까지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평소부터 이 정자에 밤낮없이 기름을 먹여서 어떠한 폭우 속에서도 잘 타도록 해 두었는데, 실제로 크게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다.

76 출처 : 윤선거(尹宣舉)의 「노서기문(魯西記聞)」



화석정花石亭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해 4월 30일에 임금이 도성을 벗어나서 북으로 의주를 향해 갈 때에, 비는 쏟아지고 날은 어두워져 임진강을 건널 길이 없던 차에 율곡이 일찍부터 이러한 일을 예상하고 미리 화석정 기둥마다 기름을 먹여 두었다가 거기에 불을 지르면 그 불빛으로 강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을 듣고 화석정에다 불을 질러 그 불빛으로 앞길을 찾아 고생을 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석정이 당시 그 때문에 불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만큼 율곡이 10년 뒤에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처럼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율곡이 더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만큼 율곡을

예언자로까지 높이 받들려고 하는 후인들의 심리에서 만들어진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인즉, 그 당시 임금을 모시고 가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그의 『징비록(懲毖錄)』 권1에 적어 놓은 기록에 이런 것이 있다.

기 도 이 향 혼 불 능 변 색 임 진 남 룡 구 유 승 찰 공 직 취 재 목 부 벌 이 재
 … 旣渡 已向昏 不能辨色 臨津南麓 舊有丞廳 恐賊取財木 桴筏以濟

명 불 지 화 광 조 강 북 득 심 로 이 행
 命焚之 火光照江北 得尋路而行

… 나루를 건너서니 이미 날이 어두워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 임진강 남 쪽 기슭에 옛 승청(丞廳)이 있는데, 혹시 왜적이 그곳에 있는 재목을 가지고 뗏목을 매어 건너올까 해서 임금의 명령으로 불을 태우니 그 불빛이 강 북쪽에까지 비치어 길을 찾아 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선조 수정실록』 권26,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권1 등 여러 기록에도 똑같은 기사들이 적혀 있다. 따라서 불태운 것은 화석정이 아니고 나룻가에 있던 옛 승청이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실제 지형상으로도 동파(東坡)로 건너가는 임진강 나루터와 율곡리에 있는 화석정과는 서로 떨어져 있어 상관 없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율곡을 그만큼 숭배했다는 증거가 되는 이야기일 뿐 사실은 아닌 것임을 알아 두는 것도 좋은 지식이 될 것이다.

율곡과 송귀봉

율곡의 친구 중에 귀봉(龜峰) 송익필(宋翼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우리 역사상에서 이른바 지체가 낮은 사람이라 사회적으로 활약하지 못하긴 했으나 학문과 인격이 탁월하여 높은 칭찬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서고청(徐孤靑)은 학자들에게, “너희들이 만일 제갈량(諸葛亮)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거든 송귀봉을 보아라. 그가 바로 제갈량같은 인물이니라.”했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어서 율곡도 늘 그의 앞에서는 몸을 삼갔다는 것이다. 송귀봉 또한 율곡의 ‘서자 허통’에 대한 사상 때문에 율곡을 뛰어난 혁명적 정신의 소유자라고 해서 무척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다.

어느날, 송귀봉이 혼인을 청하자 율곡은 그에게, “벗은 옳으나 혼인은 어렵다.”라 하니 송귀봉은 혼인에 대하여 거절을 당하고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율곡도 역시 속인을 못 면했군.”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율곡으로서도 항상 인륜의 근본을 따져서 적자와 서자의 구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왔던 만큼 죽히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국법과 국속이 정식으로 고쳐지기 전에는 역시 어떤 혼란을 가져올 것을 생각하고 실행으로까지는 옮기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율곡의 죽음과 도인들의 기도⁷⁷

율곡이 49세 되는 해(1584) 정월 16일 새벽에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그 전 보름날 밤이었다. 서울 어떤 선비가 강릉 지방으로 여행하는 길이었는데, 해는 어두워지고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는데 어떤 나무꾼에게 길을 물었더니 이 언덕을 넘어가면 어떤 양반의 집이 하나 있으니 거기 가서 쉬고 가라는 것이었다.

선비는 나무꾼의 말대로 그 언덕을 넘어갔더니 과연 거기에는 집 한 채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외딴 집이었다. 문을 두드렸더니 동자가 나와 선비와 문답한 뒤에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77 출처 : 이원명(李源命)의 『동야취집(東野集)』

후에 도로 나와 선비를 들어오라고 했다.

선비가 안으로 들어갔더니 방에는 어떤 노인이 다 떨어진 의관을 바로잡으며, “오늘 밤에 무슨 긴요한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밤중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부득이 손님を 머물게 할 수밖에 없소. 그런 줄 알고 얼마 뒤에 이 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지 손님은 입 한 번 떼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시오.”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참으로 이상한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었다.

이윽고 어떤 스님 한 분과 또 다른 촌학구(村學究) 한 분, 두 사람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세 사람이 만나 역시 서로 말 한 마디 나누지 않고, 다만 주인이 동자를 시켜 정화수 맑은 물을 한 그릇을 떠 오게하여 소반 위에 놓고 서로 둘러앉아 무엇인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마 한 시간 동안이나 주문을 외우며 정성을 바친 뒤에 주인이 다시 동자를 밖으로 내보내 하늘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있는지 지켜보게 할 따름이었다. 잠시후 동자가 들어오더니, “이제 막 동쪽에 있는 큰 별 하나가 빛을 내면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하고 보고하자 세 사람은 서로 놀라 탄식하며, “천수(天壽)가 다한 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군.”하더니 두 사람은 실색한 얼굴로 일어서 어디론지 가 버리고 주인도 슬픈 생각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다. 손님은 비로소 주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주인은 그제야 손님을 향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에 계신 율곡 선생을 위해서 다만 몇 달, 몇 해나마 수(壽)를 연장시켜 보려고 경문을 읽고 기도를 올린 것이나 별이 떨어지고야 말았으니 이 시각에 아마 서울에서는 율곡 선생이 세상을 떠나셨을 것이오.”하는 것이었다. 주인과 촌학구가 누구였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그 스님은 금단대사(黔丹大師)였던 것이다.

선비는 하루밤 동안 참으로 이상한 집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 이상한 광경을 구경하고 서울로 돌아왔더니, 과연 그 날 16일 새벽에 율곡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율곡전서栗谷全書

조선 중기의 학자 율곡(栗谷) 이이(李珣)의 전집. [본문] 목판본 44권38책

사임당 연보

년도	나이	내용
연산(燕山) 10년 1504(甲子)	1세	▶ 10월 29일[음력]에 강원도 강릉 북평촌의 어머니 이(李)씨의 친정에서 출생. 아버지 평산(平山) 신(申)씨 명화(命和)공[당시 29세]의 아들없는 다섯 딸 중의 둘째 딸이다.
중종(中宗) 5년 1510(庚午)	7세	▶ 아버지 신명화공의 집은 한성(漢城)이나 어머니 이씨의 친정은 강릉 북평촌으로 어머니가 외조부 생원(生員) 이사온(李思溫)과 외조모 최(崔)씨 사이에서 난 무남독녀라 어머니는 항상 친정 부모를 모시고 강릉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임당도 어려서 늘 어머니의 친정인 북평촌에서 살며 외조부의 교훈과 어머니의 훈도(薰陶) 아래서 자란다. ※ 훈도 : 덕으로써 사람의 품성이나 도덕 등을 가르치고 길러 선(善)으로 나아가게 함 ▶ 안견(安堅)의 화풍을 본받아 산수 · 포도 · 풀벌레 등 여러 가지 그림을 공부하기 시작하다.
중종 11년 1516(丙子)	13세	▶ 부친 신명화공[당시 41세]이 한성에서 진사(進士) 시험에 오르다.
중종 14년 1519(己卯)	16세	▶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 조정암(趙靜菴)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화를 당했을 때 부친 신명화공은 그들의 동지였으나 다행히 화를 당하지는 않았다.
중종 16년 1521(辛巳)	18세	▶ 강릉 북평에서 외조모 최씨 별세 ▶ 부친 신명화공이 한성으로부터 강릉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병을 얻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절망했는데 어머니 이씨가 조상의 무덤 앞에 가서 손가락을 끊어 지성껏 기도했더니 이튿날 아침 사임당의 꿈에 신(神)이 하늘로부터 대추만한 약을 가지고 내려와서 신명화공에게 먹이는 일이 있자 부친의 병환이 나아졌다. ※ 훗날 이 일을 율곡이 「이씨감천기(李氏感天記)」를 썼다.
중종 17년 1522(壬午)	19세	▶ 덕수(德水) 이씨 원수(元秀)공[당시 22세]에게 출가 ▶ 출가하고도 그대로 친정에 머물러 있던 중 11월 7일에 친정아버지가 서울 본가에서 별세
중종 19년 1524(甲申)	21세	▶ 한성에서 시어머니 홍(洪)씨 부인에게 신혼례를 드린다. ▶ 9월에 한성에서 첫째 아들 선(璡)을 출산 ▶ 이로부터 10여 년 동안 파주(坡州), 강릉, 북평으로 옮겨 다니다.

년도	나이	내용
중종 23년 1528년(戊子)	25세	▶ 강릉 친정어머니 이씨의 열년 정각(旌閤)이 서다.
중종 24년 1529년(己丑)	26세	▶ 첫째 딸 매창(梅窓) 출산
연도 미상		▶ 둘째 아들 번(蕃) 출산
연도 미상		▶ 둘째 딸 출산
중종 31년 1536년(丙申)	33세	▶ 셋째 아들 이(珙) 출산
연도 미상		▶ 셋째 딸 출산
중종 35년 1540년(庚子)	35세	▶ 병환으로 온 집안이 걱정해 잠겼는데 다섯 살 난 율곡이 어디로 가고 보이지 않아 모두 나서 찾아보니 어린 율곡이 사당 앞에 가서 엎드려 어머니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중종 36년 1541년(辛丑)	38세	▶ 강릉 친정에서 어머니결을 떠나 한성으로 올라가며 대관령에서 시를 읊다. ▶ 서울 수진방(壽進坊)에서 시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주관하다.
중종 37년 1542년(壬寅)	39세	▶ 넷째 아들 우(瑀) 출산
연도 미상		▶ 서울에서 살며 늘 홀로 계신 어머니를 그리 시를 읊으며 눈물 을 짓다.
인종(仁宗) 원년 1545년(乙巳)	42세	▶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난다. 이런 때마다 부인은 돌아가 신 친정 부친 생각과 함께 남아 계신 어머니를 더욱 그리워하 게 되었다.
명종(明宗) 5년 1550년(庚戌)	47세	▶ 여름에 부군 이원수공이 수운판관(水運判官)에 임명되다.
명종 6년 1551년(辛亥)	48세	▶ 집을 삼청동(三清洞)으로 옮기다. ▶ 여름에 부군이 세곡(稅穀)을 실어 올리는 일로 평안도 지방으로 아들 선과 이와 함께 가다. ▶ 5월 17일[음력] 새벽, 병으로 누운지 2·3일 만에 홀연히 별세 하다. 바로 그날 부군과 두 아들이 배를 타고 서강(西江)에 도착 하여 부인의 별세한 소식을 듣다. ▶ 파주 두문리(斗文里) 자운산(紫雲山)에 장사 지내다.

율곡 연보

년도	나이	내용
중종(中宗) 31년 1536년(丙申)	1세	▶ 12월 26일[음력] 인(寅)시[새벽 4시경]에 강릉 북평촌(北坪村) 외가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 이원수공은 36세, 어머니 사임당은 33세였다.
중종 33년 1538년(戊戌)	3세	▶ 글을 읽기 시작하다.
중종 35년 1540년(庚子)	5세	▶ 어머니 사임당이 병환으로 늙자 외조부 사당 앞에 가서 기도 하니 모든 집안 사람들이 경탄하다. ▶ 큰 비가 와서 마을 앞 시냇물이 넘치는데 건너가던 행인이 발을 헛딛어 넘어지자 모두를 박장대소하는데 오직 율곡만은 걱정하다가 그가 안전해진 것을 보고서야 안심하였다.
중종 36년 1541년(辛丑)	6세	▶ 강릉으로부터 어머니를 따라 서울 수진방으로 올라오다.
중종 37년 1542년(壬寅)	7세	▶ 어머니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스스로 문리(文理)에 통했으며,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을 어렵지 않게 스스로 깨닫다.
중종 38년 1543년(癸卯)	8세	▶ 파주 율곡리(栗谷里)에 있는 정자 화석정(花石亭)에 올라 시를 짓다.
중종 39년 1544년(甲辰)	9세	▶ 『이륜행실(二倫行實)』을 읽다가 옛날 장공예(張公藝)의 9대(代) 가족이 모두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을 읽고 그를 사모한 나머지 형제들이 부모를 받들고 같이 사는 그림을 그려 놓고 바라보았다.
명종 원년 1546년(丙午)	11세	▶ 아버지가 병환이 나자 팔을 찢러 피를 내어 바치고 사당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명종 3년 1548년(戊申)	13세	▶ 진사(進士) 초시(初試)에 올라 학문의 명성이 자자해지다.
명종 6년 1551년(辛亥)	16세	▶ 5월에 어머니 사임당 별세. ▶ 「어머니 행장[先妣行狀]」을 짓다.
명종 9년 1554년(甲寅)	19세	▶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도의의 사귀름 맺어 평생 변하지 않다. ▶ 3월에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 불교와 연을 맺다.

년도	나이	내용
명종 10년 1555년(乙卯)	20세	▶ 봄에 다시 속세로 돌아와 강릉 외조모에게로 가다. ▶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 「자경문(自警文)」을 짓다.
명종 11년 1556년(丙辰)	21세	▶ 봄에 서울 집으로 돌아오다.
명종 12년 1557년(丁巳)	22세	▶ 9월에 성주(星州) 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에게 장가들다.
명종 13년 1558년(戊午)	23세	▶ 봄에 경상북도 예안(禮安)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을 찾아가 뵙고 학문을 물으니, 그 때 퇴계는 선생보다 35세 위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선산(善山) 매학정(梅鶴亭)에 들러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를 만나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뒷날 동생 우(瑀)가 고산의 딸과 결혼한 듯 하다.
명종 16년 1561년(辛酉)	26세	▶ 5월에 아버지 이원수공이 별세. 어머니 무덤에 합장하다.
명종 19년 1564년(甲子)	29세	▶ 봄에 청송(淸松) 성수침(成守琛) 선생 별세 후 그의 행장을 짓다. ▶ 7월에 생원(生員), 진사(進士)에 오르코 8월에 명경급제(明經及第)에 올라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임명되다.
명종 20년 1565년(乙丑)	30세	▶ 봄에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옮기다.
명종 21년 1566년(丙寅)	31세	▶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으로 임명되다. ▶ 겨울에 이조좌랑(吏曹佐郎)이 되어 관계의 흐린 행습을 바로잡다.
명종 22년 1567년(丁卯)	32세	▶ 명종 임금의 만사(輓詞)를 짓다. ※만사: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
선조(宣祖) 원년 1568년(戊辰)	33세	▶ 2월에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에 임명되다. ▶ 4월에 장인 노경린 별세 ▶ 11월에 다시 이조좌랑에 임명되자 강릉 외조모 이씨의 병환이 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강릉으로 돌아가다. ※ 이 때에 간원(諫院)에서는 본래 법전에 외조모 근친하는 것은 실려있지 않다하여, 직무를 버리고 가는 것은 용서할 수 없으니 파직을 청한다 하였으나 선조는, 비록 외조모일지라도 정이 간절하면 가 볼 수도 있는 것이며, 또 효행에 관계된 일로 파직시킬 수는 없다하고 듣지 않았다.

년도	나이	내용
선조 2년 1569년(己巳)	34세	▶ 6월에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에 임명되어 7월에 서울로 올라오다. ▶ 9월에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어 올리다. ▶ 10월에 임금의 특별 휴가를 얻어 강릉 외조모에게 돌아갔는데, 이 때에 외조모 이씨가 90세로 별세하다.
선조 3년 1570년(庚午)	35세	▶ 4월에 교리에 임명되어 서울로 돌아오다. ▶ 8월에 만형 선(璫) 별세 ▶ 10월에 병으로 벼슬을 사면하고 처가인 해주(海州) 들마음(野頭村)로 돌아가다. ▶ 12월에 퇴계 선생의 부음을 듣고 영위를 갖추어 멀리 곡하다.
선조 4년 1571년(辛未)	36세	▶ 정월에 해주로부터 파주 율곡리로 돌아가다. ▶ 교리에 임명되어 불러 올라와 의정부(議政府) 검상사인(檢祥舍人),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으로 옮겼으나 모두 병으로 사퇴하고 해주로 돌아가다. ▶ 해주에서 학자들과 함께 고산(高山) 석담구곡(石潭九曲)을 구경하고 해가 저물어 돌아오다가 넷째 골짜기에 이르러 ‘송애(松崖)’라 이름짓고 기문(記文)을 지으며, 남은 여덟 골짜기에도 모두 이름을 붙여 기록하고, 은거할 계획을 세우다. ▶ 6월에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임명되어 전심으로 백성 교화에 힘쓰며 손수 「향약(鄉約)」을 기초하여 백성들에게 실기케 하다.
선조 5년 1572년(壬申)	37세	▶ 3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서울로 올라와 여름에 율곡리로 돌아가다. 이 때에 저 유명한 이기설(理氣說) 때문에 우계(牛溪) 선생과 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선조 6년 1573년(癸酉)	38세	▶ 7월에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에 임명되자 병으로 사퇴하고자 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올라와 세 번 상소하여 허가를 받아 8월에 율곡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감군은(感君恩)」시를 짓다. ▶ 9월에 직제학에 임명되어 다시 올라오다. ▶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 수찬관(修撰官)에 임명되다.

년도	나이	내용
선조 7년 1574년(甲戌)	39세	▶ 정월에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오르고 이른바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지어 올려 시국을 바로잡기에 애쓰다. ▶ 3월에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다. ▶ 6월에 서자 경림(景臨) 출생 ▶ 10월에 황해도 관찰사(觀察使)에 임명되다.
선조 8년 1575년(乙亥)	40세	▶ 동서당쟁(東西黨爭)이 시작되다. ▶ 9월에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어 올리다.
선조 9년 1576년(丙子)	41세	▶ 2월에 율곡리로 돌아가다. ▶ 10월에 해주 석담으로 돌아가 먼저 청계당(廳溪堂)을 짓다.
선조 10년 1577년(丁丑)	42세	▶ 정월에 석담에서 가족들을 모으고 '같이 살며 서로 경계하자'는 의미의 「동거계사(同居戒辭)」를 지어 읽히다. 사당을 짓고 죽은 망형의 부인 곽씨로 하여금 종가 신주를 모시고 와서 거하게 하며, 진심으로 위로해 드리는 한편 서모도 극진히 봉양하다. ▶ 12월에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짓다. 그리고 또 향약을 만들어 고을의 폐습을 바로잡고, 사창(社倉)제도를 실시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에 힘쓰므로 모든 군민들의 칭송을 받다.
선조 11년 1578년(戊寅)	43세	▶ 고산 석담구곡이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과 같다 하여 다섯째 골짜기 청계당 동쪽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무이도가(武夷棹歌)를 본떠서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짓다. ▶ 3월에 대사간에 임명되어 올라오다. ▶ 4월에 율곡리로 돌아갔다가 5월에 다시 「만언소(萬言疏)」를 올리고 겨울에 석담으로 돌아가다.
선조 12년 1579년(己卯)	44세	▶ 3월에 도봉서원(道峰書院)을 짓다. ▶ 서자 경정(景鼎) 출생 ▶ 『소학집주(小學集註)』를 탈고하다.
선조 13년 1580년(丙辰)	45세	▶ 5월에 『기자실기(箕子實記)』를 편찬하다.
선조 14년 1581년(丁巳)	46세	▶ 4월에 백성들을 구제하는 방책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고 자청하여 실시하다. ▶ 6월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으로 특별 승진하다. ▶ 10월에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오르다.

년도	나이	내용
선조 15년 1582년(戊午)	47세	▶ 정월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다. ▶ 7월에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지어 올리고 『김시습전(金時習傳)』, 『학교모범 및 사목(學校模範及事目)』을 지어 올린다. ▶ 10월에 명(明)나라로부터 오는 사신을 영접하는 원접사(遠接使)의 명을 받들다. ▶ 12월에 다시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다.
선조 16년 1583년(己未)	48세	▶ 2월에 시국에 대한 정책을 개진하다. ▶ 4월에 다시 한번 시국 구제에 관한 의견을 써서 간곡한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불필요한 벼슬을 도태할 것, 고을들을 병합할 것, 생산을 장려할 것, 황무지를 개간할 것,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공납(貢納)에 대한 법규를 개혁할 것, 성곽을 수보할 것, 군인의 명부를 정확히 할 것, 특히 서자들을 등용하되 곡식을 가져다 바치게 하고, 노예들도 곡식을 바치는 정도에 따라 양민으로 허락해 주자는 것 등이다. 그리고 또 국방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10만의 군인을 양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 6월에 북쪽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략해 들어온 사실로 삼사(三司)의 탄핵을 입어 인책 사직하고 울곡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해주 석담으로 가다. ▶ 9월에 판동녕부사(判敦寧府事)에 제수되고 또 이조판서에 임명되다.
선조 17년 1584년(庚申)	49세	▶ 정월 16일[음력]에 서울 대사동(大寺洞) 집에서 별세하다. ▶ 3월 20일에 파주 자운산(紫雲山)에 장사지내다. ▶ 별세한 지 40년 뒤 인조(仁祖) 2년인 1624년(甲子) 8월에 문성(文成)이라는 시호를 받다.

이야기로 만나는

사임당과 물곡

초판 1쇄 인쇄 2014년 12월 20일 인쇄

초판 3쇄 인쇄 2015년 11월 20일 발행



펴낸곳 (사)울곡연구원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124(죽헌동)

전화 033-642-4982 팩스 033-647-4046

전자우편 yulgokee@hanmail.net

홈페이지 www.yulgok.or.kr

인쇄처 원영출판사

주소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27번길 5-3

전화 033-652-3841 팩스 033-653-3480

전자우편 6533841@naver.com

ISBN 978-89-93075-76-2 03990

※ 이 책은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하실 수 없습니다.

